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원천강본풀이>의
현대적 변용 양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국 어 교 육 전 공

김 민 수

2014년 2월

<원천강본풀이>의
현대적 변용 양상 연구

지도교수 오 윤 선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국 어 교 육 전 공

김 민 수

2014년 2월

김민수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14년 2월

차 례

논문 요약	v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사 검토	3
3.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	8
II. 서사무가 <원천강본풀이>의 원형적 특성	13
1. 서사의 특성	14
가. 자아정체성을 확립해가는 여행담의 서사	16
나. 상호조력을 통한 문제 해결의 서사	18
2. 배경의 특성	21
가. 사계절이 머무는 공간으로서의 원천강	21
나. 행복을 열어주는 점서(占書)로서의 원천강	23
3. 인물의 특성	26
가. 행복을 전해주는 여신 ‘오늘이’	26
나. ‘오늘이’와 접촉하는 인물들	28
III. 이야기책으로의 변용 양상	40
1. 신화소가 변형된 ‘다시쓰기’ 이야기책	42
2. 원작의 가치를 뛰어넘지 못한 ‘고쳐쓰기’ 이야기책	61
3. 신화소를 살리는 서사무가의 동화화	79

IV. 영상, 공연 매체로의 변용 양상	88
1. 현대 대중과 소통하는 애니메이션 <오늘이>	88
2. 현대 어린이와 소통하는 음악극 <오늘이>	102
3. 신화적 가치의 현대적 재해석	119
V. 결론	127
참고문헌	131
ABSTRACT	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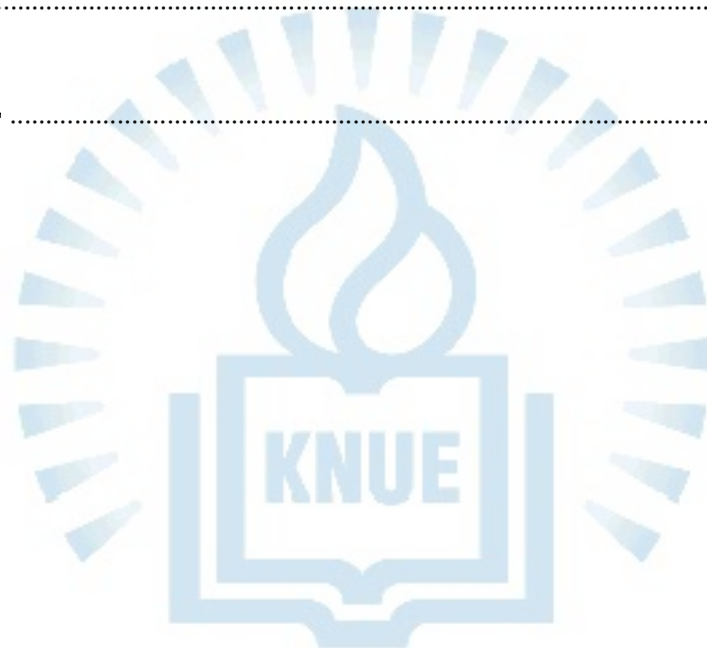


표 차례

<표 1> <원천강본풀이>를 바탕으로 제작된 이야기책 현황	9
<표 2> <원천강본풀이>를 모티브로 제작된 공연 작품 현황	11
<표 3> 채록본과 ‘다시쓰기 이야기책들’의 비교 분석	60
<표 4> 채록본과 ‘고쳐쓰기 교학사본’의 비교 분석	72
<표 5> 채록본과 ‘고쳐쓰기 키움본’의 비교 분석	79
<표 6> 채록본과 ‘애니메이션<오늘이>’의 비교 분석	101
<표 7> 채록본과 ‘음악극<오늘이>’의 비교 분석	117



그림 차례

<그림 1> 장상도령과 매일이가 만나는 장면 (웅진주니어 정하섭본, 30면)	41
<그림 2> 목련으로 그려진 ‘연꽃남기’ (웅진닷컴 조호상본, 32면)	55
<그림 3> 파스텔풍의 영상장면 (애니메이션)	88
<그림 4> ‘원천강’을 설명하는 자막 (애니메이션)	93
<그림 5> 아이의 모습을 한 오늘이 (애니메이션)	95
<그림 6> 오늘이와 어울려 놀고 있는 학 (애니메이션)	96
<그림 7> 매일이가 있는 책으로 된 성 (애니메이션)	97
<그림 8> 원천강을 찾아 주기 위해 꺼낸 지도책 (애니메이션)	98
<그림 9> 안경을 쓴 매일이 (애니메이션)	98
<그림 10> 쓸쓸해 보이는 구름이 (애니메이션)	98
<그림 11> 한 송이밖에 꽃이 피지 않아 고민하는 연꽃 (애니메이션)	99
<그림 12> 여의주에 집착하는 이무기 (애니메이션)	100
<그림 13> 음악을 연주해 주는 악단 출연진 (음악극)	103
<그림 14> 그림자극의 모습 (음악극)	104
<그림 15> 한지로 제작된 출연진들의 의상 (음악극)	104
<그림 16> 등장인물들 (음악극)	110
<그림 17> 선녀로 변하는 오늘이 (음악극)	111

논 문 요 약

<원천강본풀이>의 현대적 변용 양상 연구

김 민 수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 전공

(지도교수 오 윤 선)

본고는 서사무가라는 낯선 장르의 생소한 작품 <원천강본풀이>가 현대의 다양한 매체에서 꾸준히 재창작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여 <원천강본풀이>가 오늘날 지니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현재 다양한 매체에서 재창작되고 있는 양상을 분석하여 앞으로 이 작품이 각 매체에서 어떻게 재창작되어야 할지 그 방향에 대해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서사무가 <원천강본풀이>의 원형적 특성을 분석하여 이 작품이 오늘날 지니는 가치와 의의를 규명하였다. 이 이야기는 짧은 서사 속에 많은 철학적 사유를 내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원천강본풀이>는 결국 모든 존재들은 본질적으로 결핍되어 있으므로 그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것을 겸허히 내려놓고 타인과 연대할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신화시대의 사유 방식은 공동체가 와해되어 개인주의적 삶에 젖은 오늘날의 우리에게 잔잔한 깨달음을 전해 준다. 짧은 이 신화는 현대의 우리에게 무수히 많은 삶의 화두들을 던져주면서 우리 삶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 이것이 바로 이 작품이 현재에도 여러 다양한 작품으로 재창작되게 만드는 힘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원천강본풀이>가 이야기책으로 영상·공연 매체로 변용된 양상

을 분석하여 <원천강본풀이>가 각 매체에서 재창작될 때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원천강본풀이>를 바탕으로 하는 다시쓰기 이야기책과 고쳐쓰기 이야기책은 대부분 어린이를 대상으로 동화화 된 형태로 출판되고 있다. 그런데, 원작의 가치와 특성을 어린이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목적임에도 서사무가의 신화소(神話素)들이 변형되어 동화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이야기책 작가들이 서사무가 장르와 채록본 신화소(神話素)의 의미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은 채 동화화했기 때문이다. 원작을 그대로 옮겨 쓰는 다시쓰기의 작가 뿐 아니라 원작을 가능한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새롭게 창작한다 밝히고 있는 고쳐쓰기의 작가 또한 그들의 손에 의해 원작이 전달된다는 사실에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작품 창작에 임해야 할 것이다.

애니메이션 <오늘이>와 음악극 <오늘이>는 모두 <원천강본풀이>가 현대적으로 변용된 작품들이다. 두 작품은 모두 작가가 우리 신화 <원천강본풀이>의 가치를 알아보고 오늘날의 콘텐츠 수용자에 맞게 원작을 현대적으로 훌륭히 재해석하였기에 탄생할 수 있었다. 이렇게 <원천강본풀이> 및 아니라 우리의 무수히 많은 신화들이 신화시대의 이야기로 머무르지 않고 오늘날에도 사랑받는 새로운 작품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원작이 지닌 가치를 발견하여 그것이 현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소통될 수 있도록 적절히 재해석하여 각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원천강본풀이>를 모티브로 한 작품들이 계속하여 훌륭히 재창작된다면 <원천강본풀이>는 오늘날 문화콘텐츠의 원형 서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주요어 : <원천강본풀이>, 이야기책 <오늘이>, 애니메이션<오늘이>, 음악극<오늘이>, 변용, 문화콘텐츠

※이 논문은 2014년 2월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주도 서사무가 <원천강본풀이>는 일반 대중들에게 낯선 작품이다. 하지만, 이 작품의 주인공 ‘오늘이’는 그에 비해 친숙한 인물이다. 이 작품은 현재 <오늘이>란 이름으로 다양한 매체에서 계속하여 재창작되고 있으며, 서사무가로는 최초로 초등학교 『읽기3-1』 교과서에도 수록되었다.

이 작품이 현대적으로 재창작된 양상을 매체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근 우리 신화에 대한 관심이 재조명되면서 서사무가를 이야기책으로 발간하는 현상이 출판계에서 잦아졌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서사무가 <원천강본풀이> 또한 현재까지 12종의 이야기책으로 발간되었다.

그리고, 문학 이외에 매체를 전환하여 영상과 공연 작품으로도 활발하게 재창작되고 있다. 그 중 애니메이션 <오늘이>¹⁾는 가장 대표작이라 할 수 있다. 이 애니메이션은 자그레브 애니메이션 영화제 특별상(2004), 동아·LG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단편 부문 대상(2004)을 수상했고 안시 페스티벌, 브라질 국제 애니메이션 영화제, 대만 금마장 영화제 등에 초청되는 등 작품성을 인정받으며 상연 후 계속하여 호평을 받고 있다.

이 뿐 아니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음악극으로 <춘하추동 오늘이>²⁾와 <오늘이>³⁾가 공연되었다. 이 중 국립국악원에서 제작한 <오늘이>은 첫 공연한 2008년 이래 올해 2013년까지 매년 어린이날 주간마다 상연되고 있는데, 매년 매회 매진을 기록할 만큼 어린이들과 부모들에게 인기가 매우 높다. 이 작품은 국내에서의 이러한 인기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오키나와에서 열린 2009 국제아동청

1) 이성강감독, 애니메이션<오늘이>, 2003.

2) 극단 신화세상, 음악극 <춘하추동 오늘이>, 2004.

3) 국립국악원제작, 조태준 극본·이병훈 연출, 음악극 <오늘이>, 2008.

소년연극협회(ASSITE)페스티벌 공식 초청작으로 참가하는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예술적 성취를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현대 성인을 대상으로 <원천강본풀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창작한 연극과 뮤지컬 작품들도 있다. <내 안의 원천강 오늘이>⁴⁾, 국악뮤지컬<오늘,오늘이>⁵⁾, <내 이름은 강(江)>⁶⁾이 그것들이다. 뮤지컬이나 연극 이외에 인형극<무대에서 꽃피는 우리 신화 - 오늘, 오늘이의 노래>⁷⁾도 2011춘천국제인형극제에서 공연 되었으며, 창작발레 <시간의 꽃, 오늘>⁸⁾도 <원천강본풀이>를 모티브로 하여 공연되었다.

본고는 서사무가라는 낯선 장르의 생소한 작품 <원천강본풀이>가 이렇게 현대의 다양한 매체에서 꾸준히 재창작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여 <원천강본풀이>가 오늘날 지니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현재 다양한 매체에서 재창작되고 있는 양상을 분석하여 앞으로 이 작품이 각 매체에서 어떻게 재창작되어야 할지 그 방향에 대해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곳이 구연되지도 않아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원천강본풀이>가 최근에 이렇게 여러 매체에서 재창작된다는 것은 분명 이 작품이 오늘날에도 소통될 수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원천강본풀이>는 다른 서사무가에 비해 아직 연구가 많이 되지 않은 작품이다. 그러므로, 본고는 우선 <원천강본풀이> 원작이 지닌 특성을 분석하여 이 작품이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해 줄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규명해 보고자 한다. 현대의 문화콘텐츠 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콘텐츠의 원소스에 해당하는 원형 스토리가 중요하다. 최근 우리도 우리만의 문화콘텐츠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만의 원형 스토리 구축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따라 최근 이것을 우리의 고전 작품에서 찾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다.⁹⁾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천강본풀이>는 이미 다양한 매체

4) 극단 덩이, 연극 <내 안의 원천강 오늘이>, 2008.

5) 극단 타루, 국악뮤지컬 <오늘,오늘이>, 2009.

6) 김광보 연출, 연극 <내 이름은 강(江)>, 2012.

7) 극단 로기나래, 인형극 <무대에서 꽃피는 우리 신화 - 오늘, 오늘이의 노래>, 2011.

8) 김순정 발레단, 발레 <시간의 꽃, 오늘>, 2008

9) 구본기·송성옥은 그 가능성을 대하소설에서 찾고 있다. - 구본기·송성옥, 「고전문학과 문화콘텐츠의 연계방안」, 『고전문학학회』 25집, 한국고전문학회, 2004.

의 작품에서 원형 스토리로 자리하고 있기에 본고에서 현대의 대중들과 소통할 수 있는 가치를 찾아 규명한다면, 이 작품은 더욱 다양한 콘텐츠의 원형 스토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그런데, <원천강본풀이>가 현대에 재창작되는 목적은 매체별로 다르다. 인쇄매체인 이야기책은 입에서 입으로 작품을 전하던 구비문학적 방식이 글로 바뀐 것이다. 그러므로, 원작의 가치와 의미를 현대의 독자들에게 가능한 그 모습 그대로 계승, 전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그에 비해 영상·공연 매체의 작품들은 <원천강본풀이>가 현대의 종합예술적인 매체로 그 모습을 완전히 전환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원천강본풀이>를 모티브로 창작된 전혀 새로운 작품으로 현재의 관객과 소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본고는 우선 <원천강본풀이>를 바탕으로 제작된 각 매체의 작품들의 변용 양상을 분석하여, 각 매체의 목적에 맞는 적절한 변용인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즉, <원천강본풀이>를 대상으로 창작된 이야기책들의 변용 양상을 분석하여 그것이 원작의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계승, 전달하고 있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원천강본풀이>를 모티브로 창작된 영상과 공연 작품을 분석하여 그것이 오늘날 대중들과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작품으로 거듭나고 있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각 매체에서 <원천강본풀이>가 재창작되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최종적으로 제언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원천강본풀이>뿐 아니라 우리의 고전작품이 현대에도 살아 숨 쉴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2. 연구사 검토

이 연구에 있어 연구사는 크게 세 방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무속신화 <원천강본풀이>의 작품 연구와 둘째 <원천강본풀이>의 현대적 변용 양상에 관한 연구, 셋째 서사무가의 현대적 변용 양상에 관한 연구이다.

첫째, <원천강본풀이>의 작품 연구이다. <원천강본풀이>는 현대적 재창작이 활발한 것에 비해 <원천강본풀이>의 작품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그 이유는 제주도에서만 두 번 채록되었고, '사회·문화적 변동으로 말미암아 세습무가 급격히 감소하고 당국이 쇠퇴하면서 본풀이 구송능력 등이 약화됨'¹⁰⁾으로써 이 본풀이가 현재 구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 듯하다.

<원천강본풀이>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장주근에 의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원천강은 오행상서(五行相書)들을 저술한 중국 당대의 복자(卜者)인데, <원천강본풀이>에서 말하는 원천강은 도해역서(圖解易書)인 『원천강화주역』(袁天綱畫周易)을 말하는 듯 하고, 신의 나라를 지칭하고 있다고도 한다. 또, <원천강본풀이>는 달리 소설로도 무가로도 보이지는 않으나, 결말에 절마다 원천강을 등사했다는 내용에 비추어 불교의 복합 보급성을 강하게 느끼게 한다고 하였다.¹¹⁾

또 현용준은 <원천강본풀이>, <세민황제본풀이>가 『조선무속의 연구』 상편에 채록되어 있지만, 현재 진행되는 예를 볼 수 없어 그 대상인 신의 직능도 알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¹²⁾

이렇게 본격적으로 연구되지 않던 <원천강본풀이>가 연구의 대상으로 주목받은 것은 이수자에 의해서였다. 여기에서는 먼저 두 가지로 채록된 <원천강본풀이>의 각편인 박봉춘본과 조술생본의 진위 여부를 가렸는데, 박봉춘본이 영웅의 일대기적 서사구조, 부모 찾기 서사구조, 여로형 서사구조를 지닌 반면, 조술생본은 탄생담이나 성장담, 공업담이 없는 일종의 에피소드로 규정하여 박봉춘본을 <원천강본풀이>의 원래적 자료라 판단하였다. 또 원천강의 형상은 춘하추동이 있는 시간과 관련된 공간으로서 신화적 인식이 표현된 것이라 하였고, 주인공인 오늘이는 이러한 원천강을 주재하는 신격을 지녔다고 보았다.¹³⁾

김왕식은 구복여행담과 서사무가와와의 관련성을 내용적 측면에서 고찰¹⁴⁾하였고,

10) 조성윤 외 2인, 『제주지역 민간신앙의 구조와 변용』, 백산서당, 2003, 231면.

11) 장주근, 「설화편」, 『한국민속논고』, 계몽사, 1986, 362면.

12) 현용준, 「제주도 무속신화의 제상」,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13) 이수자, 「무속신화<원천강본풀이>의 신화적 의미와 위상」, 『남도민속학의 진전』, 태학사, 1998.

14) 김왕식, 「구복여행담 연구: 공간이동양상과 서사무가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강권용은 특수본풀이에 대한 연구에서 <원천강본풀이>와 여타의 특수본풀이와의 관련성에 초점을 두어 논의하였다.¹⁵⁾

김혜정은 원천강의 의미를 '새로운 세상을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공간 혹은 책이자, 그러한 일을 돕는 사람(무당)'임을 전제하고, 박봉춘본과 조술생본을 제주도 설화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박봉춘본을 '개인적 욕망을 채우는 남성의 구복 여행담이, 자신의 운명과 더불어 다른 사람의 운명까지 바꾸어주는 여신의 좌정담'으로 바뀌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 연구는 서로 다른 두 편의 <원천강본풀이>를 제주도 설화와 비교분석하여 <원천강본풀이>라는 제명(題名)아래 두 가지의 본으로 전혀 다른 서사단락과 여신이 나타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규명하였다.¹⁶⁾

조홍윤은 박봉춘본 <원천강본풀이>를 대상으로 주인공 오늘이가 시간의 신으로서 좌정하게 된 서사적 맥락을 밝히고자 하였다. 서사적 맥락을 따라 <원천강본풀이> 속의 시간의 의미를 밝히고, 시간의 신으로 좌정한 오늘이의 내력을 밝혔다.¹⁷⁾

고은임은 <원천강본풀이>의 서사적 의미와 신격, 신화적 사유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이야기는 오늘이가 자아 정체성을 획득하며 성장하는 이야기로 상보성을 긴요하게 담지하고 있음을 밝혔다.¹⁸⁾

둘째, 이러한 <원천강본풀이>의 작품 분석 연구뿐 아니라 최근 박봉춘본 <원천강본풀이>를 바탕으로 현대적 변용 작품이 활발히 창작되면서 이에 대한 연구들도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조미라는 애니메이션 <오늘이>를 중심으로 신화적 모티브를 바탕으로 한 애니메이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화적 소재가 가진 '보편성'의 주제를 현대

15) 강권용, 「제주도 특수본풀이 연구 : <원천강본풀이>,<세민황제본풀이>,<허궁애기본풀이>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16) 김혜정, 「제주도 특수본풀이<원천강본풀이>연구」, 『한국무속학』 20집, 한국무속학회, 2010.

17) 조홍윤, 「<원천강본풀이>의 서사에 나타난 '시간'의 의미 연구」, 『남도민속연구』 23집, 남도민속학회, 2011.

18) 고은임, 「「원천강본풀이」 연구 : '오늘이' 여정의 의미와 신화적 사유」, 『관악어문연구』 35집,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10.

적 시각으로 재해석하는 작가의식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¹⁹⁾

김명석은 영상매체를 통해 논술지도를 하는 전략을 소개하면서 애니메이션 <오늘이>를 활용하였다.²⁰⁾

김유진은 박봉춘본 <원천강본풀이>를 구복설화 구조와 비교 분석 후 서사무가로서 신화적 성격에 대해 고찰한 후, <원천강본풀이>의 동화화, 영화화된 양상을 고찰하였다.²¹⁾

김권호는 서사무가로는 처음으로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오늘이>와 그동안 출간된 어린이용 각색 이야기책들을 비교하여 채록본이 지닌 옛이야기로서의 가치와 정신을 이 이야기책들이 제대로 전승하고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²²⁾

이종호는 박봉춘 본의 <원천강본풀이>와 이 본풀이를 차이화한 이성강의 애니메이션 <오늘이>를 서사적 소통의 관점에서의 비교 분석하였다.²³⁾

김명옥은 <원천강본풀이>를 그림책으로 매체 전환할 때 나타나는 서술 전략을 살피며, 재화한 그림책들의 문제점을 고찰하였다.²⁴⁾

셋째, <원천강본풀이> 작품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지만 서사무가의 현대적 변용 양상을 고찰한 선행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김환희가 서사무가 <바리공주>와 전래동화 <바리공주>를 비교 분석하여 무(巫)의 세계관과 서사무가의 예술성이 어떻게 계승 전달되는 지를 고찰하였다.²⁵⁾

19) 조미라,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신화적 상상력- 애니메이션 <오늘이>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제7권 제2호, 한국콘텐츠학회, 2007, 243면

20) 김명석, 「영상매체를 활용한 문학논술 지도 전략-애니메이션 <오늘이>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28집, 우리문화회, 2009.

21) 김유진, 「「원천강본풀이」의 신화적 성격과 현대적 변용 양상」, 『아동청소년문학연구』 6집,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0.

22) 김권호, 「교과서 수록본 「오늘이」의 비판적 검토 - 「원천강본풀이」와 어린이용 판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우리말교육현장연구』 6집1호, 우리말교육현장학회, 2011.

23) 이종호, 「서사무가<원천강본풀이>와 애니메이션<오늘이>비교 연구」, 『온지논총』 27집, 온지학회, 2011.

24) 김명옥, 「「원천강본풀이」를 재화한 <오늘이>에 나타난 서술전략과 문체 연구」, 『동화와번역』 22집, 건국대학교 동화와 번역 연구소, 2011.

25) 김환희, 「바리공주 이야기 속의 전통과 현대」, 『동화와 번역』 2집, 건국대학교 중원인문연구소, 2001.

비슷한 맥락으로 박현숙이 <바리공주>의 예술적 가치와 아동교육과 관련하여 전래동화로 재창조 된 사례를 연구하고 무속신화의 현대적 재창조 가능성을 살폈다. 바리공주의 텍스트 원형을 왜곡하거나 신화로서의 교육적 가치를 전달하고 있지 못한 재창조물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내면적 주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을 하여 재창조방안을 제시하였다.²⁶⁾

그리고, 오영미은 <바리공주>외에 <창세신화>와 <세경본풀이> 두 편을 추가하여 세 편의 무속신화를 어린이용 동화와 비교·분석하여 구체적인 재창조의 양상을 고찰하였다.²⁷⁾

송태현은 <바리공주>를 대상으로 한 앞의 세 연구와 달리 ‘자청비’를 중심으로 신화와 문화콘텐츠 양상을 살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자청비 신화의 문화콘텐츠화 현황에 대해 고찰하는 데 중점을 두어 앞으로의 자청비 신화의 문화콘텐츠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피지는 못했다.²⁸⁾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원천강본풀이>의 작품 분석 연구와 현대적 변용 양상에 대한 연구가 미약하나마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변용 양상 연구에 있어 이야기책들과 애니메이션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각 2편씩 있지만 아직 음악극에 대한 연구는 없다. 그리고, 이 변용 양상을 매체별로 비교 분석하여 앞으로의 창작 방안까지 제언한 연구는 없기에 본 연구는 의의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26) 박현숙, 「무속신화<바리공주>의 재창조에 관한 연구, 구비문학을 통한 아동교육과 관련하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27) 오영미, 「무속신화의 문화적 재창조 방안 연구-창세신화, 바리공주, 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2.

28) 송태현, 「신화와 문화콘텐츠-제주신화 ‘자청비’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22,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9.

3.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

제주도 무속신화 <원천강본풀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록본이 두 가지 존재한다. 구연자의 이름을 딴 박봉춘본과 조술생본이다. 그런데, 제목은 <원천강본풀이>로 같지만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다. ‘오늘이’란 인물은 박봉춘본에만 나오는데 일제강점기 경성제대 교수인 아카마즈 지조(赤松智城)와 아카바 다카시(秋葉陸)에 의해 1937년 채록되어 『朝鮮巫俗의 研究』에 수록되어 있다.²⁹⁾ 조술생본은 해방 후 1956년 3월에서 1963년 7월 사이에 진성기에 의해 채록되어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에 수록되어 있다.³⁰⁾ 이 조술생본은 박봉춘본과 제목은 <원천강본풀이>로 동일하지만 ‘오늘이’가 등장하지 않고, 내용도 완전히 다르다.³¹⁾ 학계에서는 연구자에 따라 이 두 작품이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 보는 입장과 제목이 같기에 서로 영향 관계가 있을 것이라 보는 입장이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원천강본풀이>의 현대적 변용 작품들은 모두 ‘오늘이’가 등장하는 박봉춘본을 토대로 하고 있기에 본고에서는 박봉춘본만을 대상으로 하겠다.

박봉춘본 <원천강본풀이>를 토대로 현재까지 재창작된 작품들은 이야기책 12편, 애니메이션 1편, 어린이용 음악극 2편, 성인용 연극 및 뮤지컬 3편, 발레무용 1편, 인형극 1편 등이다. <원천강본풀이>를 재창작하는 데 있어 인쇄매체와

29) 아카마즈 지조(赤松智城)·아카바 다카시(秋葉陸), 『조선무속의 연구』, 동문선, 1991, 292~299면.

30) 진성기 역,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614면.

31) 조술생본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원천강 남편이 왕이 되려 하자 나라에서 잡으려 하나 항아리 속에 숨어버려 잡아갈 수가 없었다.
- ② 나라에선 피를 내어 어떤 부인에게 아기를 업고 가서 원천강 남편을 찾으려 했다.
- ③ 아기 업은 여인은 원천강에게 가 남편을 내놓으라면서 아기를 낳기만 하고 세 살 되도록 돌보지를 않는다며 야단을 쳤다.
- ④ 원천강은 남편이 첩을 얻어 아기를 낳은 줄 알고 항아리를 열어 야단법석을 떠니 나라에선 원천강 남편을 잡아가 버렸다.
- ⑤ 떠나면서 남편은 사흘만 더 있으면 하늘로 올라가 왕이 될 터인데, 속아서 일을 망쳤다고 하며 원천강이나 보면서 살라고 하였다. 그래서 부인을 원천강이라고 한다.
(현용준,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2007, 28~29면)

영상·공연 매체는 그 목적을 달리함을 앞서 밝혔다. 그러므로 인쇄매체와 영상·공연 매체로 장을 나누어 그 변용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인쇄매체인 이야기책은 현재까지 모두 12권이 있다. 옛이야기는 그 자체로 완성된 문학작품이지만, 말로 전해 온 이야기를 글로 적으려면 그 모습이 변화할 수밖에 없다. 서정오는 옛이야기가 글로 정착되며 변화된 정도에 따라 ‘다시쓰기’와 ‘고쳐쓰기’로 구분하였다. ‘다시쓰기’는 이야기 본래의 모습은 그대로 둔 채 이야기의 말투나 결가지를 조금 손질 하는 것을 의미하며, ‘고쳐쓰기’는 이야기 본래의 중심생각은 허물어뜨리지 않지만, 줄거리 중에서 몇 부분을 빼거나 고치거나 더 집어넣어서 본래의 모습과 다르게 된 것을 의미한다.³²⁾ 이것은 옛이야기가 ‘듣는 문학’에서 ‘읽는 문학’으로 그 꼴이 바뀌면서 필연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무당이 부르던 노래인 서사무가 <원천강본풀이> 또한 이것이 오늘날 읽는 이야기책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다시쓰기와 고쳐쓰기가 이루어졌다. <표 1>은 이 이야기책들을 ‘다시쓰기’와 ‘고쳐쓰기’로 나누어 출판년도 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표 1> <원천강본풀이>를 바탕으로 제작된 이야기책 현황

번호	구분	글	그림	제목	33)예 상독 자	출판 사	출판 년도	인쇄현황
1	다 시 쓰 기	엄혜숙		<한겨레옛이야기4> 『한락궁이/원천강 오늘이』	초등 학생 이상	한겨 레아 이들	1999	1판13쇄
2		조호상	김동성	<호룡불옛이야기 14> 『오늘이』	유아 부터	웅진 닷컴	2003	
3		서정오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신화』 「옥황선녀오늘이」	청소 년 이상	현암 사	2003	초판25쇄 (2012. 03.25)

32) 서정오, 「옛이야기 글로 옮기기」, 『옛이야기 들려주기』, 보리, 1995, 52~53면.

4		서정오	조수진	<우리나라그림책 02> 『오늘이』	유아 부터	봄봄	2007	1판7쇄 (2012. 05.25)
5		유영소	한태희	<한겨레옛이야기4> 『사계절의 신 오늘 이』	초등 학생 이상	한겨 레	2009	초판4쇄 (2012. 03.15)
6		신순재	김태현	<눈높이저학년문고 14/재미있고 쉽게 쓴 우리나라 신화> 『별이 된 일곱 쌍둥 이』 「사계절을 선 물하는 선녀」	초등 학생 이상	대교	2009	2판11쇄 (2012. 07.25)
7		김선우	김종민	<알강달강 옛이야기/ 신화4> 『오늘이』	유아 부터	한솔 교육	2009	
8		정하섭	윤정주	『오늘이』	유아 부터	웅진 주니 어	2010	초판4쇄 (2012.05 .31)
9		유다	김현아 박연우	『국어가 재밌어지는 3학년 맞춤 전래 동 화』 <기원을 알려 주 는 옛이야기> 「오늘이」	초등 학생 이상	거인	2010	1판1쇄 (2010.09 .06)
10	고 쳐 쓰 기	이성강	박영미 조미리	<한국 대표 애니메 이션 그림책 01> 『오늘이』	유아 부터	문공 사	2004	초판4쇄 (2005. 05.15)
11		최현숙	정승혜	<우리겨레 여신이야 기1> 『계절을 여는 아이 오늘이』	초등 학생 이상	교학 사	2005	초판4쇄 (2011. 01.25)
12		허난희	정승환	<아이키움 옛이야기 들/ 전통문화 창작동 화> 『오늘이』	유아 부터	키움	2008	1판1쇄 (2008. 06.16)

현재까지 출판된 12종의 이야기책 중 문공사, 교학사, 키움 본은 ‘고쳐쓰기’에

- 33) 글과 그림이 모두 나오는 이야기책 중 그림중심 이야기책은 유아부터, 글중심 이야기책은 초등학생 이상부터, 그림 없이 줄글로 이루어진 이야기책은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았다.

해당하고 이 외의 9종의 이야기책들은 ‘다시쓰기’에 해당한다. 이 12종의 이야기책 모두를 분석 대상으로 하겠다.

다음으로 영상매체는 애니메이션으로 한 편만이 있기에, 애니메이션 <오늘이>를 분석 대상으로 하겠다. 마지막으로 공연매체에는 <표2>와 같이 어린이 음악극 2편, 뮤지컬 및 연극 3편, 인형극 1편, 창작발레 1편 등이 있다.

<표 2> <원천강본풀이>를 모티브로 제작된 공연작품 현황

	작품명	장르	제작진	제작년도
1	<춘하추동 오늘이>	어린이음악극	극단 신화세상	2004
2	<오늘이>	어린이음악극	국립국악원	2008
3	<시간의 꽃, 오늘>	창작발레	김순정발레단	2008
4	<내 안의 원천강 오늘이>	연극	극단 덩이	2008
5	<오늘,오늘이>	국악뮤지컬	극단 타루	2009
6	<오늘,오늘이의 노래>	인형극	극단 로.기.나래	2011
7	<내 이름은 강(江)>	연극	김광보연출/고연옥 작	2012

현대적 변용 양상을 살펴보는 데 있어 대중들의 호응도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한다. 이 작품들 중 국립국악원에서 제작한 어린이 음악극<오늘이>만이 초연 이래 계속적 인기를 얻으며 유일하게 현재까지 상연되는 작품이기에 이 작품을 대상으로 하겠다.

위 작품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변용 양상을 살펴보기에 앞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무엇보다 원 작품이 가지는 특성을 분석하는 작업일 것이다. <원천강본풀이> 뿐 아니라 신화는 현대의 디지털 환경, 영상매체의 발전과 판타지 문화의 성장 등과 맞물려 오히려 가장 현대적인 문화 영역에서 새롭게 재생되고 있다. 소설, 영화, 드라마,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에서 신화에 대한 수요와 관심은 나날이 증대하고 있는 추세다. 문화 콘텐츠의 보고로 신화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신화의 상징 세계야말

로 문화적 창조력의 원천인 셈이다.³⁴⁾ 그런데 신화가 가장 새로운 것을 만드는 가능성이 되고 인류의 근원적 심성을 자극하여 현대에도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신화의 원래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래의 의미와 가치를 철저하게 고증, 고찰하는 작업 위에 현대적인 재해석이 가해질 때 비로소 신화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새로운 미래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II장에서는 서사무가 <원천강본풀이>의 원형적 특성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고자 한다. <원천강본풀이>를 우선 가장 작은 서사단락으로 나누어 전체를 고찰한다. 신화는 완전성을 띠는 텍스트이기에 그 안에 배치된 모든 서사의 단락들은 신화의 의미를 구성하는 의미요소로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간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서사단락을 작게 나누어 작품을 이루는 각 요소들을 분석한다면 전체 작품이 가지는 의미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그 후 문학작품을 구성하는 데 가장 핵심적 요소인 서사, 인물, 배경들의 특성을 분석하여 이 작품의 원형적 특성과 가치를 고찰하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원천강본풀이>가 이야기책으로 변용된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다시쓰기 이야기책 9종과 고쳐쓰기 이야기책 3종을 II장에서 채록본을 분석한 방법대로 서사, 배경, 인물 별로 분석하여 그 변용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이야기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V장에서는 <원천강본풀이>가 영상·공연 매체의 작품으로 변용된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애니메이션 <오늘이>와 음악극<오늘이>를 II장에서 채록본을 분석한 방법대로 서사, 배경, 인물 별로 분석하여 그 변용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III장과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작품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34) 오세정, 『설화와 상상력』, 제이앤씨, 2008, 241~317면.

II. 서사무가 <원천강본풀이>의 원형적 특성

제주도 서사무가 <원천강본풀이>는 1937년에 채록되어 『朝鮮巫俗의 研究』³⁵⁾에 수록되어 있다. 1930년대에 채록되었지만 무당이 부르는 노래인 이 서사무가는 아주 오래전 신과 인간의 소통을 믿는 신화의 시대부터 불리어졌다.

이것은 굿 현장에서 무당이 구연하는 노래를 채록한 것이기 때문에 현장성이 살아 있는 언어로 수록되어 있다. 서사무가에서 공연자인 무당은 무대에서 홀로 청중들에게 내용을 전달한다. 그 과정에서 등장인물의 목소리와 공연자(서술자)의 목소리가 결합한다. 이러한 서사무가의 특징이 <원천강본풀이>에도 나타난다.

가다보면매일이라는사람을만날터이니

그사람에게무려보시오

①여기서작별하고가다보니

매일이는거번의청의동자모양으로

별충당우에안저,②³⁶⁾글을읽고있더라 (채록본 298면³⁷⁾)

오늘이가 대사(大蛇)와 헤어지고 매일이를 만나는 장면은 서술자의 목소리와 등장인물의 목소리가 공존한다. ①은 오늘이의 시점으로 서술되기 때문에 청의 동자 모양으로 별충당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본 사람은 오늘이이다. 그런데 ‘글을 읽고 있더라’라고 청중에게 알려주는 것은 구연자이다. 또 하나 서술자의 목소리와 인물의 목소리 공존은 장소를 나타내는 지시대명사 ‘여기’와 회상을 나타내는 과거시제 ‘더’와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는 현재 말을 하는 ‘나(화자)’를 기점으로 하여 나와 가까운 쪽을 나타낸다. 그래서 ‘여기’는 현재성도 포섭하고 있다. ①에서 이야기 시간은 오늘이의 시점에서 서술하기 때문에

35) 아카마즈 지조(赤松智城) · 아키바 다카시(秋葉陸), 앞의 책, 292~299면.

36) ①②는 연구자가 표시함.

37) 아카마즈 지조(赤松智城) · 아키바 다카시(秋葉陸), 『조선 무속의 연구』, 동문선, 1991, 298면.-
채록본의 인용문은 모두 이 책에서 인용하였으므로 이하 면수만 밝히겠음.

오늘이가 서 있는 곳이 '여기'가 되며 오늘이를 시점으로 진행한 이야기 시간은 현재가 된다. 만약 위의 인용문이 서술자의 목소리였다면, '여기'가 아니라 "'그 곳'에서 작별하고"로 서술되어야 맞다. 서술자는 현장에서 '지금'구연을 하고 있지만, 이야기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는 오늘이의 목소리를, "글을놓고있더라"는 과거에 일어난 일을 청자에게 알려주는 서술자의 목소리다.³⁸⁾ 이렇게 서사무가 <원천강본풀이>는 등장인물의 목소리와 공연자(서술자)의 목소리가 함께 결합하여 무당에 의해 노래 불려졌다.

이렇게 무당이 굿하는 과정에서 노래 불려진 서사무가 <원천강본풀이>의 작품 내용을 서사, 배경, 인물로 나누어 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서사의 특성

박봉준본 <원천강본풀이>를 서사단위로 나누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적막한 들에 한 여자아이가 나타난다. 이 아이를 발견한 세상 사람들이 이 아이에게 이름과 생일을 물으니, 이 아이는 강림들에서 솟아날 때부터 학이 돌보아 주었을 뿐 아무 것도 모른다 한다. 세상 사람들은 이 아이에게 오늘을 나온 날로 하여 이름을 '오늘이'라고 지어 준다.
- ② 오늘이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박이왕의 어머니 백씨부인에게 가니 부모국이 원천강이라는 것을 알려 주며, 원천강에 가려거든 백사가의 별충당에서 책 읽는 장상 도령을 만나 물어보라고 한다.
- ③ 오늘이가 장상 도령을 만나 원천강 가는 길을 묻자, 연화못의 연꽃남기에게 물어보라 한다. 그리고, 원천강에 가거든 자기는 왜 이 성 밖으로 나가지 못한 채 밤낮 글만 읽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물어 전하여 달라 부탁한다.
- ④ 연꽃남기를 만나 원천강 가는 길을 묻자, 자기는 겨울에는 움이 뿌리에 들고 정월이 나면 몸 중에 들었다 이월이 되면 가지에 가고, 삼월이 나면 꽃이 되

38) 김명옥, 앞의 논문, 46면.

- 는데 상가지에만 피고 다른 가지에는 안 피니 이 팔자를 물어다 달라 한다. 그러면서 청수아당가의 천하대사(天下大蛇)를 찾아가 길을 물어보라 한다.
- ⑤ 청수아당가에 이르러 천하대사(天下大蛇)에게 원천강 가는 길을 물으니, 다른 뱀들은 야광주(夜光珠)를 하나만 물어도 용(龍)이 되어 승천하는데 자기는 셋이나 물어도 용이 못되고 있으니 어쩌면 좋겠는 지를 물어다 달라 부탁한다. 그러면서 대사는 오늘이를 등에 태워 청수아당을 넘겨준 후에 매일이라는 사람을 만나 길안내를 부탁하라 한다.
- ⑥ 매일이를 만나 부모국 원천강의 길인도를 청하니, 자기가 항상 글만 읽고 있는 팔자를 물어다 달라 한다. 그러면서 가다보면 울고 있는 궁녀를 만날 터인데 그들에게 물으면 소원을 성취할 것이라 한다.
- ⑦ 울고 있는 궁녀를 만나 그 이유를 물어보니 그녀들은 옥황시녀였는데 죄를 지어 물을 푸고 있다 한다. 그런데, 그 물을 다 퍼내기 전에는 옥황으로 돌아갈 수 없는데 바가지에 큰 구멍이 뚫어져 있어 아무리 물을 퍼내어도 안 된다 하며 오늘이에게 도와줄 것을 요청한다. 오늘이가 정당풀을 베어 바가지의 구멍을 막고 송진을 녹여서 그 막은 곳을 칠하여 옥황상제에게 축도를 한 후 물을 푸니, 순간에 그 물이 마른다. 궁녀들은 감사의 뜻으로 오늘이가 청하는 원천강까지 동행하여 준다.
- ⑧ 원천강 문을 지키는 문지기에게 문을 열어 달라 부탁하나 냉정하게 거절 당한다. 오늘이는 부모를 찾아 고생하여 온 서러운 마음을 쏟아내며 팔자부탁어이 할 것인지 하소연하며 통곡한다. 그 통곡 소리에 문지기가 동정의 마음이 일어나 부모궁에 올라가서 이러한 사실을 말하니 오늘이를 들어오게 한다.
- ⑨ 오늘이가 지금까지의 지난 일을 모조리 말하니 부모가 기특하다 칭찬하며 자기자식이 분명하다고 한다. 오늘이를 낳은 날 옥황상제가 불러서 원천강을 지키라 분부하니 그 명을 거역할 수 없어 여기 있게 되었으나 항상 너를 지켜 보며 보호하고 있었다 한다.
- ⑩ 부모님은 오늘이에게 원천강을 구경시켜 준다. 만리장성 둘러 쌓인 곳에 곳

곳마다 문을 열어 보니, 춘하추동 사시절이 모두 모여 있는 것이었다.

- ⑪ 오늘이가 되돌아가고자 하며, 길인도 때 받은 모든 부탁을 말한다. 그러자 부모님은 장상이와 매일이는 부부가 되면 만년영화를 누릴 것이고, 연꽃남기는 옷가지의 꽃을 따서 초면하는 사람에게 주어 버리면 다른 가지에도 만발할 것이며, 대사는 야광주를 하나면 물었으면 할 터인데 너무 욕심을 많이 가져서 세 개를 물어 버려서 용이 못 된 것이나 처음 만난 사람에게 두 개를 주어 버리면 곧 용이 될 것이라 한다. 그리고, 오늘이도 야광주와 연화를 갖으면 신녀가 될 것이라 알려 준다.
- ⑫ 돌아오는 길에 매일이를 만나 들은 대로 말하니 장상이 있는 곳을 모른다 하여 동행한다.
- ⑬ 대사를 만나서도 들은 바를 말하니 야광주 둘을 오늘이에게 준다. 그러자 곧 용이 되어 승천한다.
- ⑭ 연꽃남기에게도 들은 바를 말하니 옷가지를 꺾어서 즉시 오늘이에게 주니 가지가지마다 고은 꽃이 피어서 아름다운 향내를 뿜낸다.
- ⑮ 다음에 장상을 만나니, 매일과 장상이 부부가 되어 이 세상에서 만년영화를 누린다.
- ⑯ 오늘이는 백씨부인을 만나서 야광주 하나를 감사의 뜻으로 표한 뒤 옥황의 신녀가 되었다.
- ⑰ 이러한 오늘이는 인간에 강림하여 절마다 다니며, 원천강을 등사하게 하였다.

가. 자아정체성을 확립해가는 여행담의 서사

<원천강본풀이> 서사는 오늘이의 부모 찾기 여행담이다. 신화 속 인물들이 잃어버린 부모를 찾는 일은 결국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한 함이다. 내 뿌리를 찾는 일은 나를 알고자 함이고, 내 존재의 의미를 찾고자 함

이다. 빈 들판에 버려진 아이는 바로 이 거대한 세계에 던져진 우리 자신의 존재와도 같다. 그 고독한 존재가 부모를 찾기 위해 길을 떠난 것이다. 말하자면 자신의 근원을 찾아가는 여행이다. 오늘이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기 위한 여행을 하는 것이다. 내 뿌리를 찾는 일은 나를 알고자 함이고, 내 존재의 의미를 찾고자 함이다.

오늘이는 생일, 부모, 이름 등 자신의 근본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는 아이이다. 오늘이는 부모가 원천강에 있다는 소식을 듣자 망설임 없이 부모를 찾아 길을 떠난다. 부모가 있는 장소를 알자마자 여정을 모르면서도 망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길을 떠나는 모습에서 자신의 근본에 대해 알고자 하는 무의식적 욕망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시작된 여행길에서 오늘이는 차례로 장상이, 연꽃남기, 대사(大蛇), 매일이, 선녀를 만나게 된다. 그런데 이들 역시 오늘이만큼 고뇌에 빠진 존재들이다. 장상이는 왜 자신이 밤낮 글만 읽으며 외출하지 못하는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상가지에만 꽃이 피는 연꽃남기는 가지마다 꽃 피우지 못함을 고민하며, 대사(大蛇)는 여의주를 세 개나 물고서도 용이 되지 못함을 번민하고, 매일이는 장상이처럼 글 읽는 자신의 팔자에 대해 의문스러워한다. 그리고 옥황에서 득죄한 선녀들은 구멍 난 바가지로 물을 퍼내며 물이 안 퍼지는 것에 대해 근심한다. 오늘이는 이들에게 길 인도를 부탁하는 대가로 원천강에 도착하면 고민을 물어달라는 임무를 부여 받는다. 이들의 도움으로 오늘이는 원천강에 무사히 도착하고 드디어 부모님을 만나게 된다. 이로써 오늘이는 부모의 정체, 자신의 탄생에 관련된 사실들을 모두 알게 된다. 비로소 자신의 정체성을 찾은 것이다. 이것은 오늘이의 '1차적 자아 정체성 찾기'라 할 수 있다. 부모, 탄생, 이름 등은 인간에 있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들이다. 즉 인간은 자의에 상관없이 이미 정해진 상황에 놓여지는 존재인데 이에 대해 인식하는 것이 곧 1차적 자아 인식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이는 부모를 찾아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데에서 여정을 그치지 않는다. 여행 중 부탁받는 물음들에 대해 답을 가지고 다시 온 길을 되짚어 돌

아간다. 그리고, 인간 세상에 강림하여 사람들에게 원천강을 등사하게 하는 옥황의 신녀가 된다. 사람들은 모두들 수동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에서 점차 능동적으로 선택하여 형성할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 나간다. 이것이 '2차적 자아 정체성의 확립'이라 할 수 있다. 오늘이 또한 자신의 근원을 찾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 그들에게 원천강을 등사하게 하는 옥황의 신녀로서의 삶을 선택한다.

이렇게 <원천강본풀이>는 오늘이가 부모를 찾아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잃어버렸던 과거를 찾고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1차적 자아정체성 찾기'의 과정에 이어 자신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해야 할 일까지 알고 그것을 직접 실천해가는 '2차적 자아정체성 확립'의 서사로 진행되는 서사이다.

나. 상호조력을 통한 문제해결의 서사

상보성이란 자아의 존립이 타자의 존재 하에 성립된다는 사유 위에, 서로 다른 세계를 인정하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보완하며 상생하는 것을 말한다.³⁹⁾ 오늘이의 여정은 처음부터 상보성을 전제하고 있다. 원천강을 찾아가는 오늘이에게 매일이, 장상이 등은 길을 가르쳐 주는 한편 원천강을 찾으면 자신의 문제를 풀어봐 달라 부탁하면서, 정체성이 결여된 오늘이와 각기 다른 문제를 지닌 존재들은 서로 도우며 지낸다. 이러한 상호 조력은 오늘이의 여정이 진행될수록 더욱 강조된다. 서사 속 인물들이 상보적 관계를 이루면서 그 내용이 구체화된다.

오늘이가 여행 중 만난 인물들은 모두가 한 가지씩 결핍을 지니고 있다. 장상이와 매일이는 하염없이 글만 읽고, 연꽃남기는 상가지에만 꽃을 피우고, 대사(大蛇)는 여의주를 세 개나 물고 있지만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선녀들은 구멍 난 바가지로 계속해 물을 푸기만 한다. 이들은 모두 홀로 '나는 왜 이렇게

39) 고은임, 앞의 논문, 210면.

살아가야만 하는가'라는 존재론적 고민에 휩싸인 채 서로와 관계 맺지 못 한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자신의 것을 나누거나 다른 이와 관계를 맺어 조력적 관계가 될 때 결핍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매일 반복되는 책 읽는 삶을 고민했던 매일이와 장상이는 둘이 혼인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된다. 타인과 관계를 맺고 연대하는 삶이 결여되었던 두 사람은 부부라는 연을 통해 비로소 완전한 자아가 형성될 수 있었다. 즉 인간의 존재론적 고민은 결코 홀로 책을 읽는 것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 맺음으로 음·양이 조화를 이룰 때 해결될 수 있다는 아주 근원적 남·여 결합의 근원을 밝혀준다.

연꽃남기는 상가지에만 피는 꽃에 대한 집착이 바로 결핍의 원인으로 그 집착에서 벗어나 그것을 타인인 오늘이에게 줄 때 모든 가지마다 꽃을 피울 수 있었다. 대사(大蛇) 또한 여의주에 대한 욕심이 결핍의 원인으로 두 개를 타인인 오늘이에게 줄 때 비로소 승천할 수 있었다. 혼자만의 집착과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마음가짐이 이들에게는 결핍으로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혼자 고집할 때에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해 준다. 즉, 혼자만의 집착과 욕심을 버릴 때 비로소 새로운 것,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깨우쳐 준다. 또한, 연꽃남기가 상가지의 꽃을 주고 대사(大蛇)가 두 개의 야광주(夜光珠)를 오늘이에게 줌으로써 오늘이는 백씨부인에게 은혜를 갚고 옥황의 신녀가 될 수 있었다. 즉 이들의 나눔이 오늘이를 옥황의 신녀로 만들었고, 또한 옥황의 신녀가 된 오늘이가 이들처럼 결핍을 지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원천강을 등사하게 하는 여신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연꽃남기와 대사(大蛇)는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아를 찾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더 큰 가치, 더 큰 미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힘이 되었다.

그리고 오늘이가 원천강에 가는 마지막 여정에 만난 천상의 존재 옥황신녀들도 결핍을 지닌 존재들이다. 옥황신녀들은 우연이 죄를 지어 지상으로 내려와 지상의 우물의 물을 다 퍼내야지만 천상의 옥황으로 올라 갈 수 있는 별을 받았는데 구멍 난 바가지 때문에 아무리 물을 퍼도 퍼지지 않는다. 천상의 존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상의 오늘이가 바가지의 구멍을 막고 물을 길자

순식간에 일을 마칠 수 있었다. 이것은 천상의 존재들도 지상의 도움이 있어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것으로 인해 지상의 오늘이도 '원천강'이라는 천상의 공간으로 수직이동 할 수 있었다. 즉, 천상의 존재도 지상의 도움이 있어야 하며, 지상의 존재가 천상에 이르기 위해서는 천상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지상과 천상이라는 두 세계의 존속을 위해서는 각 세계가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호 조력적 관계여야 하며 이러한 두 세계의 긴밀한 유대로 온 우주가 지탱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즉 이 서사무가는 나의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어 다른 이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줄 수 있는 상호 조력적 삶을 살 수 있을 때 우리 모두의 삶이 완전해 질 수 있다는 철학적 사유를 내포하고 있다. 즉, 이 이야기는 결핍된 존재들이 서로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서로 길잡이가 되어주는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이런 유형의 이야기를 민담학에서는 '연쇄담'이라고 한다. 사슬처럼 이야기에 이야기가 꼬리를 물고 전개되기 때문이다. 잘 따져보면 매일리와 장상이는 인간, 연꽃나무는 식물, 大蛇는 동물, 선녀들은 신령들을 대표한다. 오늘이-장상이-연꽃나무-大蛇-선녀들로 이어지는 이야기의 연쇄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온 우주를 상징한다 볼 수 있다.⁴⁰⁾ 이러한 우주 만물이 조화를 이루며 서로가 상생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이 관계를 맺으며 서로의 결핍을 보듬어 줄 수 있을 때 가능하다는 '상보성'을 전제로 한다.

<원천강본풀이>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존재론적 고민에서 시작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고민까지 떠안은 채 그것에 대한 신화적 해명을 명쾌하게 보여준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은 상호관련성 안에서 존재하며, 또한 본질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존재이므로 '서로를 인정하고 도우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이의 여정은 바로 이러한 도움과 나눔의 서사이며, 이러한 지점이 <원천강본풀이>를 오늘이의 개인적 성장 서사로 남겨두지 않고 보편적인 신화의 세계로 이끌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40) 조현설, 「3. 오늘이, 그 이름의 비밀」, 『내 책상 속의 신화』, 웹진문지.
(<http://webzine.moonji.com/?p=1463>)

2. 배경의 특성

이 이야기는 오늘이가 자신의 부모가 있다는 ‘원천강’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로 오늘이는 원천강에 머무는 경험을 통해 옥황의 신녀가 된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의 배경 ‘원천강’은 서사의 동기를 마련해 주며 오늘이가 천상의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가. 사계절이 머무는 공간으로서의 원천강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신화는 오늘이가 부모국인 원천강을 찾아 여행을 떠나는 서사이다. 결국 오늘이는 원천강에서 부모를 만나고 이곳을 구경하는데, 채록본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너를나흔날에옥황상제가우리를불러서
원턴강을직히라고하니
어느영이라거역할수업서,여기잇게되엿스나
항상너의하는일을다보고잇섯스며
너를보호하고잇섯다
이리하야구경이나하라고허니
만리장성둘러싸흔곳에
곳곳마다문을열어보앗다
보니춘하추동사시절이모다잇는것이엇다 (채록본, 298면)

오늘이의 부모는 원천강을 지키는 신들이다. 그런데 원천강 안에는 만리장성 같은 것으로 둘러 싸여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는 바로 춘하추동 사시절이 모두 있었다는 것이다. 원천강을 해석할 수 있는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 춘하추동 사시절이란 바로 사계절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모든 시간 자체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원천강이란 곧 시간과 관련 있는 특별한 신성공간으로서의 이계(異界)라 할 수 있다. 온 우주 만물은 시간의 지배 질서 하에 있다. 생겨나는 것도 소멸하는 것도 다 예정된 시간에 의해 가능하다. 생명체들은 모두 봄에 태어나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 결실을 맺고 겨울에 소멸하는 예정된 삶을 산다. 인간 또한 예정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명을 갖고 태어나 성장, 죽음을 맞는 삶을 되풀이한다. 이러한 시간은 우주가 생성되는 그 순간부터 함께 존재해 온 것이며, 순리에 따라 운행되는 대자연의 법칙 중 하나이다. 때문에 어떤 존재라 하더라도 이것을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거역할 수 없고, 이 시간의 법칙에 따라야만 한다. 그러기에 시간은 곧 천리(天理)이며 천강(天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간이 모여 있는 이 공간을 원천강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라 생각된다. 원천강의 의미를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이것은 한자로는 原天綱, 또는 源泉綱이라고 쓸 수 있을 것이다.⁴¹⁾

오늘이의 부모는 이러한 원천강을 순리대로 진행되도록 관리하고 관장하는 신관이다. 또한, 오늘이의 부모가 옥황상제의 명을 거역할 수 없어 여기에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에서 이곳은 하늘을 지키는 신의 지배 질서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원천강본풀이>를 생성한 신화형성집단이 사시사철 사계절, 즉 시간의 순환은 신의 질서 하에 움직인다는 생각을 반영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시간이 모여 있는 공간과 여기에서 그것을 지키면서 시간이 올바르게 운행되게 하는 신들이 살고 있는 곳이 이 세상, 또는 이 우주 안 어디엔가 따로 있다고 생각했던 신화형성집단은 이곳을 시간의 본원이 되는 곳이란 차원에서 원천강이라 이름했다.

즉, 원천강이란 시간의 본원이 되는 신화적 신비공간이며 신성공간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신화형성집단이 시간이란 것의 존재성을 해명해 보고자 창조된 공간이며 이계(異界)라 할 수 있는 것이다.

41) 이수자, 앞의 논문, 800-801면.

나. 행복을 열어주는 점서(占書)로서의 원천강

앞서 고찰한 것처럼 원천강은 사시사철 사계절이 모두 모여 있는 신화적 공간이다. 그런데, <원천강본풀이>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용된 원천강은 그 의미가 다르다.

오늘이는백씨부인을맞나서
야광주하나를선사하야,감사의뜻을표한후
옥황의신녀로화하얏다
이리한오늘이는인간에강림하야
절마다덴기며,원턴강을등사하게하얏다 (채록본, 299면)

옥황의 신녀가 된 오늘이가 인간세계에 강림하여, 절마다 다니면서 원천강을 등사하게 하였다고 한다. 여기에 나오는 원천강은 공간으로서의 의미보다 다른 의미로 해석된다.

오늘이는 부모가 지키고 있는 춘하추동 사계절이 모여 있는 원천강을 다녀온 뒤 다시 길을 떠나 길 인도를 해 준 이들에게 부탁받은 물음들에 대한 답을 들려준다. 그리하여 장상이와 매일이, 연꽃남기, 대사(大蛇)는 오늘이를 통해 삶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행복해진다. 즉, 오늘이는 원천강 경험을 통해 모든 존재들이 행복해지는 방법, 비결을 알려 주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보면 원천강은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방법이나 술법을 뜻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절마다 다니며 원천강을 등사하게 하였다’는 것은 곧 절에는 이런 방법이나 술법을 적은 것이 있었다는 말일 것이다.⁴²⁾ 그녀가 아무리 전지전능한 신이 된다고는 하나, 온 지역을 다니며, 代 를 넘어가면서, 일일이 모든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로 인해 그녀는 자신이 다녀온 원천강을 글 혹은 그림으로 묘사하여 ‘책’을 쓰게 되었고, 그것을 베

42) 이수자, 앞의 논문, 802면.

껴서 옮겨 적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마치 원천강을 직접 다녀온 것처럼 ‘새로운 삶’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⁴³⁾

그런데, 이러한 ‘원천강’이라는 명칭은 중국의 명리학자 袁天綱 혹은 원천강이 지은 『袁天綱五星三命指南』이라는 命理書에서 유래된 듯하다. 원천강의 본명은 守成이며, 생물연대는 정확하지 않으나 隋나라 초기에 태어나 唐나라 초기에 사망했다고 하는데, 그는 사주명리로 이름이 높았고 『袁天綱五星三命指南』라는 명리서를 남겼다고 한다. 이를 줄여 『袁天綱』이라 부른다. 원천강이 살았던 시기는 우리나라의 삼국시대에 해당하지만, ‘袁天綱’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조선 초 태종실록에서야 보이는 바, 정확히 언제 우리나라에 그의 존재가 알려지고 『袁天綱』이 유입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조선초에서 말기까지 『袁天綱』이 명과학에서 과거시험과목으로 채택되었고, 여러 문인들의 책에서 그 이름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에 명리서로서 그 위상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즉 『袁天綱』은 사주팔자에 대한 명리서인데, 조선시대 그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제주도 무가에까지 그 이름이 오르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⁴⁴⁾ 앞서 강권용 또한 원천강이 나오는 제주도 본풀이 자료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제주도 무속에서는 ‘원천강’이 인간의 사주팔자와 관계되어 있으며 점과 관계된 인물이거나 점서임을 밝힌 바 있다.⁴⁵⁾

즉, <원천강본풀이>에서 ‘원천강’은 사계절의 근원을 이루는 공간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동시에 예언의 권능을 지니는 무속 경전 즉 점서(占書)의 이름이다.

그렇다면 공간으로서 원천강과 점서(占書)로서의 원천강, 이 두 가지의 의미는 작품 내에서 서로 어떻게 통하는 것일까? 신동훈은 그 열쇠는 바로 ‘시간’이라 말한다. 시간이 모르는 일이 있을 리 없다. 아득한 옛일도 먼 훗날의 일도 시간

43) 김혜정, 앞의 논문, 259면.

44) 고은임, 앞의 논문, 209면.

45) 강권용, 앞의 논문, 40면.

의 품 안에 있다. 그러니 자연히 예언의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⁴⁶⁾ 오늘이는 사계절의 근원, 시간의 근원인 원천강에 도착하여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알고 시간의 비밀을 알게 된다. 과거·현재·미래를 포함한 시간의 비밀을 알게 된 오늘이는 비로소 모든 존재들의 미래까지를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된다. 즉, 사계절이 모두 뚜렷이 존재하는 원천강은 ‘일정한 주기가 반복됨으로서 recycle(재생,재순환)하는 세계’를 일컫는데, ‘점’이라는 것도 결국 ‘규칙적인 반복은 예측을 가능케 한다’⁴⁷⁾라는 대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오늘이는 원천강을 다녀옴으로서 다른 이들의 운명을 점쳐 줄 수 있게 되고, 이들의 ‘반복된 일상’에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 넣어 주게 된다.

장상이와매일이는부부가되면
 만년영화를누릴것이요
 련화동은웃가지의꽃을싸서
 초면하는사람의게주어버리면
 다른가지에도만발할것이며
 대사는야광주를일개만물엿스면할태인데
 념우욕심을만히가져서,삼개를물어바리니
 룡이못된것이다그러니초면자에게
 두개를바터서주어버리면,곶룡이되리라하고
 너도그야광주들과련화를갖으면신녀가되리라 (채록본, 298면)

이러한 원천강은 오늘이에게 신녀로서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공간으로서 자리한다. 오늘이는 원천강을 다녀옴으로 해서 여러 존재들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

46) 신동훈, 『살아있는 우리신화』, 한겨레출판, 2007, 123면.

47) 점이 70퍼센트 맞는다는 주장의 근거 가운데 하나는 반복의 원리이다. 밤과 낮을 보자. 끊임없이 규칙적으로 반복한다. 유사 이래로 밤에서 낮으로 낮에서 밤으로 반복되는 현상이 한번이라도 어긋난 적이 있었는가. 밤에서 낮으로 전환되지 않은 경우는 없다. 그러므로 예측할 수 있다. (중략) 음양오행이 여기에서 나왔다. 밤과 낮, 그리고 사계절의 순환이다. 늦여름에서 초가을 사이, 그러니까 사계절의 중간 지점에다 토를 배치하였다. 봄은 목이고, 여름은 화이고, 중간은 토, 가을은 금, 겨울은 수를 상징한다. 음양오행은 자연의 규칙적인 반복현상을 관찰한 결과이고, 이를 이론화함으로써 앞으로 나가올 일을 예측하는 쪽으로 이용되었다. (조용현, 『조용현의 사주명리학 이야기』, 생각의 나무, 2002, 180~181면.)

는 신녀로서의 자격을 획득할 수 있었다. 부모를 찾아 자신의 이름과 출생의 비밀은 풀었지만 아직 자신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했던 오늘이는 원천강에 이르는 과정과 시간의 원천인 원천강을 경험함으로써 인간 세상에 강림하여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신이 된 것이다. 그녀는 힘든 여정을 통해 부모를 찾았지만 부모 곁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자신에게 부탁을 한 존재들을 찾아 해답을 주고, 더 나아가 인간세상까지 강림한다. 서사에는 직접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지만 옥황의 신녀가 되어 인간세상에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 줄 수 있는 삶을 그녀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천강은 인생의 전환점을 마련해주는 장소이며, 그곳을 다녀오기 전과 다녀온 후의 오늘이는 연속되면서도 서로 다른 변화된 정체성을 지닌 존재가 된다.

3. 인물의 특성

이 작품은 ‘오늘이’가 주인공으로 오늘이가 원천강을 찾아 떠나는 여행길에서 길 안내를 해 주는 각 인물들과 만나게 되는 구성이다. 이 인물들 모두는 신화를 이루는 신화소(神話素)로 모두 신화 속에서 상징하는 바가 다르다.

가. 행복을 전해주는 여신 ‘오늘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천강 체험 전의 오늘이는 다만 자신의 존재를 궁금해하는 지상의 존재에 머물렀다면 원천강 체험 후의 오늘이는 신녀로서의 자격을 획득하여 인간들에게 행복을 전해 줄 수 있는 신녀로 바뀌었다. 오늘이가 이렇게 신녀로서의 자격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은 원천강을 다녀옴으로써 해서 대사(大蛇) 및 연꽃남기, 그리고 사람이나 하늘의 선녀들을 행복하게 해 주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실제로도 그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었기 때문이다. 오늘이가 원천강을 가기 전 만났던 장상, 연꽃남기, 대사

(大蛇), 매일, 선녀는 그들 삶에 문제가 있었고 불만이 있었다. 그런데 오늘이가 원천강에서 그들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듣고 알려 주어 우울했던 그들의 삶을 만족하게 활기있게, 그리고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다. 이것은 곧 오늘이가 동물인 대사(大蛇)와 식물인 연꽃남기, 인간인 매일과 장상, 그리고 하늘의 신녀까지 온 우주적 존재를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시사한다. 오늘이가 결국 원천강을 등사하게 하는 신으로 좌정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공업(功業)이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즉 오늘이는 하늘존재 및 인간을 포함하여 동물, 식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살아 있는 것들이 보다 만족하게 활기있게, 그리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을 전해 주는 여신’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오늘이가 마지막으로 획득하는 것은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을 행복하게 해 주는 신녀로서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원천강본풀이>는 현재 전승이 끊어졌지만 본래 제주 심방(무당)들의 신궁에서 불리던 무가라고 한다. 신궁이란 심방들이 자신이 모시는 신을 위해 하는 곳이다. 그런 곳에서 <원천강본풀이>가 불렸다는 말은 오늘이라는 신이 심방들의 정체성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뜻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긴 여행을 떠나 여행의 끝에서 우주의 비밀을 얻어 그것으로 결핍된 존재들의 소원을 이루게 하는 오늘이의 행로는 심방들의 삶의 행로와 닮은 꼴이다. 각각의 문제를 지닌 존재들에게 의뢰를 받아 원천강에 가서 답을 얻어 그 전모를 알려주는 오늘이의 모습이 심방의 모습을 형상화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심방들은 그 여신에게 ‘오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문면에 드러난 이름의 뜻은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과 만난 그날 바로 ‘오늘 만났으니’ 오늘이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닐 것이다.⁴⁸⁾ <원천강본풀이>는 ‘시간성’을 중시해서 만들어진 신화이다. 이렇게 보면 신화에 나오는 여러 요소도 시간성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주인공 이름이 ‘오늘이’라는 것은 신화형성 집단이 ‘오늘’이라고

48) 조현설, 「3. 오늘이, 그 이름의 비밀」, 『내 책상 속의 신화』, 웹진문지.
(<http://webzine.moonji.com/?p=1463>)

하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한 흔적으로 볼 수 있다. 무속에서는 여러 날 중 현재를 뜻하는 ‘오늘’이 특히 중시되고 있다. 무속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와 현실을 중시하고, 현실의 복락을 기원하는 현실구복(現實求福)적인 성격이 강한 종교라 할 수 있는데, 여러 날 중 특히 오늘을 중시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과 닿아 있다.⁴⁹⁾ 즉 오늘이는 오늘을 행복하게 만드는 여신이다. <원천강본풀이>의 존재들은 모두 어떻게 하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서 지금 잘 살 수 있을가에 대해 물어본다. 과거가 아닌 현재, 오늘의 일을 묻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답 역시 실질적인 해결책이며 이 해답으로 이들은 각자의 고민을 해결하고 모두 현재인 오늘,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성취한다. 이렇게 오늘이는 모든 존재들에게 ‘지금 이 순간, 오늘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신’이다.

나. ‘오늘이’와 접속하는 인물들

신동혼은 시간적·공간적 고독자인 오늘이가 그녀의 여행을 통해 ‘영원’이라는 우주적 존재로 확장되면서 신성을 얻어가는 것에 <원천강본풀이>의 묘미가 있다고 평한다.⁵⁰⁾ 새 한 마리를 벗 삼아 홀로 자라난 오늘이의 모습은 드넓은 세상에 던져져 세상을 한 몸으로 감당해야 하는 고독한 인간의 숙명을 보여주고 있으며, 홀로 하염없이 글을 읽고 있는 장상이와 매일이도, 꽃 한 송이를 매달고 슬퍼하는 연꽃남기도, 하늘을 바라보며 속절없이 백사장을 뒹굴고 있는 대사(大蛇)도 그 숙명에서 자유롭지 못한 존재라고 한다. 그러나 오늘이는 ‘나’라는 존재가 혼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여행을 통해 혼자이면서 온 세상을 품는 존재가 되고, 장상과 매일이, 연꽃남기, 대사(大蛇), 선녀, 이 모두는 오늘이가 품은 우주의 작은 상징들이 되며, 우주를 품은 오늘이의 또 다른 이름은 ‘영원’이 된다고 한다. 이처럼 오늘이의 여행을 통해 이어지는 과거와 미래는 ‘영원’으로

49) 이수자, 앞의 논문, 804면.

50) 신동혼, 앞의 책, 123면.

이어지고 관계와 관계의 이어짐은 한 개인을 우주로 확장시킨다.

<원천강본풀이>는 이렇듯 각각의 존재들은 단일한 존재들이 아니라 신화 전체의 의미를 생성해 내는 유의미한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오늘이가 접속하는 인물 모두는 작품 내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1) 세상 사람들

적막한 들에서 홀로 살아가던 오늘이가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이다. 만약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이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은 채 이름도 없이 마냥 살아갈 것이었다. 사람들이 오늘이에게 이름과 나이를 물어봄으로써 오늘이는 비로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한다.

옥갓튼계집애가적막한드를에웨로히낫타나니
그를발견한차세상사람들이
어는어찌한아해나못더라
(중략)
이리저리사람사람들이,너는나혼날을몰으니
오날을나혼날로하야일음을오날이라고하라 (채록본, 292면)

즉, 홀로 세상에 던져진 존재로 살아가던 아이에게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은 그녀를 세상 속으로 끌어내어 여행을 시작하게 원인으로 작용한다. 즉 아이와 세상과의 관계맺음을 잇는 역할을 한다.

2) 학

강님들에서 솟아난 오늘이를 한 쪽 날개를 덮어주고 한 쪽 날개를 깔아주며,

야광주를 물려 보살핀 학은 이 작품 뿐 아니라 신화 일반에서 주인공의 신성성을 드러내는 서사장치라 볼 수 있다. 신화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기이한 출생 뒤 버려지게 되나, 동물들이 나타나 보호해 주는 화소가 등장한다. 서사무가의 대표적 인물 바리데기는 버려지자 까막까치가 보호해 주고, 건국신화 고주몽 또한 버려진 뒤 여러 동물들에 의해 보호 받으며 자라게 된다.⁵¹⁾ 이렇게 동물에 의해 주인공이 보호 받으며 자라는 화소는 주인공이 일반인과 다른 신성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신화 일반의 보편적 화소다. 이렇게 버려진 오늘이를 보호해 주는 채록본의 학 또한 오늘이의 신성함을 드러내 주는 신화소(神話素)라 할 수 있다.

그리하니엇씨하야우금까지살어왔느냐
 냐가강님드름에소사날때부터
 엇편학조가날너와서
 한날애를맡어주고한날애를덮허주며
 야광주를물너주며,그리저리살너주니
 오날까지무사히살어왔습니다 (채록본, 292면)

그런데 이렇게 버려진 주인공을 보호하는 동물 화소는 다른 신화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 보내졌는지 밝혀지지 않는다. 하지만, <원천강본풀이>에서의 학은 부모님에 의해 보내어진 존재로 추측할 수 있다.

너를나흔날애옥황상제가우리를불러서
 원턴강을직히라고하니
 어느영이라거역할수업서,여기잇게되엿스나
 항상너의하는일을다보고잇섯스며
 너를보호하고잇섯다 (채록본, 298면)

51) “까막까치 날아들어, 한날개는 맡아주고, 한날개는 덮어주고,” <바리데기 무가> (서대석, 『본토의 무속신화』, 『한국의 신화』, 집문당, 1997, 243면)
 “왕이 개, 돼지에게 던져주니 모두 먹지 않았고, 길에다 버렸더니 마소가 피하였으며, 들판에 버리니 새, 짐승이 덮어주었고” <고주몽 신화> (일연, 최호 역, 『제1권 기이 제1』, 『삼국유사』, 홍신문화사, 1996, 26-27면)

오늘이 부모님이 천상에서 그녀가 하는 일을 다 보고 있으며 보호하고 있었다는 표현에서 학은 부모님이 오늘이를 보호하기 위해 천상에서 보낸 존재라 여겨진다. 천상에서 보내어진 학에게 보호받으며 오늘이가 컸다는 설정은 오늘이의 신성성을 더욱 드러내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학은 자식을 걱정하는 오늘이 부모님의 자식사랑을 부각시켜 주는 존재이다. 그리고, 한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지만 옥황상제의 명을 지킬 수밖에 없어 학을 대신 보낸다는 부분에서 천상의 존재들도 위계질서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을 또한 보여 준다.

3) 백씨부인

오늘이는 사람들에게 의해 세상과의 관계 맺음이 시작되었지만, 세상 속 오늘이의 모습은 여전히 고독하다. ‘오늘’이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정처 없이 돌아다닐 뿐이다. 그런데, 오늘이는 ‘오늘이’의 존재를 알아 봐 주는 백씨 부인을 우연히 만나게 된다. 이 백씨 부인과의 만남은 ‘오늘이’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된다. 백씨 부인으로부터 오늘이는 부모의 존재를 듣게 되고 드디어 부모를 찾아 떠나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된다.

이리저리텐기다가
박이왕의어머니백씨부인안테가니
너는오늘이가안이나,네오늘이올시다
너의부모국을아느냐
물읍니다,너의부모국은원턴강이라
원턴강은엇씨하야감니가 (채록본, 292면)

오늘이는 백씨부인으로 인하여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자신의 부모도 찾고 옥황의 신녀도 될 수 있었다. 오늘이에게 있어 백씨부인과의 만남은 그녀의 삶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다.

이렇게 백씨 부인으로 인해 여행을 시작한 오늘이는 모든 여행을 마친 후 다시 백씨부인을 만나서 야광주라는 큰 선물을 주게 된다.

오늘이는 백씨부인을 만나서
야광주 하나를 선사하야, 감사의 뜻을 표현후
옥황의 신녀로 화하였다 (채록본, 299면)

이것은 오늘이가 자신을 알아 봐 준 백씨부인으로 인해 부모를 찾게 되고 자신의 자아를 찾게 되었음을 자각하였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여행의 끝에 백씨 부인을 찾아와 야광주를 선물하는 모습에서 오늘이의 친절함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백씨부인은 오늘이 여행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의 역할을 한다.

4) 장상과 매일이

장상도령은 백씨 부인의 말에 의해 시작된 오늘이의 여행에서 처음으로 만난 존재이다. 별충당에 앉아 매일 글을 읽으며 사는 장상은 밤낮 글만 읽는 삶에 대해 고민한다.

한테 원턴강에 가거든
왜, 내가 밤낮 글만 읽어야 하고
이성 맞그로 외출치 못하는지
그리유를 물어다가 전하야 줘시오 (채록본, 293면)

청수 바다를 건너 만난 매일이 아가씨도 장상과 같은 고민에 빠진 존재이다.

매일이는 거변의 청의동자모양으로
별충당우에 안저, 글을 넓고 읽더라
인사를 맞치고, 부모국원턴강의

길인도를청하니,캐로히승락하고
원턴강에가서,자괴의항상
글만넓고있는팔자를무려다달나하고
오날이에게부탁하다 (채록본, 295면)

두 인물 모두 '별충당'이란 공간에서 오직 홀로 이들의 이름처럼 매일매일 글만 읽는 존재들이다. 매일 글을 읽지만 이 똑같은 삶의 반복을 그들은 왜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런데, 이들의 고민은 서로가 관계맺음으로 간단히 해결된다. 이것은 이 세상의 문제는 책 속의 지식만으로는 해결되지 못하는 것임을, 책 속의 지식보다 사람들과의 관계맺음이 더 중요함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장상과 매일이처럼 절대적 고독은 '혼자'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혼자라는 외로움의 무게에서 벗어나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을 때 비로소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이 신화 속 인물들은 던져주고 있다. 그리고, 똑같은 고민을 하는 인물을 남자와 여자로 설정하여 결합시킴으로써 이 세상의 근간은 남녀의 결합이라는 것도 아울러 시사해 주고 있다.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 질 때 이 세상은 비로소 활기를 찾아 또 다른 생명들이 싹틀 수 있으며 이로써 온전한 우주를 형성할 수 있다는 철학적 사유가 이 인물들에 내포되어 있다.

5) 연꽃남기와 천하대사(天下大蛇)

연꽃남기는 상가지에만 꽃이 피고 나머지 가지에는 꽃이 피지 못하는 것을 고민한다.

그러면나의팔자나알어다주세요
무슨팔자이뇨
나는겨울에는움이뿌리에들고
정월이나면몸중에들었다
이월이되면가지에가고,삼월이나면꽃이되는데

상가지에만피고,달은가지에는아니피니
이팔자를물어줍소 (채록본, 294면)

청수바다의 대사(大蛇)도 비슷한 고민을 한다. 다른 뱀들은 야광주(夜光珠)를 하나만 물어도 용이 되어 승천하는데 야광주(夜光珠)를 세 개나 물었는데도 용이 되지 못하는 것을 고민한다.

그것은달음아니라,달은배암들은
야광주(夜光珠)를하나만물어도
룡(龍)이되여승턴을하는데,나는야광주를
셋이나물언룡이못되고잇스니
엇편면쫓켓는가무려다주시오 (채록본, 294면)

이들의 고민의 원인은 모두 현재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 집착하여 그것을 놓을 줄 모르는 욕심에 있다. 오늘이가 알려준 해결책대로 집착과 욕심에서 벗어나 연꽃남기는 상가지의 꽃을 대사(大蛇)는 야광주(夜光珠) 두 개를 오늘이에게 주니 모든 가지마다 꽃이 피었고, 대사(大蛇)는 용이 되어 하늘로 승천할 수 있었다. 이 둘은 모두 현재에 주어진 작은 가치에만 집착하여 더 큰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삶을 사는 어리석은 존재의 모습을 보여준다. 손에 움켜진 것을 버리고 나아가는 걸음이 더 나은 미래에 닿은 길에 올라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연꽃남기와 대사(大蛇)을 통해 이 신화는 전달하고 있다.

6) 세 궁녀

옥황상제의 궁녀에게 물을 퍼주고 궁녀의 도움을 얻어 이계에 진입하는 내용은 제주도 사서무가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난다.⁵²⁾ 이것은 본풀이에서 여행자가

52) 어느못가에 당도하여보니
선녀삼인이 울고있는지라, 우는리유를무르니

이계에 진입할 때의 공식과 같은 역할을 한다.

아님게아니라시녀궁녀가늦겨울며잇는데
그리유를무르니,그리유는달은게아니라
전일에는그들이하날옥황시녀엿섯는데
우연히득죄하야,그물을푸고잇는바
그물을다-퍼내기전에는
옥황으로올나갈수가업는데
아모리풀야하야도푸는박아지에
큰구멍이뜰버저잇기까닭에
죽음도물을밧그로퍼낼수가업는것이였다 (채록본, 295면)

그런데, 이것은 수평적인 주인공의 여정이 상층의 공간에 도달하기 위한 수직 이동으로 전환되는 지점이며, 지상세계를 벗어나 천상의 세계로 도달하기 위한 통과제의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리하야,갓치조력하야주기를
오날이에게칭하니,오날이는

자기네들은하늘옥황에게죄를지어
인간에나려가서,터진동이로이못을
다 -푸어오고오라는명령에나려오랴스니
엇지터진동이로이물을다-푸겿습니가하니
자책비가터진동이를노코
하늘을향하야죽수하니,터진구떡이막아지고
그물을다-푸어주니 - 박봉춘본 <세경본풀이>

(아카마쓰 지조(赤松智城)· 아키바 다카시(秋葉陸), 『조선 무속의 연구』, 동문선, 1991, 284~285면.)

삼신녀가울고있으니
어떤신녀길네우느냐무르니
우리는옥황신녀온대,죄를주고
벌러진동의에물을일어오라하니
못잉어가고울고있읍니다하니
할락궁이가마의정당췌정당을거더가다
엮어매고,송진으로막아서
물을질어주고 - 박봉춘본 <이공본풀이>

(아카마쓰 지조(赤松智城)· 아키바 다카시(秋葉陸), 『조선 무속의 연구』, 동문선, 1991, 264면)

옥황의신인이못푸는물을,어리석은인간
으로서엇지풀수잇는야고사퇴를허다가
정당풀을비여모게하고,배게를맨들게하야
박아지의구멍을막고거게다가송진을녹여서
그막은곳을칠하야튼튼히잘르고
정성을다하야옥황상제의게축도를한후
물을푸니,순간에그물이말너붓거늘
시녀궁녀사지에서소생헌듯이광히하며
백배사례하고,오날이가칭하는원턴강의
길인도는동행하면서하야주겿다고하야 (채록본, 297면)

이 작품에서도 세 궁녀와의 만남은 이러한 역할을 한다. 원천강에 도달하기까지 다른 단계의 여정에서 오늘이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과정이 없었던 것에 비해 이 단계에서만 오늘이의 개입에 의한 문제의 해결이 이루어진다. 오늘이는 천상의 존재들을 지혜롭게 도와줌으로써 천상으로 올라갈 자격을 부여받는다. 즉 세 궁녀와의 만남을 통해 오늘이는 천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신이함을 가진 존재임을 확인받는다고 볼 수 있다.

7) 문지기

오늘이가 궁녀를 도와 천상에 올라왔지만 원천강에 바로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니다. 오늘이는 원천강을 지키는 문지기에 의해 원천강 출입이 가로막힌다.

별당을향하야그주위에는만리장성을싸엇고
원문에는문직이가파수를보고잇섯다
문을열어달나하니,그것은누구이나
나는인간에상오날이라는처녀이요
무슨연고로이곳에왔는고
이것이나의부모국이라허니찾저왔소

문을 열어 줄 수업노라 (채록본, 297면)

문이란 것은 무속에서 다음 세계로 가는 중간지점이 된다. 오늘이가 문 앞에 이르는 것은 본토의 바리공주가 이제 여행을 통해 무장신선이 지키는 정열문 앞에 이르는 것과 상통한다. 바리공주는 문을 통과하기 위해 물을 삼 년 길고 불을 삼 년 때고 나무를 삼 년 베어주는 정성을 기울인 것에 비해 오늘이는 단지 울며 하소연한다.⁵³⁾ 그런데, 이렇게 하소연하는 내용은 짧은 채록본의 서사에 있어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문직의거절은님우나냉정하얏고
가련헌오날이에게는최후의절망인것갓치하야
하날이문허지는것갓텃다
오날이는용기의최의일발까지를상실하고
안전이암연하야부모국문전에혼도하얏다
지면에복와한오날이는기백만리인간
원방에서쳐녀단지혼자의로히
원갓산과원갓물을건너웬고생격그면서
부모국이라고이런곳을차저왔는데
이러케도박정하게하는구나
이문안에는내부모잇슬연만은
이문압헤내여기왔건만은
매일이는소원성취한다더라만은
원턴강신인들은님우무정타
비인들에홀로이울든이쳐녀
천산만하님을적에웨로운쳐녀
부모국의문압헤웨로운쳐녀
부모는다보왔나,내할일다하얏나
강님갈짜무엇할이,여기서죽자

53) 강권용, 앞의 논문, 33면.

팔자(八字)부탁어씨할이
모든은헤어씨할이
박정헌문직이야,무정헌신인들아
그리웁던어머님아,그리웁던아버님아
오늘이논의식적무의식적으로이리말허며
연하야늦겨우니,돌갓튼문직이의염통에도
눈물의동정이울어났다 (채록본, 297면)

이 하소연의 내용이 이렇게 장황하게 긴 것 또한 신화 장치의 일부이다. 이 부분은 이 서사무가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의 장면으로 볼 수 있다.⁵⁴⁾ 오늘이는 이 문을 통과하면 원천강이라는 이계(異界)에 이를 수 있는 신적인 존재가 된다. 신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지상에서의 모든 삶을 털어내고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이는 문지기에 의해 가로막혀 이 장황한 통곡을 쏟아냄으로써 지상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털어내고 있다.⁵⁵⁾ 이 통곡은 한 어린 아이가 온전한 자아정체성을 찾고, 인간으로서의 존재를 벗어내고 신적인 존재로의 전환을 이루어 내기 위해 행하는 일종의 의식이다. 이렇게 문지기는 오늘이의 원천강 출입을 막음으로써 오늘이가 신적인 존재로 바뀔 수 있도록 통곡을 이끌어 내는 인물이다.

이상과 같이 <원천강본풀이>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서사, 배경, 인물 별로 분석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원천강본풀이>는 결국 모든 존재들은 본질적으로 결핍되어 있으므로 그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것을 검허히 내려놓고 타인과 연대하라는 인간 삶의 보편적 사유를 전달하고 있다.

54) 김권호, 앞의 논문, 77면.

55) 이것은 제주도 곳에서 군문열림제차 전에 행하는 연유담음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연유담음에서는 단골이 굿을 하는 동기, 이유를 자세하게 노래하는데 굿을 하는 이유가 단골 자신이나 가족의 불행이 원인이기 때문에 사제자인 심방은 단골을 대신해 불행했던 과거를 말하면서 울고 빈다. “오늘이”가 문 앞에서 그동안의 살아온 과정을 말하면서 우는 것은 현재 연유담음 제차와 같다.
- 강권용, 앞의 논문, 33면.

그런데, 신화시대의 이러한 사유 방식은 오늘날의 우리에게 더 큰 울림을 일으킨다. ‘나’를 찾아가는 ‘오늘이’는 이 거대한 세계에 던져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대면하게 한다. 인간은 흔히 실존 철학에서 말하는 ‘기투(企投)’된 존재, 즉 세계에 내던져진 존재인 것이다. 황량한 벌판에 솟아난 ‘오늘이’는 독자로 하여금 거대한 세상에 홀로 서 있는 현재 나의 모습을 투사하게 만든다. 그러한 외로운 존재 오늘이가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찾아 가는 과정은 공동체가 와해되어 개인주의적 삶에 젖은 현대의 독자들에게 잔잔한 깨달음을 전해 준다. 결국 황량한 세상에서 진정한 ‘나’를 찾는 길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능함을 느끼게 한다. 흔히 말하는 인간(人間)이란 말도 고독한 자신의 존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사이’ 곧 ‘인간의 관계’를 의미한다.⁵⁶⁾ 그러하기에 이 이야기는 짧은 서사 속에 ‘인간(人間)’의 보편적 사유를 내포하고 있는 신화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은 불완전한 인간 앞에 놓여진 삶의 숙명적 물음들이다. 이 이야기가 불리어진 신화시대부터 21세기의 현재까지 이러한 근원적 물음을 인간이란 존재는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근원적 물음에 대한 답을 <원천강본풀이>라는 짧은 신화는 잔잔히 오늘날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그러하기에 이야깃거리가 넘쳐나는 현대에도 이 신화는 우리에게 진한 삶의 감동과 여운을 남겨주는 작품으로 자리한다. 이것이 바로 더 이상 신과의 소통을 믿지 않은 현재에도 이 작품이 여러 다양한 작품으로 재창작되게 만드는 힘이라 할 수 있다.

56) 권순궁 외, 『살아있는 고전문학 교과서 3』, 휴머니스트 출판그룹, 2011, 28면.

Ⅲ. 이야기책으로의 변용 양상

입으로 불리어지던 서사무가가 인쇄매체인 이야기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 모습이 변한다.

첫째, 문체가 전환된다. 채록본은 무당이 굿 현장에서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등장인물의 목소리와 공연자(서술자)의 목소리가 함께 결합하여 현장에서 노래 불러졌다. 하지만, 이야기책은 서술자가 옛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대부분 간접문체를 사용하고 있다. 간접문체는 인물의 행위가 중재된, 서술자가 서사적 사건을 전달하는 언어를 의미한다. 서술자는 사건을 압축하고 자신의 언어로 통합시켜 자신의 문체로 표현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간접문체를 사용하는 서사적 사건은 독자들에게 현실감을 주지 못한다.⁵⁷⁾

이야기책들은 모두 두루 낫춘 종결어미를 사용하고, 현장에서 청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듯 ‘~했어, ~했지’ 등의 간접문체를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간접문체를 사용한 것은 이 이야기가 옛날 문자가 없었던 시절에 입에서 입으로 전달해 오던 이야기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즉, 간접문체를 사용하여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효과를 내고 있다.

이야기책 12종 중 11종은 모두 간접문체를 사용한다.⁵⁸⁾

<1>⁵⁹⁾ 그렇게 착한 일을 하다가 오늘이는 옥황상제의 부름을 받아 살아서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늘 나라의 선녀가 된 오늘이는 원천강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았지요. (한겨레 엄혜숙본, 195면⁶⁰⁾)

<12>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무기가 용이 되어 하늘 높이 솟구치는 게 아니겠어요 (키움 허난희본, 35면)

57) 김명옥, 앞의 논문, 47면.

58) 교학사본은 장편으로 재창작되면서 유일하게 간접문체가 아닌 직접문체를 사용하고 있다.

59) 번호는 ‘<표 1> <원천강본풀이>를 바탕으로 제작된 이야기책 현황’의 순번과 동일함.

60) 이야기책 인용문들은 모두 <표 1>에 나오는 책들에서만 인용하였기에 이하 면수만 밝히겠음.

둘째, 채록본과 달리 이야기책에서는 그림도 서사를 전달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채록본은 무당의 노래로 줄글로 채록되어 있다. 하지만,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정오 현암사본을 제외하고 서사무가가 동화화되어 전달되는 11종의 이야기책은 모두 그림이 나온다. 특히, 글보다 그림이 더 중심이 되는 이야기책들은 그림이 스토리 전달에 매우 중요하다. 그림책의 시각적 이미지는 아이들이 텍스트를 보고 이해하지 못한 의미를 메워주거나 의미를 확장시켜준다. 이러한 그림책은 “시적 이미지와 방법을 지향”하므로 아이들의 예술적 감수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아이들은 그림책을 통해서 다의적으로 해석 가능한 문학적 언어들을 익히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문체적 장치에 의해 ‘미적 체험’을 한다.⁶¹⁾ 서사무가<원천강본풀이>의 장면들 또한 이야기책의 그림을 통해 각 장면들이 아이들에게 구체적으로 재현되고 있다.

<그림 1> 장상도령과 매일이가 만나는 장면 (웅진주니어 정하섭본, 30면)



<그림 1>은 웅진주니어 정하섭본에서 장상도령과 매일이가 만나는 장면이다. 채록본에서 ‘매일과장상이부부가되여차세상에만년영화를누리고’(299면)라는 표현이 이 이야기책에서도 글로는 ‘장상이와 매일이는 혼인을 해서 행복하게 살았

61) 김명옥, 앞의 논문, 36면.

어'로 간단히 적혀 있다. 하지만, 이 장면은 글과 더불어 따뜻하고 행복한 한 편의 그림으로 함께 표현되어 아이들이 이 장면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렇게 유아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동화화된 이야기책에서는 그림이 서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서사무가 <원천강본풀이>가 다시쓰기 및 고쳐쓰기 이야기책으로 전환되면서 변화한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신화소가 변형된 '다시쓰기' 이야기책

다시쓰기 이야기책은 옛이야기의 본래의 모습은 그대로 둔 채 이야기의 말투나 결가지를 조금 손질 한 것으로 원작의 특성과 가치를 가능한 그대로 글로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원천강본풀이>의 다시쓰기 이야기책들은 서사와 배경, 인물의 큰 맥락은 채록본과 모두 동일하다. 하지만, 작가들마다 채록본의 신화소(神話素)들을 해석하여 표현하는 데 있어 많은 차이를 보인다.

가. 서사

앞서 II장에서 채록본은 오늘이가 부모를 찾아 떠나는 여행담으로 오늘이가 부모를 찾아 자신이 누구인지 찾는 1차적 자아정체성 찾기에 이어, 인간 세상에 강림하여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여신으로서의 자신의 직분을 찾는 2차적 자아 정체성 확립까지 나아가는 서사라 논했다.

하지만, 채록본을 다시쓰기 한 이야기책들은 오늘이가 신이 되는 모습에만 집중하여 옥황상제나 부모님에 의해 신이 되어 천상에 머무르는 존재가 되는 것으로 서사를 마무리해 버린다. 즉, 오늘이가 인간 세상에 강림하여 인간과 함께 하는 신이 되는 채록본의 마무리 서사 부분을 대부분 생략해 버렸다.

다시쓰기 한 9종의 이야기책들의 마지막 서사 부분들을 모두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그렇게 착한 일을 하다가 오늘이는 옥황상제의 부름을 받아 살아서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늘 나라의 선녀가 된 오늘이는 원천강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았지요. 원천강에서 오늘이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을 인간세상으로 보내는 일을 맡아 했습니다. 해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지요. 그것은 선녀가 된 마음 착한 오늘이가 인간 세상에 전해 주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한겨레 엄혜숙본, 195면)

<2> 그리고 나서 한 손에는 꽃을 들고 또 한 손에는 여의주를 들고 하늘로 올라가 선녀가 되었지. 지금도 오늘이는 하늘에서 세상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살며시 내려와서 도와주고 간대 (웅진닷컴 조호상본, 35면)

<3> 나중에 오늘이는 연화못 연꽃 한 송이와 여의주를 가진 덕분에 옥황궁 옥황 상제의 부름을 받고 하늘로 올라가 선녀가 되었는데, 그 뒤로 인간 땅에 내려와 절마다 다니면서 원천강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 내는 일도 맡아 보았단다. (현암사 서정오본, 53면)

<4>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늘나라 옥황궁에 올라가 선녀가 되었단다 (봄봄 서정오본, 34면)

<5> 얼마 후, 오늘이는 옥황상제의 부름을 받아 하늘나라로 올라가 선녀가 되었어. 그리고 원천강으로 가서 부모님과 함께 살며 사계절을 돌보는 일을 맡았지. 보배로운 시간들을 살피는 아주 귀한 쓰임을 받게 된 거야.

한 손에는 야광주를 들고, 또 한 손에는 연꽃을 든 오늘이 선녀!

철철이 사계절의 대문을 여닫으며, 인간 세상의 때와 순서를 깨우치는 오늘이는 매일매일의 소중한 오늘을 더욱 가치 있게 살라 일러 주는 선녀야. (한겨레 유영소본, 60면)

<6> 오늘이는 여의주와 연꽃을 들고 가여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돌봐 주다가, 하늘나라 선녀가 되어 원천강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옥황 상제가 오늘이의 착한 마음씨를 기특하게 여겨서 준 선물이지요.

오늘이는 지금도 해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우리에게 차례로 보내 주고 있습니다.

(대교 신순재본, 66 -67면)

<7> 그 뒤 오늘이는 옥황상제의 부름을 받아 하늘나라 선녀가 되었다. 선녀가 된 오늘이는 사계절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는구나. (한술 김선우본, 30면)

<8> 오늘이는 백씨 부인에게 여의주 하나를 드렸지.

그때, 오색구름이 내려와 오늘이를 태우더니 하늘로 올라갔어. 오늘이는 하늘나라 왕인 옥황상제를 모시는 선녀가 되었다. (웅진주니어 정하섭본, 34면)

<9> 그 후 오늘이는 백씨 부인에게 찾아가 여의주 하나를 나눠 주었대. 그러고는 한 손에는 꽃을, 한 손에는 여의주를 들고 원천강으로 돌아가 선녀가 되었다고 해. 그리하여 때가 되면 어김없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선물하고 간다지 아마 (거인 유다본 128면)

채록본에서의 오늘이는 인간 세상에 강림하여 인간을 위해 ‘원천강을 등사’하게 하는 일을 하며 사는 것으로 서사가 끝난다. 신이 된 뒤에도 인간을 위해 인간과 함께 나머지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인 것이다. 채록본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서사의 내용은 고작 두 줄이지만 이것은 오늘이의 진정한 자아 찾기의 모습을 드러냄과 동시에 신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우리 신화만의 특색을 살리는 마무리이다. 그러나 9종의 다시쓰기 이야기책들의 마지막 서사 부분을 살펴보면 9종 중 현암사 서정오본만이 채록본과 유사하게 서사가 마무리될 뿐 나머지 8종의 이야기책들은 모두 오늘이가 인간세계가 아닌 천상의 세계에 머무르는 존재로 서사를 마무리해 버린다.

나. 배경

채록본에서 원천강을 직접 묘사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만리장성둘러싸흔곳에
곳곳마다문을열어보았다

보니춘하추동사시절이모다잇는것이엇다 (채록본, 298면)

이를 바탕으로 다시쓰기 이야기책들에서 원천강을 묘사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날, 부모님은 오늘이에게 원천강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만 리나 되는 담으로 둘러 싸인 원천강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모두 깃들여 있는 아름다운 신선의 세계였습니다.

첫째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그 곳에는 봄날의 풍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개나리, 진달래, 제비꽃, 붓꽃, 원추리 같은 온갖 봄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지요.

둘째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그곳은 여름이었습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벼, 보리, 밀을 비롯한 온갖 곡식과 채소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지요.

다음의 셋째 문을 열자 가을이었습니다. 배, 사과, 감, 호두, 무화과 같은 온갖 열매들이 탐스럽게 익어 있었고, 누런 벼가 고개를 숙이고 바람에 출렁출렁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 곳은 겨울이었습니다. 찬바람이 뽕뽕 불고, 앙상한 나무들이 흰 눈을 이불처럼 덮고 있었습니다. 온갖 동물은 동굴이나 땅 속에서 자고, 식물들은 조용히 숨을 쉬며 다음 해 봄을 꿈꾸는 그런 곳이었지요. 오늘이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 곳은 인간 세상에 사시사철을 보내주는 곳이란다.” (한겨레 엄혜숙본, 181면)

<2> 오늘이는 부모님과 함께 원천강에서 꿈같은 나날을 보냈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모두 있는 아름다운 곳이었지. 하지만 인간 세상에 온 사람이 하늘나라 원천강에 오래 머무를 수는 없었어. (웅진닷컴 조호상본 23, 26면)

<3> 궁 안으로 들어가 사흘 밤 사흘 낮을 그 동안 쌓인 이야기 나누느라 보내고 나서 어머니, 아버지 손에 이끌려 원천강 곳곳을 구경했어. 원천강에는 봄·여름·가을·겨울이 함께 있어서, 앞을 보면 봄꽃이 만발해 있고 뒤를 보면 흰 눈이 쌓여 있더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신선이라 밥을 안 먹어도 살고 잠을 안 자도 살지.

(현암사 서정오본, 51면)

<4> 오늘이는 부모궁에서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세 이레 스무하루를 보냈어. 원천강은 봄

여름 가을겨울이 함께 있어서, 앞을 보면 여름나무가 무성하고, 왼쪽을 보면 봄꽃이 피어 있고, 오른쪽을 보면 낙엽이 지고, 뒤를 보면 흰 눈이 쌓여 있더라.

(봄봄 서정오본, 11면)

<5> 다음 날, 오늘이는 부모님의 손을 잡고 원천강 곳곳을 구경했어. 높은 담장이 만 리나 둘러쳐진 원천강에는 아주 커다란 네 개의 문이 있었는데, 그곳은 바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든 세상이었어.

첫째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봄바람이 살랑살랑 흰나비가 팔랑팔랑 아기 손 같은 새싹이 푸릇푸릇 돋는 봄이라! 진달래 개나리 영산홍 원추리 봄꽃들이 활짝 피어 오늘이를 반겼지.

둘째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따뜻한 햇살 보리밭에 쏟아지고 땀땀 매미 소리 킁가로 쏟아지는 여름이라! 짙어 가는 초록들이 논밭에서 싱싱하게 저를 뽐내며 오늘이에게 반가이 인사했어.

셋째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너른 들판에 잘 익은 벼가 황금빛 파도 춤을 추는 가을이라! 배, 사과, 감, 호두, 온갖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린 나무들마다 오늘이에게 미소를 지었지.

넷째 문을 열었더니 세상이 온통 하얀 이불 덮고 누운 겨울이라! 땀고 찬 바람이 뽀뽀 날아 다니며 “춥!”하고 입단속을 했어. 식물이나 동물이나 땅속에서 맛있게 달게 자라고, 조용조용!

이 세상 사계절이 차례차례 흘러나오는 원천강, 바로 이곳의 질서와 시간을 돌보는 일은 참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워 보였어. 생명을 살피 완전하게 하고, 순리를 따라 구차하지 않는 시간들을 짜고 펼치는 일!⁶²⁾ 이 소중한 일이 오늘이에게는 가슴 벅차도록 귀하게 여겨졌지. (한겨레 유명소본, 49면)

<6> 오늘이는 열린 문 사이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따뜻한 봄바람이 살랑 불고 파릇한 새싹이 돌아 있었어요.

조금 가다가 또 문 하나를 열고 들어갔더니, 그 안은 뜨거운 햇살 아래 온갖 곡식과 채소가 무성한 여름이겠지요?

조금 가다가 또 한 문으로 들어갔더니, 그 안은 온갖 열매와 벼가 익어 가는 가을이었어요.

62) 밑줄은 연구자가 표시함.

마지막으로 찬바람이 뽀뽀 불고 흰눈이 덮인 겨울의 문을 지나니, 높다란 마루 위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여기는 인간 세상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보내주는 원천강이란단다.”

(대교 신순재본 62면)

<7> 아름다운 원천강에는 문이 네 개 있어요.

첫 번째 문을 여니 온갖 꽃 내음 가득하고

두 번째 문을 여니 푸른 나뭇잎 손짓하네.

세 번째 문을 여니 흰 눈이 소복하네.

원천강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함께 사는구나 (한솔 김선우본, 20면)

<8> 원천강에 대한 구체적으로 글로 묘사된 내용은 없다. 대신 그림으로 2페이지에 걸쳐 사계절이 모두 모여 있는 모습이 제시되고 있다. (웅진주니어 정하섭본, 21-22면)

<9> 문지기는 왕의 명을 받은 뒤에야 문을 열어 주었지. 오늘이든 혹여나 문이 닫힐 새라 서둘러 안으로 달려갔더니 땅에는 파릇파릇 새싹이 나 있고, 따뜻한 봄바람은 이마를 간질이더라.

사뿐사뿐 가다 보니 또 문이 있어 열어 보았더니 땅에는 푸른 채소가 자라고, 뜨거운 여름 바람은 후끈후끈 몸을 데우더라.

사뿐사뿐 가다 보니 문이 하나 더 있어 열어 보니 땅에는 누런 벼가 익어가고, 선선한 가을 바람이 이마를 스치고 가더라.

사뿐사뿐 가다 보니 또 문이 있어 열어 보았더니 땅에는 눈이 소복소복 쌓여 가고, 차디찬 겨울바람이 살갓을 베고 가더라. (거인 유다본, 124면)

채록본에서 원천강을 사계절이 모두 모여 있는 공간으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기에 다시쓰기 이야기책 모두 원천강을 사계절이 모여 있는 공간으로 표현한다. 그런데 이곳이 채록본에서는 짧게 묘사되어 있는 것에 반해 이야기책은 작가가 상상력을 더해 길고 풍성하게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채록본에서는 오늘이가 원천강을 등사하게 하는 마지막 서사부분과 연결되어 원천강은 사람들의 운명을 점쳐 주는 점서로서도 기능한다. 그래서 원천

강은 사계절의 순환을 통해 시간의 본원이 되며 미래의 시간까지 예측할 수 있다 하였다. 하지만, 이야기책들은 앞서 서사에서 살펴보았듯이 8종의 이야기책에서 오늘이가 인간 세상에 강림하여 원천강을 등사하게 하는 내용을 생략하였기에 원천강의 이러한 의미까지는 담아내고 있지 못 하다.

그런데, 한겨레 유영소본은 다른 이야기책들처럼 사계절이 모여 있는 원천강을 묘사하는 것에 이어 밑줄 친 표현까지를 더한다. 이것은 채록본처럼 점서로서의 의미는 사라졌지만 원천강이 사계절이 모두 모여 있는 모습을 통해 시간의 의미와 질서를 이야기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작가가 채록본의 표현만을 단순히 쫓아 다시쓰기 한 것이 아니라 채록본의 내용적 의미와 가치를 분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다. 인물

1) 오늘이

다시쓰기 이야기책의 서사 분석에서 보았듯이 9종 중 현암사 서정오본을 제외한 8종의 이야기책들의 서사가 오늘이가 인간 세상에 강림하여 사람들과 함께 하는 모습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채 천상의 존재가 되어 하늘나라에 사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 그렇기 때문에 채록본에서 인간들에게 강림하여 그들의 운명을 점쳐주며 행복을 전해 주는 ‘오늘이’의 성격도 이야기책들에서는 변화되어 그려지고 있다.

현암사 서정오본을 제외한 8종 중 5종 한겨레 엄혜숙본, 한겨레 유영소본, 대교 신순재본, 한솔 김선우본, 거인 유다본에서 오늘이를 원천강의 사계절을 다스리는 신으로 그리고 있다. 가장 앞서 1999년에 출간된 한겨레 엄혜숙본에서 부제로 ‘사계절의 선녀’를 붙였다. 그 뒤 출판된 한겨레 유영소본은 책 제목 자체가 『사계절의 신 오늘이』 이고 대교 신순재본도 부제로 ‘사계절을 선물하는

선녀'을 붙였다. 이들 책들은 이렇게 제목에서부터 오늘이를 사계절의 신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이를 사계절의 신이라고 한정짓는 것이 과연 채록본에 대한 올바른 해석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채록본에서 사계절과 관련된 언급은 오늘이가 부모국 원천강에 들어가 '만리장성둘러싸흔곳에/곳곳마다 문을열어보았다/보니춘하추동사시절이모다잇는것이엇다'는 것이 전부이다. 오늘이가 사시사철 모두 모여 있는 원천강을 체험함으로써 시간과 우주의 원리를 깨닫고 그를 바탕으로 인간 세상에 강림하여 인간을 돕는 신이 된다는 것이 채록본이 담고자 하는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앞선 한겨레 엄혜숙 본에서 오늘이에게 '사계절의 신'이라는 직능을 부여한 이후 그 뒤에 출간된 4종의 이야기책들에서도 오늘이를 사계절을 다스리는 직능의 신으로만 그리고 있다.

그런데, 웅진 조호상본에서는 오늘이의 신격을 이것들과는 다르게 해석하여 표현하고 있다.

<2> 그리고 나서 한 손에는 꽃을 들고 또 한 손에는 여의주를 들고 하늘로 올라가 선녀가 되었지. 지금도 오늘이는 하늘에서 세상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살머시 내려와서 도와주고 간대 (웅진닷컴 조호상본, 35면)

오늘이를 하늘나라에 사는 존재로 그리고 있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그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신으로 그리고 있다. 이 이야기책은 현암사 서정오본을 제외한 이야기책 중 채록본에서 그리는 오늘이의 신격과 가장 유사하다.

이 외에 봄봄 서정오본과 웅진주니어 정하섭본은 오늘이가 하늘나라 옥황궁의 선녀가 되는 것으로만 서사를 마무리하면서, 오늘이가 선녀가 되어 하는 일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아예 없다. 즉, 오늘이를 사람을 위한 직능을 하는 신이 아닌 단지 하늘나라에 사는 천상의 존재로만 그리고 있다. 이것은 오늘이를 '계절의 신'으로만 한정지어 표현하는 이야기책들보다 더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본풀이에 나오는 신들은 하나의 신격을 갖는다.⁶³⁾ 하지만 오늘이를 단지 하늘나

63) 강권용, 앞의 논문, 33면.

라에 사는 선녀로만 그리는 것은 우리 신화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해석이다.

2) 오늘이와 접속하는 인물들

다시쓰기 이야기책들은 채록본의 기본적 서사와 인물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기 때문에 채록본과 동일한 인물들이 등장하며, 이들이 이야기 속에서 갖는 의미도 채록본과 유사하다. 하지만, 큰 맥락에서는 유사하지만 이야기책들마다 각 인물들을 채록본과 달리 해석하여 표현한 부분들이 있다.

가) 장상과 매일이

장상과 매일은 II장 논의에서 살펴 본 바, 채록본에서 관계 맺지 못한 채 살아가는 고독한 인간을 상징하며 이들의 결합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 즉 음·양의 조화를 의미한다 하였다. 다시쓰기 이야기책 모두가 두 사람을 결합시킨다. 하지만, 매일이를 존재론적 고민에 휩싸인 인간이 아닌 하늘에서 죄를 짓고 내려온 선녀로 표현한 이야기책들이 있다. 또한, 매일이가 있는 곳을 오늘이가 살고 있는 인간 세계가 아닌 저승이나 다른 공간으로 해석하는 것도 있다. 채록본에서 지상의 존재인 오늘이가 천상의 세계인 원천강으로 이동할 수 있었던 것은 천상의 존재 선녀들을 만나 선녀들의 과제를 해결해주는 일종의 통과제의적 과제를 끝낸 다음이다. 하지만, 일부 이야기책에서 선녀를 만나기 이전에 만나는 매일이의 공간을 벌써 지상의 공간과 다른 곳으로 표현한다. 이것은 매일이 이전에 만난 대사(大蛇)가 오늘이를 등에 태우고 청수아당을 넘겨주었다는 표현 때문에 물을 상징적으로 해석하여 물 건너에 존재하는 매일이의 공간을 이전의 공간과 다르게 해석했다고 추측된다. 하지만, 이것은 천상의 존재 선녀를 만나 천상의 존재들의 고민을 지상의 오늘이가 해결해 줌으로서 비로소 오늘이가 신

이 사는 공간으로 들어갈 자격을 부여받는다라는 서사무가 신화소(神話素)에 대한 진지한 해석이 결여되었기에 나온 표현이다. 즉, 선녀를 만나기 이전에 만난 매일이를 인간이 아닌 선녀로 해석하거나, 매일이의 공간을 천상의 공간으로 해석한 이야기책들은 서사무가가 가지는 장르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해석이다.

<1> “아니, 인간세상의 사람이 어떻게 여기 오셨지요? 여기는 저승이라 산 사람이 올 수 없는 데요!”

매일이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한겨레 엄혜숙본, 158면)

“매일이 아가씨는 전생에 선녀셨대요. 그런데 게으름을 피운 죄로 줄곧 글을 읽어야 하는 벌을 받았답니다. 그 벌이 풀리려면, 매일이 아가씨처럼 글만 읽는 도련님과 혼인하게 된답니다.(한겨레 엄혜숙본, 184면)

<5> 글을 읽다 말고 나온 아가씨는 오늘이를 보고 깜짝 놀라 물었어.

“세상에! 이곳에는 어찌 오셨어요? 여기는 산 사람은 들어올 수 없답니다”

(한겨레 유영소본, 33면)

<6> “매일이 아가씨는 원래 하늘나라 선녀였대요. 그런데 게으름을 피워서 하루 종일 글만 읽어야 하는 벌을 받았대요. 글만 읽는 도련님과 결혼하면 그 벌이 풀린다니 저를 따라 오세요.” (대교 신순재본, 964면)

그리고, 채록본에 오늘이가 만난 글 읽는 아가씨의 이름이 ‘매일이’라 정확히 표기되어 있음에도 서정오 선생님이 쓴 두 이야기책에는 이름이 ‘내일이’로 변형되어 표기되어 있다.

<3> “나는 내일이라는 사람인데, 그대 이름이 오늘이라 하니 인연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원천강에는 무슨 일로 가십니까?” (현암사 서정오본, 48면)

<4>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단. 나는 내일이라는 사람인데, 원천강에 가거든 내가 언제까지 여기서 글만 읽고 있어야 하는지 물어봐 다오.” (봄봄 서정오본, 12면)

채록본에 정확히 책 읽는 아가씨의 이름이 ‘매일이’라 표기되어 있음에도 다시 쓰기 이야기책에서 ‘내일이’로 바꾼 것은 옳지 않다. 현암사 서정오본에서 표현하였듯이 이 아가씨와 오늘이와의 인연을 강조하기 위해 두 이야기책의 작가인 서정오 선생님께서 ‘내일이’로 바꾸었다고 추측된다. 그러나 이 아가씨는 매일 반복되는 자신의 삶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진 존재로 오늘과 다른 내일이 그려지지 않아 괴로운 인물이다. 그러므로, 채록본에서 인물의 의미를 정확히 드러내주는 ‘매일이’란 이름을 굳이 ‘내일이’로 새롭게 바꿀 필요가 없다.

나) 연꽃남기

오늘이가 만난 조력자 ‘연꽃남기’는 모든 이야기책들에서 채록본대로 욕심 때문에 더 많은 꽃을 피우지 못하는 식물로 그려지고 있다. 그런데, 모두 이 식물이 가지는 의미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으나 이 ‘연꽃남기’를 표기하는 데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우선, 무속에서의 연꽃이 가지는 상징성 때문인지 3종의 이야기책에서 ‘연꽃남기’를 연꽃으로 해석하여 표기한다.

<3> 황모래땅 동쪽 언덕에 가면 연화꽃이 있고, 그 연꽃가에 크기가 닳 자나 되는 큰 연꽃이 있을 것입니다. (현암사 서정오본, 46면)

<4> 거울같이 맑은 연못에 가면 길을 가르쳐 줄 연꽃이 있을 게다. (봄봄 서정오본, 5면)

<8> 위쪽 길로 가다 보면 연꽃이 나오는데, 거기 있는 연꽃에게 물어보시오.
(웅진주니어 정하섭본, 7면)

또한, 4종의 이야기책에서는 채록본에 표현된 ‘연꽃남기’가 연꽃과 나무가 붙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단순히 연꽃이 아닌 연꽃이 피는 상상의 나무로 해석하여 표기한다.

<1> 그 연꽃가에는 연꽃이 한 송이만 달려 있는 커다란 연꽃나무가 서 있어요.

(한겨레 엄혜숙본, 141면)

<5> 그 못가에 큰 연꽃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바로 그 나무를 찾으십시오. 윗가지만 딱 한 송이 꽃이 피고 나머지 가지에는 꽃이 피지 않은 나무이니 금방 알아 낼 수 있을 겁니다. (한겨레 유명소본, 22면)

<6> 골짜기를 돌아가면 연꽃이 나오고, 연꽃이 한 송이만 열린 꽃나무가 있지요. 그 꽃나무에게 물으면 알려 줄 거예요. (대교 신순재본, 53면)

<7> 여기서 한참 더 서쪽으로 가면 연화꽃이 있는데 거기 있는 연꽃 나무에게 물으면 알려 줄 거예요.⁶⁴⁾ (한솔 김선우본, 5면)

이외에 1종의 책에서 연꽃의 의미는 빠진 채, 그냥 꽃이 피는 나무로 해석하여 표기한다.

<9> 구불구불 골짜기를 돌아가면 연꽃이 나와. 그곳에 꽃이 딱 한 송이만 핀 나무가 있어. 그 나무에게 물으면 가는 길을 알려 줄 거야 (거인 유다본, 117면)

이렇게 9종 중 7종의 이야기책이 ‘연꽃남기’를 연꽃 또는 연꽃이 피는 나무로 해석한다. 그런데, 김권호⁶⁵⁾는 채록본의 ‘연꽃남기’를 연꽃이라 바로 해석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지 의문을 제기한다. 그는 그 이유를 “첫째, 언어의 경제성을 헤치며 수차례 ‘연꽃’이 아닌 ‘연꽃남기’라며 ‘남기’를 강조한 점, 둘째, ‘연꽃남기’가 사는 곳이 연화못의 ‘못가’라고 한 점, 셋째, 꽃이 삼월에 핀다고 한 점, 넷째, ‘상가지’라는 나무의 수형과 연관된 낱말을 썼다는 점 등을 꼽았다.” 이런 의문으로 그는 생태 조건에 적합한 다른 식물을 찾아보았다. “『조선 무속의 연구』의 「원턴강본푸리」 편 첫 장에 기록된 ‘제주도신가-西歸男巫 박봉춘 口傳’

64) 이 이야기책은 연꽃 나무라 표기하고 있지만, 그림은 연꽃으로 표현되어 있다.

65) 김권호, 앞의 논문, 71면.

이라는 기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귀포’무당이 구술해서 전했다는 점을 참조점으로 제주도 자생식물과의 연관성을 살피는 것이다. 채록본의 생태적 조건에 근접한 제주도 자생식물은 목련이 유력하다. 목련(木蓮)을 한글로 풀면 ‘연꽃나무’라는 것. 목련이 제주도 자생식물이라는 점, 무엇보다 개화 시기가 목련은 3~4월이라는 점이 ‘삼월이 나면 꽃이 되는’이라는 박봉춘이 구술한 구체적 조건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또 ‘상가지’를 ‘하가지’, ‘중가지’등의 연관어와 관련지으면 이는 나무에 쓰는 낱말임에 분명하니, 초본식물인 연꽃보다도 타당하다. 게다가 목련의 생육 조건이 물속이 아니라 땅 위이니 ‘연못가’를 연못 주변으로도 해석할 수 있으니 더욱 부합된다. 연꽃의 상징성 때문에 연꽃이라는 해석의 고집을 이해 못할 바 아니지만, 옛사람들의 글속에서 파악되는 목련 역시도 연꽃만큼이나 불교적 의미가 풍부한 나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목련⁶⁶⁾의 가능성에도 그만큼 관심이 필요하다.⁶⁷⁾ ”며 ‘연꽃남기’가 ‘목련’일 가능성을 펼치고 있다. ‘연꽃남기’가 ‘목련’일 가능성에 대한 김권호의 의견은 타당성이 있어 보이나 아직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채록본에 제시된 의미를 해석해 보면 ‘연꽃남기’가 초본식물인 ‘연꽃’보다 나무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에 누구나 쉽게 동의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웅진 조호상본이 김권호의 의견과 동일하게 연꽃나무를 목련으로 해석하고 형상화하고 있어 이채롭다.

<2> 저 길을 끝도 없이 걸어가면 연못이 하나 나올 거야. 연못가에 나무가 한 그루 있을 테니, 그 나무에게 물어보렴. (웅진닷컴 조호상본, 5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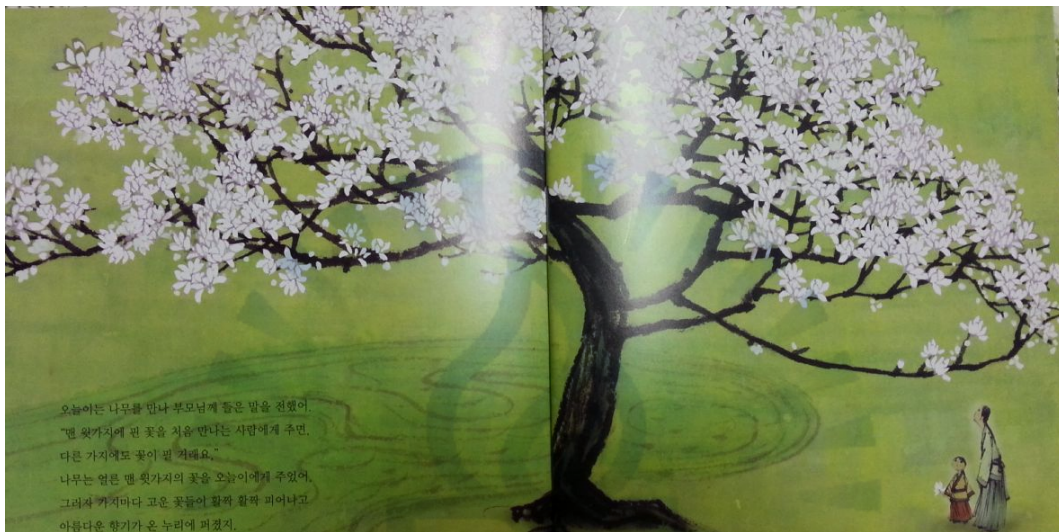
이야기책의 서술 부분에서는 연못가의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나 오늘이와 ‘연꽃남기’가 만난 그림에서 꽃이 한 송이 핀 목련

66) “꾸미는 것은 당연히 없애야 하고/ 진흙인들 어찌 혼탁하게 하리오/ 치열하게 설법을 새롭게 해서/ 육지와 언덕에 사네.”라는 이견창의 한시 「목련」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일찍부터 목련은 연꽃만큼 불교적 관련이 큰 식물이다.(강관권, 2010: 830-834, 946 -951) - 김권호, 앞의 논문, 71면에서 재인용.

67) 김권호, 앞의 논문, 71면.

나무가 그려져 있다. 그리고, 매일이와 함께 ‘연꽃남기’를 다시 찾아 고민을 해결해 주는 장면에서 <그림 2>와 같이 ‘연꽃남기’는 가지마다 꽃을 활짝 피운 목련으로 그려져 있다.

<그림 2> 목련으로 그려진 ‘연꽃남기’ (웅진닷컴 조호상본, 32면)



다) 천하대사(天下大蛇)

욕심 때문에 용이 되지 못한 존재 ‘턴하대사(天下大蛇)’는 이야기책들에서도 이러한 의미가 드러나도록 그려지고 있다. 하지만, ‘연꽃남기’처럼 이야기책들마다 ‘턴하대사(天下大蛇)’를 표기하는 데에는 차이를 보인다.

턴하대사(天下大蛇)는 9종 중 7종의 이야기책들에서 ‘이무기’라 표기 되어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무기’의 의미가 ‘용이 되어 승천하지 못해 오랜 세월을 살아온 커다란 뱀’으로 강하게 인식되어 있는데, 채록본에서 ‘턴하대사(天下大蛇)’가 야광주를 세 개나 물어도 승천하지 못하는 뱀으로 표현되어 있기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이무기와의 의미와 부합해서일 것이다. 하지만 채록본에서는 ‘턴하대사(天下大蛇)’라고만 표기되어 있지 이무기란 직접적 표기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있기에 적절한 표기일 지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한다. 웅진닷컴 조호상본과 웅진주니어 정하섭본에서는 이무기란 표현 대신에 각각 ‘커다란 뱀’, ‘구렁이’로 표기하였다. 앞서 ‘연꽃남기’를 연꽃으로 해석하여 표기하는 것이 옳은 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김권호는 텃하대사(天下大蛇)도 이무기라 해석하는 것이 옳은 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무기보다는 큰 뱀이라 해석하는 것 더 적당하다고 말한다. “「원텃강본푸리」는 제주도 서사무가이다. ‘뱀’에 대한 제주도민의 관념은 도민의 속신 가운데서도 가장 원초적이며 중심적인 원시신앙’이며, ‘제주도는 예로부터 뱀이 많은 지역으로 알려져 왔으며, 뱀에 관련된 전승설화도 많으며, 뱀에 대한 관념도 일종의 신앙적인 형태를 지녀 이곳 사람들의 생활 양태를 크게 지배하면서 내려’⁶⁸⁾ 왔다.’ 특히 이 뱀신의 신앙은 아시아에 있어서 인도의 코브라 신앙을 제외하고는 한국의 제주도처럼 뱀 자체를 신앙 대상화하고 인격화하여 민간신앙의 하나의 체계를 갖추고 있는 지방은 그 예를 달리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특이한 현상’(문무병.2008;230)인 것이다. 이무기 신앙이 아니고 뱀 신앙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텃하대사는 이무기보다 큰 뱀이나 구렁이로 표기하는 것이 더 제주도답다⁶⁹⁾”라고 했다. 그런데, 제주무가라는 장르적 특성까지 살피지 않더라도 채록본에서 텃하대사 옆에 한자표기 ‘天下大蛇’까지 매번 표기하고 있기에 굳이 ‘이무기’라는 의미를 가져 오기보다 이 채록본의 의미를 살려 ‘큰 뱀’ 또는 ‘커다란 뱀’이라 표기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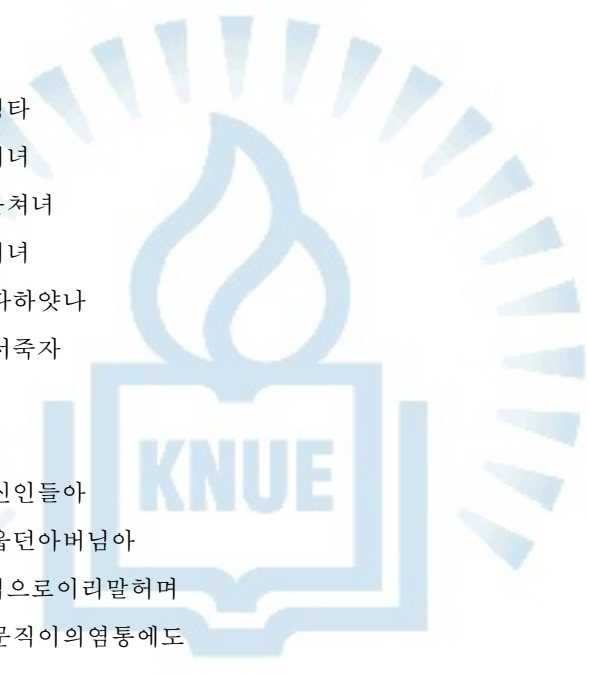
라) 문지기

앞서 II장의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지기는 오늘날의 원천강 출입을 막음으로써 오늘날이 신적인 존재로 바뀔 수 있도록 통곡을 이끌어 내는 인물이

68) ‘진성기(1883:197-198), 문무병(2008: 228 -229)에서 재인용. 문무병의 논저는 특히 ‘제5장 뱀신앙’에서 뱀에 대한 제주도 여인들의 숭상과 제주도 자연환경, 생활환경과의 관련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 본고에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 김권호, 앞의 논문, 73면에서 재인용.

69) 김권호, 앞의 논문, 73면.

다. 비장미 넘치는 오늘이의 통곡은 독자(청자)에게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고 장상, 연꽃나무, 대사(大蛇), 매일이 등의 문제 해결의 실마리뿐 아니라 부모 상봉, 나아가 오늘이가 신으로서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열쇠가 된다. 채록본에서 장면과 장면 사이를 많이 생략한다. 하지만 문지기와 대면에서 이 통곡 부분은 아주 면밀하게 묘사되어 있다. 지금껏 빠른 속도로 읽혀지며 부모를 찾아가던 오늘이의 여정이 이 통곡부분에서 완급이 조절되며 천천히 진행된다. 그럼으로써 독자(청자)로 하여금 극정 긴장감을 조성시키며, 이야기에 몰입하게 만든다.



원천강신인들은님우무정타
 비인들에홀로이울든이쳐녀
 천산만하님을적에웨로운쳐녀
 부모국의문압헤웨로운쳐녀
 부모는다보왔나,내할일다하얏나
 강님갈까무엇할이,여기서죽자
 팔자(八字)부탁어찌할이
 모든은헤어찌할이
 박정현문직이야,무정현신인들아
 그리웁던어머님아,그리웁던아버님아
 오날이는의식적무의식적으로이리말허며
 연하야늦겨우니,돌갓튼문직이의염통에도
 눈물의동정이울어났다
 문직이가부모궁에올나가서,이런사실을주하니
 발서부모궁에서도알고잇섯다
 그비명허는소래는
 부모에게까지흘러갓든 것이다 (채록본, 297면)

하지만, 9종 중 8종의 이야기책들에서 문지기는 단순히 오늘이의 원천강 출입을 막을 뿐 통곡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 8종의 이야기책들에서는

오늘이의 통곡 부분이 빠져 있거나 삽입되어 있더라도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다. 그런데, 한겨레 유영소본에서는 채록본과 유사하게 오늘이가 비장한 목소리로 통곡하는 부분이 표현되어 있다.

<5> 무심한 문지기의 말은 뽀죽한 가시가 되어 오늘이의 가슴을 푹푹 찔렀어. 참고 또 참았던 눈물이, 오늘이 불을 타고 뜨겁게 흘러내렸어. 눈앞이 캄캄해서 오늘이는 땅에 주저앉고 말았어. 여기까지 왔는데, 원천강에 못 간대. 여기까지 왔는데, 부모님을 못 뵈대, 그 멀고 험한 길을 사납고 거친 길을 걷고 걷고 걸었는데, 여기까지가 끝이래. 기가 막힌 오늘이는 울고 또 울었어.

이 문 안에 부모 있는데
이 문 앞에 내가 있는데
굳게 잠긴 원천강 대문
야속해라 서운해라 슬퍼라.
빈 들에 홀로 남은 아기
학이 날개로 덮어 키워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외롭고 험한 길을 걸어
원천강 찾아온 이날까지
쓸쓸해라 적막해라 아파라.
약속한 일 어찌하나
그 은혜를 어찌 갚나
돌아갈 일 막막하네.
그립던 부모님아
오늘이는 어찌하오.
무정한 문지기가야
오늘이는 어찌하오 (한겨레 유영소본, 43-44면)

이것은 가장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는 봄봄 서정오본과의 대조를 통해 서사의 긴장감이 확연히 차이 남을 느낄 수 있다.

<4> “강림들에서 오늘이가 왔다고 전해 주세요.”

조금 뒤에 말 탄 사람이 나오더니 오늘이를 말에 태워 부모궁에 데려가더래.

(봄봄 서정오본, 15-16면)

서사 전개상 이 부분은 불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8종의 이야기책들에서 생략하거나 요약했다고 생각되어진다. 어느 것을 말하고 어느 것을 보여주며 어느 것을 숨겨 독자의 몫으로 남기느냐는 서사의 긴장감을 만들어내는 전략이자 작가가 자신의 예술성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이다. 따라서 서술전략의 차이는 예술형상화 방법의 차이이고 나아가 예술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채록본에서 이 통곡 부분의 ‘보여주기’ 방법은 청자(독자)로 하여금 극적 긴장감을 조성하게 하는 고도의 전략이다. 실제 <원천강본풀이>를 부르는 무당은 ‘오늘이’의 통곡 부분에서 실제 오늘이로 합치되며, 무당과 오늘이 그리고 청자(독자)는 이야기의 절정을 맞이하게 된다. 그런데, 이야기책 작가들은 채록본이 가지는 이런 서술전략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다시쓰기’를 하였다. 그래서, 채록본의 서사보다 긴장감이 떨어진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채록본과 다시쓰기 이야기책 9종을 비교 분석해 보면 <표 3>와 같다. ‘다시쓰기’는 말 그대로 원래적 옛이야기의 모습 그대로 다시 써 그것을 독자들에게 원형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에도 채록본과 또 ‘다시쓰기’ 이야기책들 간에서도 원작의 신화소(神話素)를 해석하는 데 있어 많은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즉, <원천강본풀이>의 신화소들이 원작의 모습에서 많이 변형되어 이야기책으로 출간되고 있다.

<표 3> 채록본과 ‘다시쓰기 이야기책들’의 비교 분석

	<원천강본풀이> 채록본	1 한겨 레아 이들	2 웅진 닷컴	3 현암 사	4 봄봄	5 한겨 레	6 대교	7 한솔 교육	8 웅진 주니어	9 거인
서 사	오늘이가 인간세상에 강림하여 살아 감.	-	-	+	-	-	-	-	-	-
배 경	원천강은 사계절이 머무는 공간 뿐 아니라 사계절이 순환하는 곳으로 결국 시간의 본원이 되는 곳으로 그려짐.	-	-	+	-	+	-	-	-	-
인 물	인간들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신으로서의 직능이 나타남.	-	+	+	-	-	-	-	-	-
	매일이 인간 세상에 사는 인간으로 그려지며, ‘매일이’로 표기되어 있음. (채록본과 인물의 상징 의미는 모두 동일)	-	+	-	-	-	+	+	+	+
	‘연꽃남기’라 표기되어 있음. (채록본과 인물의 상징 의미는 모두 동일)	연꽃 이 피는 나무	목련	연꽃	연꽃	연꽃 이 피는 나무	연꽃 이 피는 나무	연꽃 이 피는 나무	연꽃	꽃 이 피는 나무
	‘턴하대사’로 표기되어 있음. (채록본과 인물의 상징 의미는 모두 동일)	이무 기	커다 란뱀	이무 기	이무 기	이무 기	이무 기	이무 기	구렁 이	이무 기

동일)										
오늘이의 통곡을 이 끌어내는 문지기의 모습이 드러남.	-	-	-	-	+	-	-	-	-	-

* + 나타남을 표시, - 나타나지 않음을 표시.

2. 원작의 가치를 뛰어넘지 못한 ‘고쳐쓰기’ 이야기책

고쳐쓰기 이야기책은 옛이야기의 원래적 모습 그대로를 글로 옮겨 담은 다시 쓰기와 다르게 작가에 의해 옛이야기가 의도적으로 변형되어 이야기책으로 담기는 것이다. 그런데, 작가의 이러한 의도적 변형은 어디까지나 원작의 특성과 가치를 오늘날의 독자들에게 좀 더 잘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표 1>에서 교학사 최현숙본, 봄봄 허난희본은 <원천강본풀이>는 채록본의 내용에서 작가에 의해 변형이 가해진 고쳐쓰기 작품들이다. 그런데, <표 1>의 문공사 이성강본은 <원천강본풀이>가 아닌 ‘Ⅱ. 2’에서 분석할 대상인 애니메이션 <오늘이>를 그림책으로 담은 것이다.⁷⁰⁾ 그러므로 이 이야기책은 여기서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겠다.

가. 교학사본

1) 서사

이 이야기책은 8쪽 분량의 <원천강본풀이>를 165쪽에 분량의 장편 이야기로 담아내고 있다. 오늘이가 원천강에 있는 부모를 찾아 떠나는 여정 속에서, 장상도령, 연꽃남기, 대사, 매일이, 선녀를 차례로 만나 신이 된다는 큰 맥락의 서사

70) 애니메이션 <오늘이>(이성강 감독, 2003)는 그림책과 VCD를 함께 판매하는 형태인 ‘한국대표애니메이션 그림책’시리즈로 2004년에 문공사에서 발간되었다.

는 채록본과 동일하다. 작가는 짧은 서사무가가 장편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채록본의 기본적 서사에 에피소드적 이야기들을 창작하여 곁들였다. 이것은 이 작품을 쓴 작가의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11> <작가의 말>

‘원천강 본풀이’의 내용을 크게 바꾸지는 않았지만, 이야기의 흥미를 더하기 위해 오늘 이에게 친구 같은 존재인 다람이를 창작해 넣었고, 삼신할머니나 조왕신 같은 신들도 등장시켰습니다. 우리에게도 서양 못지않게 각 분야마다 고유한 신들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또 장상 도령과 매일이를 남을 위한 삶을 사는 모습으로 그리는 등 벌어지는 사건마다 이 시대에 맞는 뜻을 넣으려고도 했습니다. 그들을 통해 참된 삶의 자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학사 최현숙본, 167-168면)

이 이야기책은 이렇게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모여져 짧은 채록본 서사가 165쪽이라는 장편의 서사로 재구성되었다. 165쪽에 달하는 분량은 총12장 (버려진아이/삼신할머니와 저승차사/별충당을 찾아서/연화꽃의 연꽃나무/청수바다 이무기/매일이 아가씨/뚝뚝 두레박으로 퍼내기/원천강의 문지기/사계절의 곳간/넋째,셋째 해답/둘째,첫째 해답/여신이 되어 만나다)으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는데 각 장은 채록본의 기본적 서사를 바탕으로 진행되면서 에피소드적 새로운 이야기들이 곁가지로 모두 첨부되어 있다.⁷¹⁾ 그런데, 너무나 많은 에피소드들이 삽입되어 채록본이 주는 서사의 응집성이나 완결성이 확연히 떨어진다. 그리고, 작가가 <작가의 말>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여러 가지 교훈적 주제를 전달하고자 각 에피소드들을 의도적으로 창작되었기에 이야기의 구성이 전체적으로 산만하다.

71) 다양한 에피소드적 이야기들은 다음에 분석할 ‘인물’에서 자세히 살펴 볼 수 있다.

2) 배경

이 이야기책에서도 다시쓰기 이야기책들처럼 원천강을 사계절이 모두 모여 있는 공간으로 그리고 있다. 그런데, 이 이야기책에서는 사계절이 모여 있는 공간에서 더 나아가 인간 세상에서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관장하는 곳간으로 표현한다. 원천강을 그리는 장의 소재목부터 ‘사계절의 곳간’이다.

<11> 어머니는 오늘이를 봄 작물이 있는 곳으로 안내했다. 오늘이는 원래 꽃과 나무를 좋아했지만, 지금은 곡식이나 채소에 더 마음이 끌렸다. 원천강을 찾아오는 길에 가난한 사람들의 어려운 형편에 대해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오늘이는 좁은 땅에서도 곡식을 많이 거두어 들일 수 있는 농사법을 알고 싶었다. 어머니는 그런 오늘이가 기특해 농사법에 대해 자세히 가르쳐 주었다. (교학사 최현숙본, 111면)

<11> “그런데 어머니, 이처럼 거대한 계절을 내려보내고 또 거두어들려면 많은 신들이 일을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왜 아무도 안 보이죠?”
오늘이의 물음에 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했다.
“한 계절에 딸린 것들을 하나하나 손으로 잡아서 내려보내는 게 아니란다. 별궁을 맡은 신관이 ‘그리하라!’이면 그들이 스스로 내려가는 거지.”
그 말에 오늘이는 몹시 놀라며 감탄했다.
“아버지 혼자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시다니 정말 놀라워요.”
어머니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교학사 최현숙본, 113-114면)

사계절의 절기와 더불어 이루어지는 농사의 원리에 대한 설명만 9면(109-117면)에 달하는 분량으로 아주 상세히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그곳은 오늘이의 아버지가 맡아 관장하고 있다고 한다. 즉, 인간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것은 모두 원천강 덕택이며 그곳은 신에 의해 관장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3) 인물

채록본의 주인공 오늘이와 오늘이가 접촉하는 인물들은 이 이야기책에서 모두 동일하게 등장한다. 하지만, 이 이야기책에서는 이 인물들 뿐 아니라 다양한 인물들이 작가에 의해 새롭게 창작되었다.

가) 오늘이

이 이야기책 또한 오늘이가 마지막에 신으로 좌정한다. 앞서 다시쓰기의 8종 중 5종의 이야기책들이 오늘이를 계절의 신으로만 한정하여 해석했던 것과 같이 이 이야기책도 오늘이를 계절의 신으로 해석하여 하늘에 사는 천상의 존재가 되는 것으로 서사를 마무리 짓는다.

<11> 향방한 들판을 온갖 새 지저귀는 숲으로 바꾸었던 그 사랑과 정성으로 오늘이는 지금도 인간 세상에 사계절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 (교학사 최현숙본, 165면)

앞의 다시쓰기 이야기책의 논의에서 채록본에서는 오늘이가 인간 세상에 강림하는 것으로 서사가 마무리되는데 이야기책에서는 하늘나라에 사는 것으로 서사가 마무리되면서 오늘이가 사계절의 신으로만 한정지어 그려진다 하였다. 그런데, 이 이야기책에서는 이러한 부분 뿐 아니라 오늘이가 신으로 좌정하는 과정에서 채록본의 특성을 살리지 못 했다. 채록본과 다시쓰기 이야기책들에서 오늘이가 신으로 좌정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부모 찾기 여정에서 도움 받은 이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공업 덕분이었다. 공업담은 신들로 하여금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게 하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화에는 이것이 꼭 들어가 있다. <원천강본풀이>의 서사구조를 간단히 요약하면, [기아(棄兒)-고난-공업(功業)]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의 신화에 공통하고 있는 주인공의 일대기에 나타나는 특징과 닮아 있다.⁷²⁾ 즉, 서사무가

및 신화는 주인공이 신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공업을 풀어쓴 것으로, 이 공업이 이야기의 핵심이다. 채록본의 핵심 또한 오늘이가 여신이 되기까지 여러 존재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해 주는 공업의 과정이다. 하지만, 이 이야기책에서는 오늘이의 이 과정은 신이 될 수 있는 일차적인 자격 요건으로만 치부되어 버린 채, 오늘이가 여신이 되기 위해서 더 많은 수련 과정을 요구한다. 즉, 오늘이가 여신이 되는 조건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 존재의 고민을 해결해 준 과정의 공업이 아니라 하늘나라 존재로부터 부여받은 수련의 과제 해결이다.

<11> 옥황상제는 고개를 크게 끄덕이더니, 주위에 늘어선 여러 신들 앞에서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부터 원천강의 신관은 오늘이에게 ‘원천강의 원리’를 가르치도록 하라. 그 공부가 끝나면 세상을 돌아다니며 수련을 쌓아야 한다. 수련을 무사히 마치고 나면 오늘이는 원천강의 별궁을 맡는 신관이 될 것이다.” (교학사 최현숙본, 162면)

신관이 되기 위해 한 차례의 수련 과정을 더 거쳐야 한다는 이 이야기책의 설정은 채록본에서 신이 되기 위해 행한 오늘이의 공업을 모두 무화시켜 버린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 이야기책은 교학사의 ‘우리 겨레, 여신 이야기’ 연작 중 첫 번째 이야기이다. 이 연작을 기획하며 기획자는 ‘구전 신화는 수천 년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이야기 탓에, 글로 옮겨지면서 내용이 조금씩 달라진 이본이 여럿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야기가 가장 탄탄하고 보편성이 있는 것을 골라 새롭게 꾸몄습니다. 이 이야기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기는 했지만, 그 모든 작업이 원형을 크게 훼손하지 않도록 했습니다’⁷²⁾라고 말하고 있다. 기획자가 이 이야기가 원작을 고쳐쓰기는 하지만 본 신화의 원형을 크게 훼손하지 않도록 했다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오늘이가 여신이 되는 과정을 이렇게 해석한 것은 신화의 가장 일반적 특성을 놓친 것이라 생각된다.

72) 이수자, 앞의 논문, 795면.

73) 최현숙·정승혜, 『계절을 여는 아이 오늘이』, 교학사, 2005, 5면.

나) 새롭게 창작된 인물들

(1) 여러 신들 및 도깨비

이 이야기책에서는 이야기 곳곳에 삼신할머니, 저승차사, 조왕할머니, 문신 등 우리 고유의 신이 등장한다. 아이의 출생을 돕는 삼신할머니는 오늘이 어머니가 오늘이를 낳던 날을 오늘이에게 들려주어 오늘이가 부모님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며, 죽은 사람을 저승에 데려가는 저승차사는 오늘이 부모님을 데리고 저승에는 가지 않았기에 부모님이 죽지 않았다는 정보를 오늘이에게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부엌을 관장하는 조왕할머니는 여행길에 굶주린 오늘이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며, 악귀가 집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문신은 백씨부인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오늘이가 도착하기 전에 저승차사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여러 신들 뿐 아니라 우리의 옛이야기에 자주 등장하는 도깨비도 등장한다. 옛이야기에서 수수팔떡과 메밀묵을 좋아하는 도깨비들은 이 이야기에서도 오늘이가 여행길에 갖고 나온 수수팔떡과 메밀묵을 얻어먹고 오늘이를 장상도령에게까지 하룻밤 만에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우리 옛이야기에 자주 등장하는 여러 신들 및 도깨비는 짧은 채록본의 서사가 긴 장편의 글로 재창작되어지면서 흥미와 재미를 주는 보조적 인물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인물들이 이야기 전체 서사와의 긴밀한 계기나 의미 없이 곳곳에 첨가되어 있다. 작가는 이러한 인물들을 창작한 이유를 <작가의 말>(167면)에서 ‘우리에게도 서양 못지않게 각 분야마다 고유한 신들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인물들이 옛이야기에서 가지는 의미나 역할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작품에서 무분별하게 차용하여 쓰여 지고 있기에 오히려 독자들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이 되지 못한다.

(2) 다람이

이 이야기책에서는 오늘이의 여정과 함께 하는 말하는 다람쥐 ‘다람이’가 새롭게 창작되어 등장한다. 이 다람이는 원래 원천강에 사는 동물인데 오늘이에게 말을 가르치기 위해 학과 함께 옥황상제가 원천강의 기억을 지운 채 지상으로 내려 보낸 존재이다. 다람이는 오늘이와 둘도 없는 친구사이로 오늘이의 모든 모험을 함께 하며 오늘이에게 큰 힘이 되어 준다. 작가가 이 글의 예상독자인 어린이들에게 친구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게 하려는 목적으로 아이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귀여운 캐릭터 다람이를 창작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이것은 강림들에 솟아나 철저히 고독한 존재로 살아 온 오늘이가 자신의 존재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홀로 길을 떠난다는 채록본의 의미를 퇴색하게 한다. 하지만, 어린이들에게 인간의 존재론적 외로움이라는 철학적 의미 전달은 어려우며 또한 불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람이를 통한 친구와의 모험과 우정은 장편의 이야기에 적절한 재미와 감동을 준다.

그러나 여러 인물들의 고민을 듣고 해결해줌으로써 여신으로 좌정하는 오늘이의 공업과정과 그 신격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람이의 역할은 보조적 인물로만 그쳐야 한다. 하지만, 오늘이와 다람이의 역할에 있어 주객이 전도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 문지기가 원천강 출입을 막자 이 글의 주인공 오늘이는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데 반해, 다람이는 문지기 앞에 당당히 나서서 오늘이의 심정을 대변해 준다.

<11> 문지기가 딱 잘라 거절하자, 오늘이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다.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오로지 부모님을 만날 희망 하나로 아득히 먼 길을 찾아온 오늘이였다. 실망한 오늘이는 그만 정신을 잃고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이 나쁜 문지기야!”

다람이가 오늘이의 옷자락을 헤치고 나오며 소리쳤다. <중략>

오늘이가 좀처럼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다람이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머나먼 길을 걷고 또 걷고, 험한 산을 넘고 거친 바다를 건너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사나운 문지기 때문에 결국 부모님을 뵙지 못하고 마는구나! 원천강의 얼굴인 문지기가 어쩔 저리도 냉정하단 말이나! 엉엉.”

다람이의 구슬픈 뉘두리에 문지기는 꿈쩍 않고 앞만 바라보며 서 있었다. 다람이는 점점 더 슬게 울었다. (교학사 최현숙본, 102 -103면)

앞서 논의한 것처럼 문지기 앞에서의 오늘이의 하소연은 서사무가 <원천강본풀이>에 있어 가장 극적 부분으로, 오늘이가 인간에서 신으로 좌정하기 위한 통과례적 성격을 띤다. 하지만, 이러한 역할을 주인공 오늘이가 아닌 보조인물 다람이가 하는 것은 채록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다. 짧은 채록본의 서사가 긴 장편의 이야기로 고쳐쓰기 되는 과정에서 매력적인 인물을 창작한 작가의 의도는 높이 살 만하나,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할 오늘이의 신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졌어야 했기에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다.

(3) 유선이

유선이 또한 채록본에는 없는 작가가 창작한 새로운 인물이다. 오늘이는 원천강을 찾아 떠나기 전 강림들에서 자신을 발견한 백씨 부인과 함께 산다. 그러면서 마을을 꽃과 나무로 가꾸며 친구들과도 어울려 산다. 그런데, 아이들이 작은 생명을 너무나 함부로 대하자 오늘이가 나서서 말린다. 유선은 그러한 오늘이에게 불만을 품고 대항하는 친구로 ‘부모님이 널 버리고 도망갔다’며 친구들 앞에서 오늘이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놀리는 아이였다. 그런데, 오늘이가 원천강에서 부모님을 찾고 난 후, 백씨부인에게 돌아왔을 때 오늘이가 떠나고 난 뒤 생기를 잃은 꽃마을을 다시 가꾸고 지키는 일을 유선이가 하고 있었다. 유선은 오늘이가 떠나고 나자 그 동안 마을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오늘이가 하던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는지 가슴 깊이 깨달았다고 한다. 작가가 아이들에게 친구와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창작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다) 오늘이와 접속하는 인물들

(1) 백씨부인

채록본의 박이왕의 어머니 백씨부인은 오늘이를 우연히 만나 오늘이에게 부모가 있는 원천강을 안내하는 역할만 한다. 하지만 이 이야기책에서는 부모님을 찾아가기 전 오늘이를 입양해 돌보아 주는 양부모의 역할을 하며, 마지막 부분에서 죽어가다가 오늘이가 천상에서 들고 온 연꽃과 여의주로 인해 살아난다.

그런데, 오늘이가 부모님을 찾아 여행을 떠나기 전 백씨부인에게 입양되었다는 설정은 서사무가에서 오늘이가 지닌 절대적 고독과 신화적 인물이 겪는 고난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 채록본에서 절대적으로 고독한 존재 오늘이이기에 부모님을 찾고자 하는 욕구는 강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시련을 이겨내고 부모님을 찾아 여신이 되는 결말은 감동을 준다. 하지만, 오늘이가 친부모님을 만나기 전 백씨부인으로부터 따뜻한 보살핌을 받았다는 이 이야기책의 설정은 채록본에서 오늘이가 부모님을 찾아 고된 여행을 떠날 수밖에 없는 동기와 오늘이가 절대적 고독에서 벗어나 행복을 찾는다는 채록본의 결말에 대한 감동을 희석시키는 요소가 된다.

(2) 장상도령과 매일이

장상도령과 매일이는 채록본의 내용과는 달리 원래 천상의 존재들로 옥황상제가 남을 도와주는 인물로 지상에 내려 보냈다. 장상이는 천상에 대한 기억이 사라져 자신이 누구인지 궁금해 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으며, 매일이는 자신이 옥황상제에 의해 남을 돕기 위해 내려 보내진 선녀인지 알고 있으나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하는 인물이다.

<11> 장상은 어려운 일을 당해도 도움 받을 곳 없는 사람들을 위해 옥황상제께서 특별히 내려 보내셨다. 원래 장상은 자유롭게 떠돌아다니던 구름신이였기에, 또 떠나 버릴까 염려가 된 옥황상제께서 아예 돌아다니지 못하게 만드신 것이다. 그러나 장상이 여자들의 문제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자, 학문이 빼어나고 마음 착한 선녀 매일이를 또 내려 보내셨다. 그런데 매일이네 정자는 청수 바다를 건너야만 하는 먼 곳이라 여자들이 찾아가기 어렵기에, 옥황상제께서는 두 사람이 별충당에 모여 함께 일하기를 바라신다. 그렇게 하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교학사 최현숙본, 148면)

작가는 <작가의 말>(167면)에서 ‘장상 도령과 매일이를 남을 위한 삶을 사는 모습으로 그리는 등 벌어지는 사건마다 이 시대에 맞는 뜻을 넣으려고도 했습니다. 그들을 통해 참된 삶의 자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라며 장상도령과 매일이가 남을 도우며 사는 모습을 통해 인정이 메마른 요즘 시대에 나누는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려 하였다 밝히고 있다. 또한 매일이를 찾아오는 여자 손님들이 남녀가 불평등한 세상을 한탄하는데 이것 또한 어린이 독자들에게 남녀평등사상을 심어주기 위한 작가의 의도적 창작이라 생각된다.

채록본에서는 남, 여의 고독한 자기 존재론적 고민은 결국 남, 녀의 화합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해주는 데 반해, 여기서는 두 사람의 결합으로 더 많은 선행이 일어날 수 있다는 나눔과 베품의 의미를 정이 메마른 현대의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3) 연꽃나무와 이무기

연꽃나무는 채록본처럼 맨 윗가지에만 꽃이 피는 이유를 알고 싶어 한다. 그런데, 연꽃나무가 온 가지마다 꽃을 피우지 못하는 이유가 채록본에서는 욕심 때문이지만 이 이야기책에서는 나무면서도 연꽃을 피운 자만심 때문이라 말하고 있다.

<11> 연꽃나무는 나무면서도 연꽃을 피운다는 자만심에 자기도 모르게 은근히 남을 업신 여기는 마음을 품었다. 지금이라도 윗가지의 꽃을 꺾어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에게 준다면 다른 가지에도 꽃이 피게 될 것이다. (교학사 최현숙본, 141면)

그리고, 연꽃나무는 나무면서도 실제의 연꽃보다 더 크고 화려한 연꽃을 피워 주위의 연꽃들로부터 미움과 시기의 대상이 된다. 나무는 연꽃에 유독 집착하는데 어렸을 때 불이 나자 어머니가 어린 짝인 자기를 보호하고자 제 위로 쓰러져서 덮어 주다가 불타 죽었다 한다. 그 뒤로 자신은 쓸모없는 존재라 여겼는데 연꽃의 연꽃들을 보고 자기도 꽃을 피우기 위해 노력하니 연꽃이 피었다고 한다. 그 뒤로 자신도 쓸모 있는 존재라 여기게 되었고, 그 뒤로는 남보다 더 화려한 꽃을 피우기 위해 집착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채록본의 ‘연꽃남기’보다 이 이야기책의 연꽃나무는 훨씬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작가는 이 연꽃나무 이야기를 새롭게 창작하여, 아이들에게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친구들끼리의 왕따문제 그리고 아이들의 자존감 문제까지 생각하게 만든다.

이무기 또한 채록본보다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인물로 재창작되고 있다. 용이 되지 못하는 것은 채록본과 같이 욕심 때문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책에서는 이무기가 갖고 있는 여의주는 약한 자를 도와주면 생기는데, 이무기가 여의주를 세 개나 만들고도 승천하지 못 하자 바다 속 인물들은 이무기의 진정성을 의심하며, 이무기를 무시하기까지 한다. 하지만, 오늘이가 원천강에서 돌아와 톱상어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필사적으로 도와주는 모습을 통해 바다 속 인물들은 이무기의 진정성을 깨닫게 된다. 집착과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채록본의 교훈에 진심으로 남을 도와주는 마음의 소중함을 깨우쳐 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채록본과 고쳐쓰기 교학사 최현숙본을 비교 분석하면 <표 4>과 같다. 이 이야기책은 채록본의 기본 서사를 유지한 채 12장의 각 장마다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창작하였다. 이 에피소드들은 아이들에게 옛이야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며, 시대에 맞는 교훈과 깨달음을 준다. 하지만, 응축적이고 압축적이었던 짧은 서사에 너무나 많은 결가지들을 펼치고 있어 채록본의 원 서사의 내용이 산만해지고 있는 단점이 있다. 또한, 작가가 원형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에서 새로운 내용을 창작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러한 새로운 내용들이 오히려 서사무가 원작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채록본과 '고쳐쓰기 교학사본'의 비교 분석

	채록본	교학사본
서사	8쪽 분량의 짧은 서사.	165쪽의 긴 서사. 12장의 구성으로 각 장마다 새로운 에피소드들이 창작됨.
배경	사계절이 모두 모여 있는 곳으로 시간의 본원이 되는 우주적 공간으로 그려짐.	'사계절의 공간'으로 그려짐.
인물	오늘이는 길안내 해 준 존재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공업으로 인해 원천강을 체험한 후 인간세상에 강림하여 인간들을 도와 줌.	오늘이가 사계절을 다스리는 신이 되기는 하나, 그것이 길안내 해 준 존재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공업때문이라 아니라 하늘나라 존재로부터 부여받은 수련의 과제 해결 때문으로 그려짐.
		여러 신들 및 도깨비, 다람이, 유선이 등의 다양한 인물들이 창작됨.
	매일 글만 읽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 고민하던 장상과 매일이는 두 사람의 결합으로 인해 존재론적 고민을 해결함.	장상과 매일이의 결합은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함.
	더 많은 꽃을 피우고 용이 되고자 고민하던 연꽃남기와 천하대사는 욕심과 집착에서 벗어날 때 고민을 해결함.	채록본의 의미보다 연꽃남기와 천하대사의 에피소드를 통해 더 많은 교훈을 전달하고자 함.

나. 키움본

1) 서사

이 이야기책은 표지에 '전통문화 창작동화'라고 먼저 밝히고 있는 고쳐쓰기 이야기책이다. 전통 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동화책 창작을 목적으로 하기에 서사적 변용도 모든 이야기책들 중 가장 많이 일어났다.

서사 내용을 단락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강림들에 오늘이가 학과 함께 살고 있다.
- ② 오늘이가 숲으로 놀러 갔더니 숲의 계절 친구들이 기운이 없었다.
- ③ 오늘이가 마을로 내려가 보았더니 사람들이 날씨에 대한 불만을 쏟아 놓는다.
- ④ 사람들의 불평소리로 인해 강림들에 날씨가 사라져 버렸다.
- ⑤ 사람들이 오늘이에게 하늘나라에서 계절을 다스리는 부부를 찾아가 계절을 돌려 달라 부탁해 보라 한다.
- ⑥ 부부는 오늘이에게 사라진 계절을 찾기 위해 다섯 자가 넘는 연꽃과 3천년 된 여의주를 구해 오라 한다.
- ⑦ 흰모래땅에 떨어진 오늘이는 장상도령을 만나 고민을 듣는다.
- ⑧ 꽃이 한 송이밖에 없다고 투덜거리다 쪼글쪼글해진 할머니 연꽃을 만난다. 오늘이는 할머니를 위해 잎을 닦고 진드기를 잡아 주자 할머니 연꽃이 꽃을 꺾어 준다. 그러자 연꽃이 흐드러지게 핀다.
- ⑨ 배필을 구하려고 책만 읽었다는 매일이를 만난다. 오늘이가 장상도령과 배필이 된다면 좋겠다 간절히 바라니 장상도령이 나타나 두 사람이 배필이 된다.
- ⑩ 울고 있는 선녀들을 도와주자 선녀들이 하늘나라로 돌아간다.
- ⑪ 청수바다에서 3천년 동안 굶주린 이무기를 만난다. 오늘이가 물고기를 잡아

주자 이무기가 감사의 의미로 3천년 된 여의주를 준다. 그러자, 이무기가 용이 되어 승천한다.

- ⑫ 강림들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아온다.
- ⑬ 오늘이가 연꽃과 여의주를 가지고 학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자, 하늘나라 부부가 오늘이 부모임을 밝힌다.
- ⑭ 오늘이는 4계절을 다스린다.

우선 이 이야기책의 서사는 오늘이가 자기 존재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스스로 여행을 떠나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다는 채록본의 서사가 완전히 사라졌다. 이 이야기책에서 원천강을 찾아 떠나는 오늘이의 모험은 오늘이 스스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계절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오늘이가 스스로 선택하여 쌓은 공업으로 인해 오늘이가 마지막에 선녀가 되어 좌정하는 결말에 대한 감동을 이 이야기책에서는 느낄 수 없다. 이 이야기책에서는 오늘이의 자아정체성 찾기의 과정보다 사람들에 의해 사라졌던 계절을 오늘이가 되찾아 오는 모험에 더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즉, 이 책은 <원천강본풀이>의 모티브를 차용해 현재 가장 문제시되는 자연과 파괴와 그 극복을 주제로 한다. 그래서, 이 이야기책의 서사는 강림들에 계절이 사라지는 것에서 시작되어 강림들에 계절이 다시 찾아오는 것으로 끝난다.

<12> 계절을 되찾은 강림들의 웃음소리가 하늘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키움 허난희본, 34면)

그리고, 인물간의 관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서로에게 길잡이가 되어 주는 채록본의 상호 조력의 유기적 서사도 이 이야기책에서는 바뀌었다. 그래서, 이야기 흐름에 있어 개연성이 없다. 채록본에서 각 인물들은 오늘이의 원천강 찾기에 길잡이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 이야기책에서는 한 인물을 만난 다음 그 인물로부터 다음 인물에 대한 안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연꽃과 여의주를 찾아가다 모두 우연히 만나는 것으로 그려진다. 인물을 만나는 순서도 채록본에서는

장상도령, 연꽃남기, 천하대사(天下大蛇), 매일이, 선녀 순이었는데 이 이야기책에서는 장상도령, 연꽃, 매일이, 선녀, 이무기 순이다. 이 이야기책에서는 모험을 마치기 위해서 연꽃과 여의주 획득이 필요하기에 여의주를 획득할 수 있는 이무기를 마지막 인물들로 설정해 놓았다. 오늘이가 날씨를 되찾기 위해서 연꽃과 여의주 획득이 과제이기에 사실 연꽃과 이무기를 제외한 다른 인물들은 이 이야기의 서사에서는 불필요하다. 즉, 이 이야기는 채록본 인물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채록본의 인물들을 무조건 차용하여 창작한 듯한 인상을 남긴다.

2) 배경

이 이야기책에서 원천강에 대한 구체적 묘사의 내용은 없다.

<12> “옛날부터 전해지는 이야기인데 하늘나라에는 계절을 다스리는 부부가 있다고 들었소. 찾아가 보면 어떻소.”
오늘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키움 허난희본, 12면)

다만, 계절이 사라져 버리자 사람들이 오늘이에게 하늘나라에서 계절을 다스리는 부부를 찾아가보라 부탁하는 말에서 채록본의 원천강처럼 계절을 다스리는 공간으로 하늘나라를 설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인물

가) 오늘이

오늘이가 사계절을 다스리는 존재가 된다는 설정은 다시쓰기 이야기책들과 비슷하다. 하지만, 오늘이가 이러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채록본 및 다시쓰기 이야기책들에서는 원천강에 가서 여러 인물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해답을

가지고 오는 공업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이야기책에서는 단지 연꽃과 여의주의 획득 때문으로 못 박고 있다.

<12> 오늘이는 학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오늘아, 네가 자랑스럽구나. 연꽃과 여의주를 얻었으니 너는 4계절을 다스리는 선녀가 될 것이다.” (키움 허난희본, 33면)

그리고, 채록본 및 다른 이야기책들에서는 오늘이가 원천강을 다녀오기 전에는 인물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능력을 가지지 못했다. 하지만, 이 이야기책에서는 오늘이의 작은 도움으로 인물들의 고민은 그 자리에서 해결된다.

<12> “좋은 배필을 구하려고 10년 동안 책만 봤는데 아직도 답을 모르겠네요.”

매일남자가 쓸쓸하게 말했어요.

‘장상도령이 매일남자의 배필이 된다면 좋을 텐데...’

오늘이는 간절하게 바랐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거센 바람이 일더니 매일남자가 사라지는 게 아니겠어요.

매일남자가 눈을 뜨자 앞에는 늙은 장상도령이 서 있었어요. (키움 허난희본, 24면)

이렇게 오늘이는 처음부터 특별한 아이로 설정되어 있다.

<12> 사람들은 오늘이를 찾아가 계절을 찾아 달라고 부탁했어요. 오늘이는 무언가 특별한 아이였으니까요. (키움 허난희본, 11면)

채록본이 서사무가로서 오늘이가 신으로 좌정하는 이야기라면, 이 이야기책은 날씨와 친구가 될 수 있고 마음속으로 바라는 것만으로 인물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특별한 아이 오늘이의 날씨 찾기 모험담으로 바뀌었다.

나) 오늘이와 접속하는 인물들

(1) 장상과 매일이

장상과 매일은 채록본처럼 한 자리에서 글만 읽고 있는 인물로 등장한다. 그리고 두 사람은 오늘이의 간절한 바람으로 두 사람이 결합함으로써 고민을 해결한다.

그런데, 채록본에서 장상도령은 책을 읽는 자신의 운명에 대한 존재론적 고민을 하는 인물이었음에 반해 여기서는 단지 책을 읽는 것을 갑갑해 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12> “ 그럼 내가 언제까지 여기서 책을 읽어야 하는지 알아봐 주겠소? 10년째 책만 읽었더니 갑갑해 죽겠소.” (키움 허난희본, 16면)

그리고, 여기서는 채록본과 달리 매일이가 글을 읽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다.

<12> “좋은 배필을 구하려고 10년 동안 책만 봤는데 아직도 답을 모르겠네요.”
(키움 허난희본, 22면)

채록본에서는 글을 매일 읽는 자신의 운명에 대한 존재론적 고민이라면, 이 이야기책에서는 다만 배필을 구하기 위한 고민으로만 한정한다. 이들은 배필을 구하기를 바라는 매일이를 보고 오늘이가 장상도령과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자 금방 만나게 된다. 자기 존재론적 고민에 빠져 관계 맺지 못하고 결핍된 채 살아가는 남, 여가 만남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채록본의 상보성의 의미는 사라진 채 단순히 이 이야기책에서는 매일이의 배필찾기의 소망에 대한 남, 여의 만남으로만 끝나고 있다.

(2) 연꽃과 이무기

채록본처럼 욕심과 집착이 결핍의 원인인 인물로 그려지지만, 채록본과 달리 연꽃과 이무기의 문제 해결은 장상과 매일이처럼 오늘이의 작은 도움으로 해결된다.

연꽃은 다섯 자가 넘는 꽃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송이밖에 없다고 투덜거리자 시들어 할머니가 되고 말았다. 오늘이가 연꽃 할머니를 위해 물을 주고 잎을 닦으며 진드기를 잡아주자 연꽃 할머니는 연꽃이 필요한 오늘이에게 꽃을 꺾어 준다. 그러자, 연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난다.

이무기는 3천년 동안 여의주를 물고 있어 굶주려 있다. 그런 이무기를 위해 오늘이가 큰 물고기를 잡아 주자 이무기는 3천년 된 여의주가 필요한 오늘이에게 여의주를 준다. 그러자, 이무기가 용이 되어 하늘 높이 솟구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채록본과 고쳐쓰기 키움본을 비교 분석하면 <표 5>와 같다. 이 이야기책은 모든 이야기책들 중 가장 많이 신화소(神話素)들이 변형되었다. 이 이야기책은 출판사 키움이 ‘전통문화 창작동화’ 시리즈를 기획하며 “야무진 절굿공이가 되어 흩어져 있는 옛 이야기를 모아 차지고 맛깔나게 만든 이야기, 아이키움 옛 이야기 시리즈입니다.”라며 원작과 달리 변형한 이유를 서문에 밝히고 있다. 그런데, 앞의 분석 결과 이 변형된 서사 내용이 기획의도처럼 채록본이 가진 내용을 보다 찰지게 재구성했다는 생각을 갖긴 힘들다. 그리고, 아직 우리 옛이야기에 대해 많이 생소한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그림책에서 이러한 과감한 이야기 변형이 과연 옳은지 우선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다. 변형된 옛이야기를 읽고 자란 아이들이 그것을 옛사람의 이야기로 알고, 일그러진 형태로 후손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크기에 바람직하지 않다.

<표 5> 채록본과 '고쳐쓰기 키움본'의 비교 분석

	채록본	키움본
서사	오늘이가 원천강을 찾아가는 여행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서사 속에서 각 인물들이 상호조력을 통해 서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서사로 이루어짐.	오늘이가 계절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 계절을 찾기 위해 필요한 연꽃과 여의주를 구하는 모험담의 서사 속에서 채록본에 등장하는 각 인물들을 만나는 서사이나 각 인물들의 상호조력적 내용은 빠져 있음.
배경	사계절이 모두 모여 있는 이계(異界)의 공간으로 시간의 본원이 되는 우주적 공간으로 그려짐.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은 없으나, 내용상 원천강이 계절을 다스리는 공간으로 추측됨.
인물	오늘이는 여러 인물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공업으로 인해 여신으로 좌정함.	특별한 아이 오늘이가 모험으로 통해 얻은 연꽃과 여의주로 선녀가 되고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계절을 되찾아 줌.
	매일과 장상의 만남은 연대하는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며, 이들의 고민은 오늘이가 원천강 체험을 통해 얻은 부모님의 해답으로 해결됨.	매일과 장상의 만남은 매일이의 배필찾기의 소망에 대한 해답으로만 그려지며, 이들의 고민은 오늘이의 간절함 바람으로 해결됨.
	연꽃남기와 천하대사의 고민은 오늘이가 원천강 체험을 통해 얻은 부모님의 해답으로 해결됨.	연꽃과 이무기의 고민은 오늘이의 작은 도움으로 해결됨.

3. 신화소를 살리는 서사무가의 동화화

<원천강본풀이>가 이야기책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분석해 본 결과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현암사본을 제외하고는 다시쓰기, 고쳐쓰기 이야기책 모두 유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서사무가가 동화화되어 출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천강본풀이>를 비롯한 서사무가는 우리 민족의 고유 신앙인 무(巫)에 대한

일반인들의 편견과 선입견으로 인해 이야기책으로 동화화 되는 일이 드물었다.⁷⁴⁾ 하지만, 이러한 편견은 최근 한국인들이 전통문화의 가치를 인식하게 되고, 문화적 유산의 계승 전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굿이 전통문화로 인정되면서 TV, 연극무대, 대학 캠퍼스 등에서 공공연하게 행하여지기도 하고, 많은 무당들이 인간문화재로 대접받는다.⁷⁵⁾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서양의 신화에만 노출되어 정작 우리의 전통적인 신에 대해서는 무지한 현실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문화적 추세의 영향으로 출판계에서도 서사무가를 동화화한 이야기책들을 출간하기 시작하였다. 서사무가가 동화화 된 대표적 사례는 1999년에 서사무가 8편을 한겨레 신문사에서 『한겨레 옛이야기』라는 전래동화집으로 기획, 출간하면서 5편의 책으로 출간된 일이다.⁷⁶⁾ 이 때 <원천강본풀이>의 ‘오늘이’도 엄혜숙 작가에 의해 4권의 주인공으로 처음 세상에 동화화 되어 소개되었다. 1999년 이후 신화를 바탕으로 한 ‘해리포터’ 등 문화콘텐츠들이 세계적으로 성공하면서 우리도 우리 신화에서 문화콘텐츠의 원형을 찾아보자는 움직임이 일면서 우리 신화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폭되었다. 서정오 선생님께서 2003년에 현암사에서 <원천강본풀이>를 비롯한 우리 무속신화 21편을 엮어서 출간한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신화』는 2012년까지 25쇄를 찍어낼 만큼 인기를 얻었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원천강본풀이>의 ‘오늘이’를 비롯한 서사무가 속 주인공들이 유아전래동화전집의 한 주인공으로 계속하여 동화화 되어 이야기책으로 출간되었다. 그리고, 2009년에 한겨레에서 1999년에 출판된 8편의 신화를 재조정하여 새롭게 다시 출간하였다. ‘오늘이’도 유영소 작가에 의해 2009년에 새로운 모습으로 탄

74) 문화인류학자 조홍윤은 무(巫)의 수난사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무(巫)가 조선조 때 천시된 것 외에도 일제 강점기 때 민중의 종교로서 박해의 대상이 되었던 점, 그리고 해방 이후 서구식 내지 기독교적 가치관에 의하여 비합리적인 미신으로 낙인찍혀 온 사실은巫 신앙의 바른 이해를 끊임없이 저해하였다.” (조홍윤, 『한국 巫의 세계』, 민족사, 1997, 25면)

75) 김환희, 앞의 논문, 35면.

76) 5권은 다음과 같다.

1권 - 창조의 신 소별왕 대별왕/ 아기의 신 삼신할매 당금애기, 2권 - 영혼의 수호신 바리공주
3권 - 농사와 사랑의 여신 자청비, 4권 - 사계절의 신 오늘이/ 서천꽃밭 꽃감관 한락궁이
5권 - 염라국 저승사자 강림도령/ 한라의 영웅 궤네깃또

생하게 되었다.⁷⁷⁾

그런데, 서사무가를 동화화하여 이야기책으로 출판하는 것이 이렇게 최근에서야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사무가라는 장르에 생소한 동화 작가들이 서사무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하지 않은 채 동화화하면서 이 이야기책들이 원작의 장르적 특성과 가치를 담아내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김환희는 서사무가 <바리공주>와 동화화 된 이야기책 <바리공주>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무(巫)의 세계관과 서사무가의 예술성이 어떻게 계승 전달되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동화화 된 이야기책 모두 서사무가 <바리공주>의 장르적 특성을 제대로 살리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오늘날의 작가들이 오랫동안 천시되어 온 무속문화에 관심을 지니고 이를 일반 독자들에게 읽기 쉬운 형태로 소개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무속문화의 전통을 제대로 계승 전달하기 위해서는 현대 작가들이 무(巫)에 대한 선입관과 편견을 극복하고, 무(巫)의 세계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⁷⁸⁾ 본고에서도 <원천강본풀이>를 대상으로 한 이야기책들이 서사무가의 특성을 살리지 못한 채 채록본의 신화소(神話素)들이 원작과 다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음을 III. 1, 2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채록본과 이야기책 사이에 이런 차이가 발생한 것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야기책 작가들이 서사무가 <원천강본풀이>의 특성과 가치를 분석하지 못한 채 동화화 한 데서 발생하였다. 그런데, ‘오늘이’를 동화화한 이야기책에서는 ‘바리공

77) “한겨레 옛이야기 신화편 다섯 권은 1999년 초판 발간 당시 바리공주, 자청비 등 우리 구비신화의 캐릭터들을 어린이들에게 처음 소개함으로써 출판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다섯 권의 책은 어린이들에게 우리에게도 그리스 로마 신화 못지않은 창세 신화가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이후 10년 동안 우리 신화에 대한 관심은 폭넓게 확산되어 왔습니다. 신화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콘텐츠의 원형이라 할 만합니다. 연구자들 뿐 아니라 어린이책 작가들도 창작을 뒷받침할 무한한 원천으로 우리 신화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겨레 옛이야기 신화편도 그러한 성과에 발맞추어 글과 그림을 대폭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이번에 펴내는 5권에는 지난 10년간 독자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아이템을 재조정해 총 8개의 신화를 5권에 담았습니다. ‘바리공주’와 ‘자청비’ 등 호흡이 긴 이야기는 한 권에 하나씩 담아 서사의 깊이를 오롯이 느끼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소별왕 대별왕’ ‘당금애기’ ‘오늘이’ ‘한락궁이’ ‘강림도령’ ‘퀘네깃또’ 등이 새로운 모습으로 각 권에 담겼습니다.”

(2009 한겨레 옛이야기 신화편 세트 책 소개글 - <https://www.navibook.co.kr/>)

78) 김환희, 앞의 논문, 67면.

주'를 동화화한 이야기책 보다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김환희는 '바리공주'를 동화화 한 책이 서사무가의 많은 화소(話素) 내지 신화소(神話素)를 변형시켰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 바리가 결국 죽은 영혼을 천도하는 신이 된다는 바리의 신격은 서사무가와 동일하게 이야기책에서도 그려지고 있다. 하지만, 본고의 Ⅲ. 1, 2에서 살펴본 바 <원천강본풀이>의 오늘이는 가장 중요한 오늘이의 신격이 채록본과 다르게 이야기책에서 그려지고 있다. Ⅱ장에서 <원천강본풀이>에서의 오늘이는 원천강을 체험함으로써 사계절의 순환적 원리를 깨달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결국 인간 세상에 강림하여 사람들에게 원천강을 등사하게 하여 그들을 지금 현재 오늘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신이 된다. 하지만, Ⅲ. 1, 2의 분석을 통해 다시쓰기 및 고쳐쓰기 이야기책 12종 중 7종의 이야기책에서 오늘이를 단지 '사계절을 다스리는 신'으로서만 그리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 이야기는 여러 이본을 가진 다른 서사무가와 달리 하나의 채록본만을 바탕으로 쓰여졌다.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오늘이의 신격이 채록본과 다르게 계속하여 쓰여진다는 것은 이야기책 작가들이 원 서사무가의 작품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하지 않은 채 기존의 이야기책 작품만을 참고로 하여 이와 유사하게 표현만 달리하여 썼기 때문이다. 이야기책 작가들이 채록본에 대한 철저한 분석 없이 앞서 출간된 이야기책들을 참고로 하여 출간한다는 것을 키움 허난희 본에서 연꽃을 묘사한 부분을 통해서 단편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아동문학작가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서정오는 2003년에서 출간된 현암사본에서 채록본에서는 묘사되지 않은 연꽃의 크기를 아무런 근거를 덧붙이지 않고 닳자라 묘사하였다.

<3> 그 연꽃에 크기가 닳 자나 되는 큰 연꽃이 있더라. (현암사 서정오본, 46면)

그런데, 2008년도에 출간된 고쳐쓰기 키움 허난희본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묘사를 그대로 가져다 쓰면서, 각주를 달아 다섯 자는 약 151.515cm라고 설명까지 단다.

<12> “ 오호, 그래? 그럼 다섯 자*가 넘는 연꽃과 3천년 된 여의주를 구해 오너라.”

*다섯 자 : 약 30.303cm를 한 자라 여겼어요. 다섯 자는 약 151.515cm정도랍니다.

(키움 허난희본 14면)

서정오 작가가 연꽃이 왜 다섯 자인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밝히지 않았음에도 채록본에 없는 부분을 굳이 똑같이 가져 온다는 것은 작품을 창작할 때 채록본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앞선 서정오의 이야기책 작품만을 참고로 하였다는 것을 보여 주는 한 예라 할 수 있다.

이야기책 작가들의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원천강본풀이>의 오늘날은 원래 자신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오늘날 전해지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1999년에 ‘오늘이’가 처음 동화화되면서 ‘사계절의 신’으로 그려지자 그 뒤 이야기책 작가들에 의해 계속하여 거의 똑같은 모습으로 답습된 것이다.

그런데, 이 작품이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⁷⁹⁾에 실리면서 이러한 오늘날의 모습은 더욱 고정화되어 버렸다. 2010년부터 초등학교 교과서 역사상 처음으로 서사 무가가 실리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원천강본풀이>의 ‘오늘이’로 『읽기』(3-1) 교과서 156~163면에 수록되었다. 이 이야기는 대교 신순재본 「사계절을 선물하는 선녀」 이야기책을 집필진이 교과서 체제에 맞게 손질한 것이다. 그런데, 이 작품은 교과서로 수록되면서 분량이 대폭 축소되었다. 교과서에 실려 있는 본문 내용은 요약해 보면, 강림들에 살던 아이가 낳아주신 부모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 마을의 할머니에게 물어본 다음 원천강을 찾아가는 여정에 올라 장상도령, 연꽃나무, 이무기, 선녀들을 만난다. 선녀들을 만나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데, 선녀들이 원천강까지 데려다주면서 이야기가 끝이 난다. 교과서 수록본에서 매일이란 이름은 삭제되었고, 오늘이가 원천강을 체험한 후 되돌아와 조력자들을 보답하는 채록본의 후반부는 전부 생략되었다. 이런 생략과 후반부를 통째로 덜어낸 결말은 길안내를 해 준 조력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 그들을 행복하게 해 주는 오늘이 신의 공업담을 모두 사라져 버리게 만들었다. 교과

79) 교육과학기술부,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읽기 3-1』, 교육과학기술부, 2010.

서 수록본의 내용만을 살펴보면 이 이야기는 한 소녀가 고생 끝에 부모를 만나 행복하게 산다는 일반적인 옛이야기로 교사 및 학생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서사무가의 특성을 전혀 찾을 수 없다. 이 텍스트를 통한 활동들 또한 서사무가의 특성을 고려한 활동들이 아니다.⁸⁰⁾ 그런데, 교사용 지도서에 신동훈의 『살아있는 우리 신화』의 책을 참고했다면서 “이 이야기는 계절을 대표하는 신에 대한 내용⁸¹⁾”이라고 뜬금없이 해설하고 있어 서사무가를 처음 가르치는 교사를 혼란에 빠트린다. <원천강본풀이>를 처음 접하는 교사들은 이러한 해석을 의심할 여지없이 받아들여 아이들에게 반 토막 난 교과서 내용만으로 어설픈 오늘이가 ‘계절의 신’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교과서 삽화 또한 신순재본 「사계절을 선물하는 선녀」의 삽화가 아닌 앞으로 살펴 볼 이성강 애니메이션 <오늘이>의 그림을 모방해 수록하면서, ‘오늘이’는 여신으로서의 모습이 아닌 천진난만한 아이의 모습으로 신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르게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⁸²⁾ 즉, 아이들에게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교과서에서 <원천강본풀이>의 ‘오늘이’는 채록본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아동들을 만나고 있다. 교과서에 수록된 이후 이 이야기는 거인 유다본에서 『국어가 재밌어지는 3학년 맞춤 전래 동화』 <기원을 알려주는 옛이야기>로 급기야 사계절의 기원 신으로 못 박혀 자리하게 되었다.

서사무가를 동화화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우리 신에 무지한 아이들에게 우리 신의 모습을 알려 주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오늘이’는 본래 가지고 있는 신의 모습과는 다르게 동화화 되면서 급기야 가장 신뢰성이 뒷받침되어야 할 교과서에서 가장 엉망으로 수록되고 말았다. 이렇게 오늘이가 채록본과 다른 모습으로 자리하게 된 것은 이야기책 작가들의 채록본에 대한 잘 못된 해석과 서사무가에 대한 장르 이해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서정오 작가의 두 이야기책의 해석은 좀 다른 방향에서 살펴 볼 수 있

80) 단원 차시 목표는 오늘이가 부모님을 찾아 원천강으로 가는 차레를 생각하며 ‘오늘이’를 읽는 것으로 ‘차레 만들기’를 위해 일어난 일을 간추리는 관련 활동이 함께 제시되어 있다.

81) 교육과학기술부, 교사용 지도서 초등학교 『국어 3-1』, 교육과학기술부, 2009, 257면.

82) 여기에 대한 분석은 IV.1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다. Ⅲ. 1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암사 서정오본은 다시쓰기 이야기책 9종 중 유일하게 오늘이가 ‘인간 땅에 내려와 절마다 다니면서 원천강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 내는 일도 맡아 보았단다’라며 채록본의 서사와 같이 마무리 짓는다. 그런데, 이것은 서정오 작가가 쓴 봄봄본의 결말과는 차이를 보인다.

<4>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늘나라 옥황궁에 올라가 선녀가 되었단다. (봄봄 서정오본, 34면)

같은 작가가 쓴 ‘다시쓰기’ 이야기책들이지만 현암사본은 9종 중 유일하게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글 중심의 이야기책이고, 봄봄본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그림 중심의 동화책이다. 그러므로, 작가는 앞의 논의의 작가들과는 달리 채록본을 바탕으로 분석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상독자에 따라 결말 내용을 일부러 달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마도 작가가 ‘원천강 이야기책’이 인간의 사주팔자를 다룬 점서(占書)이기에 아동들에게 부적절한 내용일 것이라 판단하여 동화화한 봄봄본에서는 생략한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원천강 이야기책’을 생략하더라도 봄봄본에서 오늘이를 단지 하늘나라 선녀가 되는 것으로만 그리면서 이야기를 끝맺는 것 또한 옳은 것인지 의문이 든다. 봄봄본에서 <오늘이>란 제목 위에 ‘서정오 선생님이 들려주는 우리 신화’라며 이 이야기는 우리 신에 관한 이야기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런데, 오늘이가 옥황궁에 올라가 직능이 없이 단지 옥황상제를 모시는 하늘나라 선녀가 되는 것은 우리 서사무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기에 이것 또한 경계해야 할 해석이다.⁸³⁾ 우리 서사무가의 신들은 모두 제각기 직능을 가지고 인간들을 돕는 역할을 한다.⁸⁴⁾ 서사무가의 대표적 인물인 바라데기는 죽은 사람을 저승길로 이끌어주는 오구신이 되며, 자청비는 농사를 관장하는 신이 된다. 그런데, 오늘이만이

83) 웅진주니어 정하섭본도 오늘이가 선녀가 되는 것으로 이야기책을 마무리 짓는다.

<8> 오늘이는 하늘나라 왕인 옥황상제를 모시는 선녀가 되었단다. (34면)

84) 우리 신화의 대다수 주인공들은 그 자신 신(神)인 동시에 인간이다. 현재는 신이지만 원래 인간이었던 존재다. 인간으로 태어나 세상사의 고락(苦樂)을 겪어지고 해쳐내어 마침내 신으로 좌정한 그리하여 인간의 생사고락을 주재하게 된 존재다. - 신동훈, 앞의 책, 6면.

인간을 돕는 특별한 직능이 없이 단지 하늘나라에서 옥황상제를 모시는 선녀가 된다는 결말은 오늘이를 ‘사계절의 신’으로 한정지어 설명하는 것 보다 더 서사 무가의 특징을 살리지 못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Ⅲ. 1에서 웅진닷컴 조호상본은 채록본의 신화소(神話素)를 해석하여 동화화하는 데 있어 다른 이야기책들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다. 현암사 서정오 본을 제외한 8종의 다시쓰기 이야기책 중 유일하게 오늘이를 사계절의 신이나 하늘나라 선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는 신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

<2> 오늘이는 백씨 부인을 찾아가 고맙다며 여의주 하나를 주었어.

그러고 나서 한 손에는 꽃을 들고 또 한 손에는 여의주를 들고 하늘로 올라가 선녀가 되었지.

지금도 오늘이는 하늘에서 세상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살며시 내려와서 도와주고 간대. (웅진닷컴 조호상본)

웅진닷컴 조호상본은 이 이외에도 다른 이야기책들과 다르게 채록본의 신화소(神話素)들을 담아내고 있다. Ⅲ.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권호는 채록본의 ‘연꽃남기’와 ‘턴하대사(天下大蛇)’를 이야기책에서 ‘연꽃’과 ‘이무기’로 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을 펼쳤다.⁸⁵⁾ 그런데, 김권호의 의견에 앞서 2003년 출판된 이 책에서 ‘연꽃남기’를 ‘목련’으로 ‘턴하대사(天下大蛇)’를 ‘커다란 뱀’으로 이미 표기하고 있었다. 다시쓰기 및 고쳐쓰기 이야기책에서 천편일률적으로 그리고 있는 <원천강본풀이>의 ‘오늘이’를 이 작가만이 채록본의 의미와 가장 유사하게 그리고 있다. 오늘이가 인간 세상에 강림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그들을 행복하게 해 주는 여신임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동화책에서 유일하게 그리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작가가 채록본의 의미를 깊이 있게 연구하여 채록본을 동화화하였기에 가능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외에 Ⅲ.1에서 한겨레 유영소본도

85) 김권호, 앞의 논문, 71-73면.

비록 오늘이를 사계절의 신으로 그리고 있지만 다른 이야기책들과 달리 채록본의 신화소(神話素)의 의미를 살려 쓴 부분이 많았다. 원천강을 사계절이 머무는 공간에서 더 나아가 채록본처럼 시간의 본원이 되는 공간으로 그리고 있으며, 채록본에서 절정 부분에 해당하는 오늘이의 통곡 부분의 애절함을 잘 살려 표현하였다. 웅진닷컴 조호상 작가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오늘이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인간을 행복하게 도와주는 여신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사계절의 여신’으로만 받아들여야 했다. 그리고, 한겨레 유영소 작가로 인해 채록본의 원천강의 의미를 새롭게 되새길 수 있는 것이며, 오늘이의 애절한 통곡에 비로소 서사무가의 청중처럼 동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서사무가 뿐 아니라 옛이야기를 동화화하여 오늘날 이야기책으로 출간하는 일은 무엇보다 작가들의 원작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서사무가는 아직 대중들에게 낯선 장르이기 때문에 작가들은 더욱 서사무가의 장르적 특성을 살려 동화화 할 의무가 있다. 현대의 독자들은 특히 유아들은 옛 이야기를 동화책을 통해 수용하면서, 이 이야기책이 그려내는 세계가 원작의 모습과 같다 생각한다. 원작을 그대로 옮겨 쓰는 다시쓰기의 작가 뿐 아니라 원작을 가능한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새롭게 창작한다 밝히고 있는 고쳐쓰기의 작가 또한 그들의 손에 의해 우리의 옛이야기가 전해진다는 것에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창작에 임해야 할 것이다. 오늘이가 앞으로 ‘사계절의 신’의 모습을 넘어서 여러 존재에게 행복을 전해 주는 여신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느냐 아니냐는 <원천강본풀이>를 대상으로 동화화하는 작가들의 손에 달려 있다.

IV. 영상, 공연 매체로의 변용 양상

1. 현대 대중과 소통하는 애니메이션 <오늘이>

애니메이션 <오늘이>는 제주도 서사무가 <원천강본풀이>를 모티브로 제작된 16분 29초 정도의 단편 애니메이션이다. 서사무가가 영상매체 애니메이션으로 전환되기에 그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감독은 옛이야기의 느낌만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우선 이 애니메이션은 다른 애니메이션 작품들과 달리 우리나라 고유의 민화느낌의 회화 영상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배려와 나눔이라는 이 이야기가 지닌 따뜻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 영상의 색채는 대체로 파스텔풍이다. <그림 3>과 같은 파스텔풍 화풍은 '부드러운 느낌으로 친숙함을 주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⁸⁶⁾ 한다. 이것은 평소 '스타일에서는 회화를, 내용면에서는 내면을 추구한다는 작가적 철학'⁸⁷⁾을 이 작품이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3> 파스텔풍의 영상장면(애니메이션)



86) 홍은주, 「디지털 작업 과정으로 표현되어진 파스텔화 애니메이션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60면.

87) 박경희, 「이성강 감독 애니메이션의 미장센 스타일 체계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23면.

또한 영상과 더불어 음악에서도 옛이야기를 바탕으로 하는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해 우리나라 고유악기인 가야금, 양금, 해금 등의 선율을 주로 사용하였다.

감독은 이렇게 이 이야기가 바탕으로 삼고 있는 서사무가의 옛 느낌을 살리면서 서사 내용을 현대적으로 변용하였다. 작가는 이 작품의 변용 의도를 <작가의 말>을 통해 밝히고 있다.

<10> <오늘이>는 제주도 민간 신화이자, 계절 근원 신화를 뼈대로 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 제가 끄집어내려 했던 것은, 오늘이가 원천강을 떠났다 다시 찾아가는 여정을 통해 단순하지만,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충고입니다. 욕심과 집착에서 벗어날 때 사람들은 자신이 진정 원했던 것을 되찾고 자유로워진다는 그 충고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안이 되길 바랍니다. (문공사 이성강본, <작가의 말> 중 일부, 54면)

이 작품은 <작가의 말>을 통해 애니메이션이지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 욕심과 집착에 사로잡혀 사는 현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작가는 이야기의 초점을 여기에 두고 주인공이 여신으로 좌정하는 서사무가를 욕심과 집착에 사로잡혀 사는 현대인에게 메시지를 던져주는 현대의 영상 애니메이션으로 그 내용을 재탄생시켰다.

이 작품을 서사, 배경, 인물별로 내용의 변용 양상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가. 서사

채록본 <원천강본풀이>는 부모 즉 자신의 근원을 찾아 떠나는 구조라면, 애니메이션 <오늘이>는 행복의 원천이었던 고향 원천강으로 되돌아가려는 귀향의 서사이다.

그 구체적 내용을 서사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계절의 향기와 바람이 시작되는 곳, 원천강에서 별거숭이 오늘이는 보라색 여의주와, ‘야아’라는 학과 행복하게 살았다.

- ② 어느 날, 뱃사람이 여의주를 빼앗아 가다 오늘이가 잠에서 깨자 오늘이를 둘러 메고 간다.
- ③ 뱃사람이 쏜 화살 하나가 야아의 몸에 박히고 오늘이를 실은 배가 물에서 벗어나자, 원천강이 하얗게 얼어붙는다.
- ④ 폭우가 쏟아지고 고래가 나타나 뱃사람들을 차례로 삼켜 버린다.
- ⑤ 물으로 떠밀려 온 오늘이는 여의주와 함께 ‘야아’가 있는 원천강을 찾아 나선다.
- ⑥ 책으로 지어진 커다란 성에서 행복이 뭔지 알고 싶어서 수많은 책을 읽는다는 매일이를 만나 원천강 가는 길을 묻는다. 매일이는 연화꽃 연꽃에게 가보라고 한다.
- ⑦ 많은 꽃봉오리를 가졌는데 꽃이 한 송이밖에 피지 않아 슬프다는 연꽃을 만나 원천강 가는 길을 묻는다. 연꽃은 연잎 하나를 주며 사막에 있는 소년한테 주고 사막을 건너라고 한다.
- ⑧ 사막에서 구름이라는 소년을 만나 연잎을 건네자 구름이는 연잎으로 우산을 만들어 쓴 뒤 오늘이를 사막 끝까지 데려다 주며 이무기를 만나라고 한다.
- ⑨ 오늘이는 이무기를 만나기 위해 울창한 숲길에 들어가다 늑대에게 쫓기게 된다.
- ⑩ 이무기가 나타나 늑대를 잡아먹으며 많은 여의주를 가지고도 용이 되지 않는다는 한탄한다. 오늘이가 원천강에 데려다 달라 부탁하자 그 뱃가로 오늘이가 가진 여의주를 달라고 한다.
- ⑪ 오늘이는 이무기를 타고 얼음으로 뒤덮힌 원천강에 도착하여 얼음 속에 갇힌 야아를 보고 눈물을 흘린다.
- ⑫ 그 때, 이무기가 여의주 하나를 떨어뜨리자 얼어붙은 땅이 갈라져 버려, 오늘이가 벼랑 밑으로 떨어질 위기가 처한다.
- ⑬ 오늘이를 구하려고 품고 있던 여의주를 모두 버린 이무기는 오늘이를 구하고 마침내 용이 된다.
- ⑭ 용이 뱀은 불길에 얼어붙었던 원천강이 녹기 시작하고 얼음 속에 갇혀 있던

야아도 날개짓을 하며 살아나는데, 그만 원천강에 불이 붙고 만다.

- ⑮ 용은 사막에 있던 구름이의 비구름을 몰아다 불을 끈다. 그 바람에 구름이는 날아가다 연꽃을 잡게 되고 위에 피었던 연꽃을 꺾게 된다. 그러자 연꽃에 연꽃들이 다투어 피어나고, 연꽃과 함께 날아가던 구름이는 매일이가 있는 성에 도착한다. 구름이가 연꽃을 매일이에게 건너자 매일이가 구름이에게 뽀뽀하며 둘은 포옹한다.
- ⑯ 마침내 오늘이는 야아를 만나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무기는 세 개의 달이 빛나는 하늘 저편으로 날아간다. 오늘이는 이무기에게 인사한다.

II장에서 채록본 <원천강본풀이>의 서사는 크게 자아정체성을 확립해가는 여행담의 서사와, 상호조력을 통한 문제 해결의 서사 두 축으로 이루어진다고 논했다. 애니메이션 <오늘이>는 자아정체성을 확립해가는 여행담의 서사 내용 축은 빠져 있다. 채록본에서 오늘이는 부모를 찾아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자 하는 욕구에서 여행을 시작하여 자신의 근원을 찾고 신이 되어 자아정체성을 확립한다는 구조인데, 애니메이션 <오늘이>에서 오늘이는 자신이 누구인지 전혀 궁금해 하지 않는 천진난만한 아이 그대로이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냥 그대로 행복했던 태초의 별거숭이 오늘이로 다시 돌아가고자 한다. 친구인 야아와 행복했던 공간, 행복했던 시간이 있는 원천강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에서 여행을 시작하고 그것을 찾음으로서 여행을 마치는 구조이다. 유토피아와 같은 원천강에서 마냥 행복하게만 살아가던 별거숭이 아이 오늘이가 사람들의 이기심으로 그곳을 떠나게 되어 세상 속에서 여러 인물들과 관계를 맺으며 그들의 도움으로 다시 그곳으로 회귀하는 구조이다.

하지만, 채록본 서사의 또 다른 축이었던 상호조력을 통한 문제 해결의 서사 구조는 채록본과 유사하게 유지하고 있다. 애니메이션 <오늘이>에서도 오늘이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매일이, 구름동자, 이무기는 결핍을 지닌 인물들로 자신의 존재에 대해 고민하는 인물들이다. 서로의 고민해결은 채록본처럼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관계 맺음으로 해결된다. 오히려 이 관계 맺음으로 인한

고민해결 서사는 채록본보다 더 유기적으로 이루어진다. 채록본 <원천강본풀이>에서 인물들의 고민은 천상의 존재 오늘이 부모님으로 해답을 듣고 오늘이 가 일일이 그들을 다시 찾아가 가르쳐 준다. 하지만 애니메이션 <오늘이>에서는 인물들의 각기 다른 고민의 해답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해결된다. 위험에 빠진 오늘이를 구하려고 이무기가 여의주를 버리자 용이 되고, 용이 된 이무기가 원천강에 난 불을 끄기 위해 구름이 머리 위에 있는 구름을 채 가자 구름이는 드디어 항상 자신을 따라 다니던 구름으로부터 자유가 된다. 구름으로부터 자유가 된 구름이는 날아가 연꽃을 따게 되고 연꽃은 무성한 꽃을 피운다. 구름이가 연꽃을 타고 매일에게 날아가 연꽃을 건네자 구름이와 매일이는 포옹하며 구름이와 매일이는 행복을 찾는다. 오늘이를 만나기전 매일이, 연꽃, 구름이, 이무기는 자신의 고민에 갇혀 다른 인물들과 관계 맺지 못한 채 홀로 살아가는 외로운 인물들이다. 하지만 오늘이를 통해 관계 맺음이 시작되고, 자신에게 올라 미처럼 씌어져 있던 고민도 서로와의 관계맺음으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해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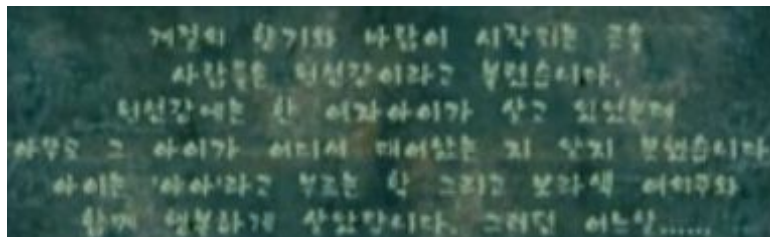
채록본에서 결핍된 존재들이 연대하여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다른 인물들을 통해 채워나가 꼬리를 물듯이 이어졌던 상호조력을 통한 문제해결의 서사구조가 애니메이션 <오늘이>에서도 이어졌다. 이것은 작가가 의도한 것처럼 욕심과 집착 때문에 이웃과 연대하지 못하는 현대인의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에 교훈을 줄 수 있는 메시지라 생각된다.

나. 배경

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록본에서 배경이 되는 원천강은 천상의 존재인 오늘이 부모가 살고 있는 시간의 본원이 되는 신화적 신비공간으로, 강림들에서 솟아난 오늘이가 이 원천강을 체험함으로써 행복을 전해주는 신이 될 수 있었다.

애니메이션 <오늘이>에서도 <그림 4>의 첫 장면의 자막의 설명(‘계절의 향기와 바람이 시작되는 곳을 사람들은 원천강이라 불렀습니다.’)처럼 원천강은 인간들이 살고 있는 세계와는 다른 신비한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림 4> ‘원천강’을 설명하는 자막 (애니메이션)



하지만, 이곳은 신이 관리하는 신의 공간이 아니라 절대 행복과 평화가 머무는 낙원의 공간으로 그려진다. 오늘이는 뱃사람들에게 끌려가기 전까지 이곳에서 태초의 인간인 아담과 이브처럼 벌거숭이인 채로 학과 여의주와 행복하게 지낸다.⁸⁸⁾ 이렇게 원천강은 ‘오늘이’ 인간과 ‘학’ 동물과 ‘여의주’ 사물이 모두 평화롭게 공존하는 낙원과 같은 곳이다. 이 낙원의 평화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깨진다. 어느 날 뱃사람들이 나타나 여의주를 빼앗고, 아아에게 화살을 쏘고, 오늘이까지 잡아간다. 인간에 의해 낙원이 침입 당하자 원천강은 얼어붙고 낙원은 상실된다. 절대 평화와 행복이 머무는 낙원을 파괴한 것은 인간의 욕심 때문이다. 그런데 원천강을 파괴시킨 인간은 다시 자연에 의해 심판받는다. 인간들이 물으로 닿기 전 바다에 큰 파도가 일더니 배는 공중에 내동댕이쳐지고 고래가 나타나 뱃사람들을 하나 둘 차례로 삼켜 버린다. 홀로 물에 도착한 오늘이가 여러 인물들을 만나 그들과 관계 맺으면서 원천강에 돌아오자 얼어붙었던 원천강은 다시 낙원의 공간이 된다. 오늘이를 통해 인물들이 욕심과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관계 맺는 연대의 삶이 이루어지자 원천강이 다시 낙원의 공간으로 되

88) 오늘이는 뱃사람들에게 끌려가기 전까지는 원천강에서 옷을 입고 있지 않다. 오늘이가 뱃사람들에 의해 끌려가는 순간 오늘이에게 옷이 입혀진다.

돌아 온 것이다. 이는 우리 인간들이 욕심으로 인해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고 오늘이와 그 외 등장인물들처럼 서로 돕고 의지하여 다시 평화롭고 행복한 세계로 되돌아가자는 의미로 읽을 수 있다.

다. 인물

1) 오늘이

채록본에서 ‘오늘이’는 부모를 떠나는 여행에서 여러 인물들을 도와주는 공업으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신이 되었다. 하지만, 애니메이션 <오늘이>에서 오늘이는 신이 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채록본처럼 오늘이는 오늘이와 접촉하는 인물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다른 이들과 관계 맺지 못한 채 홀로 외로이 살아가는 인물들에게 오늘이라는 존재가 나타나 비로소 관계가 시작되고, 이 관계맺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갖고 있는 삶의 고민도 해결된다. <애니메이션> 오늘이는 이렇게 신이 아니지만 채록본처럼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은 그대로 지녔다. 이것은 애니메이션 오늘이의 때문이 아닌 순수함 때문이다. 오늘이는 원천강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은 어린 아이이지만 낯선 인물들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만나는 인물들의 고민에 진심으로 귀 기울일 줄 아는 순수한 아이이다. 이러한 오늘이와 매일이, 연꽃, 구름이, 이무기가 접촉함으로써 그들은 허상과 탐욕, 집착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다. 오늘이는 특히 욕심 많은 이무기로부터 희생을 이끌어 내는 인물이다. 항상 더 많은 여의주를 갖고자 욕심 부리던 이무기가 위험에 처한 오늘이를 도울 수 있었던 것은 오늘이를 통해 자기 내면의 순수함이 회복되었기 때문이다. 여의주에 대한 탐욕으로 이무기가 잊고 있었던 자기 내면에 존재했던 그 순수함을 오늘이가 이끌어 내었다. 즉, 애니메이션 <오늘이>에서 오늘이는 잃어버렸던 인간적 가치, 순수를 상징하는 존재이다. 그래서, 모든

이야기책에서 소녀의 이미지로 그려졌던 오늘이를 애니메이션에서는 <그림 5>와 같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간하기 힘든 아이의 모습으로만 그리고 있다. 이것은 원천강을 파괴시킨 어른들의 욕심에 대응하는 아이의 순수함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림 5> 아이의 모습을 한 오늘이 (애니메이션)



2) 오늘이와 접촉하는 인물들

가) 학

학은 채록본에서는 혼자 남은 오늘이를 보살피 주다가 부모님들에게 오늘이가 자신들의 자식임을 알려주는 표지가 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애니메이션에서 학은 오늘이에게 반드시 원천강으로 되돌아가 만나야 한다는 여행의 절대적 목적을 제공해 준다. 채록본에서 학이 홀로 살아가는 오늘이를 돌보아주는 부모와 같은 존재라면, 애니메이션 <오늘이>에서 학은 오늘이와 함께 원천강에서 공존하는 동반자, 친구와 같은 역할이다. 애니메이션에서 학과 오늘이가 함께 뛰어노는 <그림 6>의 장면에서 오늘이의 웃음소리는 계속된다.

<그림 6> 오늘이와 어울려 놀고 있는 학 (애니메이션)



이는 애니메이션을 그림책으로 옮긴 문공사 이성강본의 표현에서도 찾을 수 있다.

<10> 오늘이는 아름다운 원천강에서 보라색 여의주와 야아라고 불리는 학과 어울려 놀며, 하루하루 행복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문공사 이성강본, 4면)

신화에서는 학이 날아와 ‘오늘이를 보호해 주었다’는 것인데 이 책에서는 ‘오늘이와 함께 놀았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나) 매일리와 구름이

책록본처럼 글만 읽는 매일리가 애니메이션에도 등장한다. 매일리는 <그림 7>의 책으로 지어진 커다란 성에서 지금까지 책을 사천오백칠만팔백이십오권을 읽었고 아직도 구천사백칠십육만사십칠권을 더 읽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책록본에서의 매일리는 왜 자신이 책만 읽어야 하는지 그 운명에 대해서 궁금해했다면 매일리는 행복이 알고 싶어서 책을 읽는다 한다.

<그림 7> 매일이가 있는 책으로 된 성 (애니메이션)



오늘이: 왜 그걸 다 읽어야 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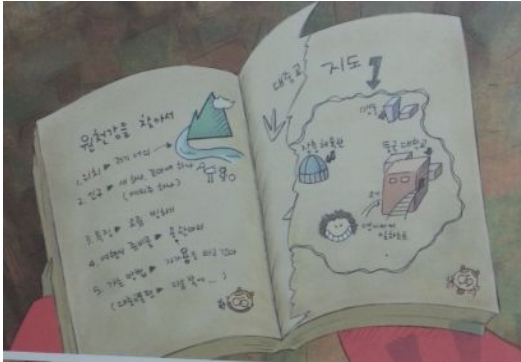
매일이: 왜냐고? 행복이 뭔지 알고 싶어서 그래서 책을 읽어. 그래서 모든 지식을 알게 되었는데…… 아직도 행복이 뭔지 모르겠어! 89)

채록본에서 매일이는 책을 읽는 자신의 운명을 궁금해 한다. 하지만 애니메이션에서 매일이는 책을 통해 행복의 의미를 찾고 싶어 한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복과 운명에 순응하던 신화시대의 인간상의 모습이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현대적인 인간상의 모습으로 바뀐 것을 반영한 것이다. 작가는 이렇게 서사무가의 인물을 현대의 인물들로 적절히 전환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적 차이는 인물의 외형에서도 표면적으로 드러난다. 원천강을 찾기 위해 <그림 8>의 현대적인 약도로 그려져 있는 지도를 보는 매일이는 <그림 9>처럼 안경을 쓰고 있다.

89) 이성강 감독, 애니메이션 <오늘이>, 2003. - 애니메이션 대사 인용은 모두 이 작품에서 하였기에 이하 출처를 표시하지 않음.

<그림 8>

원천강을 찾아 주기 위해 꺼낸 지도책



<그림 9>

안경을 쓴 매일이 (애니메이션)



채록본에서는 매일리와 똑같은 고민을 안은 채 책만 읽는 장상도령이 등장한다. 하지만, 애니메이션에서는 장상도령은 등장하지 않고 늘 머리에 구름을 얹고 사는 구름이가 등장한다. 구름이는 넓은 사막에서 홀로 살아가는 인물로 구름이가 물고 다니는 구름에서 내리는 비로 인해 구름이가 가는 곳마다 사막에 꽃이 피어난다. 하지만, 이런 구름이는 늘 비에 젖는 것이 싫었던지 계속 비를 맞으며 우울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 오늘이가 연꽃에게서 받은 연잎을 내밀자 그것으로 우산을 만들어 비를 피하며 오늘이를 사막 끝, 이무기가 사는 곳까지 안내해준다. 구름이가 머리 위에 왜 구름을 얹고 사는지 그리고 그것을 왜 계속 해야 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없다. 그런데, <그림 10>에서 넓디 넓은 사막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구름을 얹고 살아가는 구름이는 쓸쓸해 보인다.

<그림 10> 쓸쓸해 보이는 구름이 (애니메이션)



매일이와 구름이는 채록본처럼 똑같은 일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둘은 닮아있다. 둘 다 자신이 하는 일에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행복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홀로 반복된 일상을 하나 결코 행복을 찾지 못하는 매일이, 왜 자신이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홀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그냥 묵묵하게 해 나가지만 쓸쓸한 구름이. 그런데, 이 둘은 채록본처럼 둘이 결합할 때 비로소 행복을 찾는다. 즉, 애니메이션도 이 두 인물의 결합을 통해 결국 행복이란 사람들과의 관계 맺음에서 시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준다.

다) 연꽃과 이무기

채록본의 연꽃남기처럼 애니메이션 <오늘이>에서 <그림 11>의 연꽃도 같은 고민을 하는 인물이며, 한 송이의 꽃을 꺾으니 온 꽃봉오리에 꽃이 만발하게 된다는 해결방법도 같다.

연꽃: 난 너무 슬퍼. 이상하지? 난 많은 꽃봉오리를 가졌는데 꽃이 한 송이밖에 피질 않아.
왜 그렇지, 넌 아니?

<그림 11> 한 송이밖에 꽃이 피지 않아 고민하는 연꽃 (애니메이션)



즉, 애니메이션 <오늘이>의 연꽃도 채록본처럼 현재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 집착하여 그것을 놓을 줄 모르는 욕심 때문에 꽃을 피우지 못한 것이었다.

애니메이션 <오늘이>에서 이무기는 채록본에서의 이무기와 같은 고민을 가진 인물로 등장하지만, <오늘이>에서는 이야기에서의 역할 비중이 크다. 채록본에서 길잡이 중의 하나일 뿐이던 이무기는 애니메이션에서는 오늘이의 생명을 구해주고, 이무기의 자신을 버린 희생이 발단이 되어 연쇄적으로 원천강의 얼음을 녹이고, 원천강의 질서를 회복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오늘이가 처음 만난 <그림 12>의 이무기는 채록본보다 더 욕심 많은 인물로 그려진다. 여의주를 8개나 가지고 있어 품에 다 안지 못해 여의주가 혹여나 떨어질까봐 계속 전전긍긍해 한다. 그러면서, 오늘이를 원천강에 데려다 주는 댓가로 오늘이의 여의주마저 달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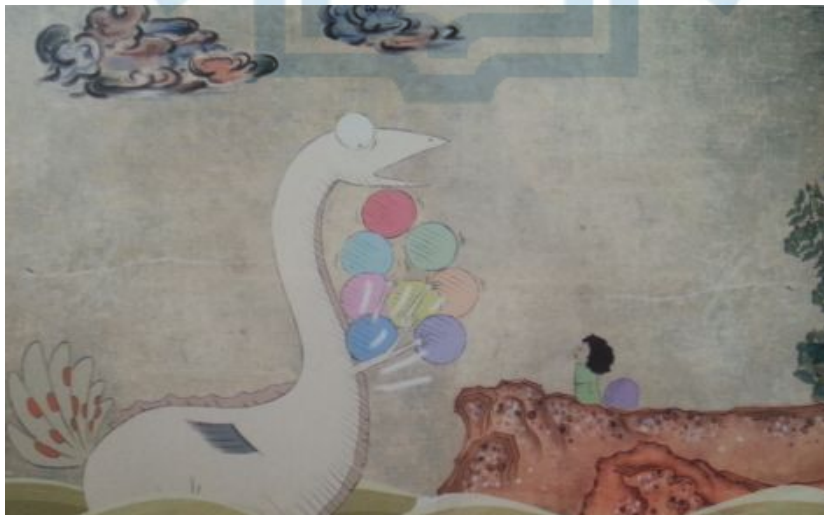
이무기: 아. 정 가고 싶다면야, 좋아!

하지만, 나도 뭔가 얻는게 있어야지.

잘 알겠지만 세상이 원래 그런 것이거든. 이히히히히

그러니깐 널 원천강에 데려다주고 난 그 여의주를 갖고. 어때?

<그림 12> 여의주에 집착하는 이무기 (애니메이션)



그런데, 그러한 탐욕적인 이무기가 오늘이를 위해 여의주를 모두 놓자 용이 되어 승천한다. 이것은 채록본과 같이 현재의 욕심을 버릴 때 비로소 더 나은 미래에 닿을 수 있다는 메시지와 더불어 남을 위해 희생할 줄 알 때 비로소 행복에 이를 수 있다는 의미를 던져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채록본과 애니메이션 <오늘이>를 비교 분석하면 <표 6>와 같다.

<표 6> 채록본과 ‘애니메이션<오늘이>’의 비교 분석

	채록본	애니메이션<오늘이>
서사	오늘이가 자신의 근원을 알고자 원천강을 찾아가는 여행담의 서사 속에서 각 인물들이 상호조력을 통해 서로의 고민을 해결해 가는 서사임.	오늘이가 행복의 원천이었던 원천강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여행담의 서사 속에서 각 인물들이 상호조력을 통해 서로의 고민을 해결해 가는 서사임.
배경	사계절이 모두 모여 있는 이계(異界)의 공간으로 시간의 본원이 되는 우주적 공간으로 그려짐.	절대 행복과 평화가 머무는 낙원의 공간으로 인간의 잃어버린 유토피아와 같은 공간으로 그려짐.
인물	오늘이는 여러 인물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공업으로 인해 여신으로 좌정함.	오늘이는 신이 되지 않지만 채록본처럼 만나는 이들의 고민을 귀담아 듣고 그들을 행복하게 해 주는 순수한 아이의 모습으로 그려짐.
	학은 오늘이 부모님이 오늘이를 보살피 주기 위해 하늘에서 보낸 부모와 같은 존재임.	학은 오늘이와 함께 원천강에서 공존하는 동반자, 친구와 같은 역할을 하며 오늘이가 원천강을 되찾아 오는 여행의 절대적 목적을 제공하는 존재임.
	장상과 매일이는 글만 읽는 자신의 팔자를 궁금해하는 인물로 두 사람의 결합으로 고민이 해결됨.	매일이는 팔자가 아닌 행복을 궁금해하는 인물로 그려지며, 채록본의 장상도령 대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외로이 살아

		가는 구름이가 등장하나, 이 둘의 고민은 채록본처럼 두 사람의 결합으로 해결됨.
	연꽃남기와 천하대사는 욕심으로 여러 가지에 꽃을 피우지 못하고 용으로 승천하지 못하는 인물로 하늘의 뜻으로 욕심을 버리자 고민이 해결됨.	연꽃과 이무기는 채록본과 같은 의미로 그려지나 이무기는 채록본보다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 중심적 인물로 이무기의 희생으로 모든 사건이 해결됨.

2. 현대 어린이와 소통하는 음악극 <오늘이>

음악극 <오늘이>는 제주도 신화 <원천강본풀이>의 서사를 기반으로 창작된 60분 분량의 어린이 음악극이다. 이 작품 또한 서사무가가 공연 매체인 음악극으로 전환되기에 모습이 많이 달라진다. 음악극은 말 그대로 음악과 극이 어울려진 장르로 무당이 혼자 부르는 서사무가와 달리 여러 등장인물들이 역할을 나누어 노래와 대사로 극을 진행한다. 음악극 <오늘이>도 등장인물들의 대화와 노래로 작품이 구성된다. 그런데, 다른 음악극 작품들과는 달리 각 등장인물들은 모두 자기의 내면을 고백하는 노래를 부른다. <내 이름은 오늘이>, <매일의 노래>, <뽀글이의 노래>, <이무기노래> 등 노래를 통해 등장인물들의 심리를 관객들에게 전달한다.

또한, 국립국악원에서 주관된 음악극이기에 <그림 13>의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에 의해 우리 전통 악기(대금, 소금, 피리, 태평소, 해금, 가야금, 아쟁, 타악, 신디 등)로 만들어 낸 국악연주가 현장에서 극 진행과 함께 이루어진다. 이러한 음악은 서사무가라는 옛이야기의 정취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우리 문화에 낯선 어린이 관객들에게 우리 문화적 감수성을 길러 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어 의의가 깊다.

<그림 13> 음악을 연주해 주는 악단 출연진⁹⁰⁾ (음악극)



그리고, 극이라는 장르 특징상 각종 무대장치에 의해서도 이야기가 전달된다. 장면이 전환 될 때 마다⁹¹⁾ 그림자극이 등장하여 사건을 요약시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14>에서 이야기할땐 뒤 무대 중앙 커다란 동그란 모양의 흰 막에 오늘이가 각 인물들이 길잡이 해 준 길을 따라 원천강을 찾아 떠나는 모습이 작은 인형들의 그림자로 투사되어 비치어 진다. 이것은 장면과 장면 사이의 전환 구실을 한다.

90) 국립국악원제작, 음악극<오늘이>(이병훈 연출, 조태준 극본) 팜플렛, 2013, 7면.

91) 오늘이가 인물들을 찾아 떠나는 장면마다 그림자극이 등장한다.

<그림 14> 그림자극의 모습 (음악극)



또한, 각 인물들의 특징이 표현될 수 있도록 의상과 분장도 관객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몫을 담당한다. <그림 15>의 무대 의상과 소품들은 대부분 한지로 제작되었다. 우리 전통 한지로 제작된 이러한 무대 의상과 소품들은 관객들에게 우리만의 정감을 불러일으키며,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갖게 한다.

<그림 15> 한지로 제작된 출연진들의 의상 (음악극)



이러한 음악극<오늘이>는 어린이를 위해 기획·제작되었다.

오늘이와 함께라면 솔~솔 풀리는 우리들의 문제.

원천강으로 가는 길에 오늘이가 만나게 되는 매일매일 책만 읽는 ‘매일이’, 꽃을 하나밖에 피우지 못하는 연꽃나무 ‘뽀글이’ 그리고 여의주가 있어도 용이 되지 못하는 ‘이무기’...그들과 만나며 차례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 어린이들은 어려움 속에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용기와 우정, 서로 아끼고 돕는 사랑, 남을 위해 자신을 낮추는 헌신과 같은 중요한 가치를 자연스레 깨닫게 됩니다. (음악극 팸플렛, 3면)⁹²⁾

음악극<오늘이>는 어린이들의 용기와 우정, 사랑, 헌신의 가치를 서사무가<원천강본풀이>에서 살려 내려고 했다. 애니메이션 오늘이가 <원천강본풀이>를 바탕으로 우울한 현대인들에게 메시지를 던져 주고 있다면 음악극<오늘이>는 밝고 건강한 어린이들에게 유쾌한 메시지를 던져 준다.

이 작품을 서사, 배경, 인물별로 변용된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가. 서사

서사의 내용을 서사단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옛날, 옛날, 옛날 하고도 아주 먼 옛날, 해동국 바다 건너 서천강 지나 황천강 건너 청수바다 너머에 있는 원천강이라는 곳에 오늘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다. 언젠가 어느 뱃사람들이 우연히 그 아이를 만나게 되었는데 오늘 만나게 되었다 해서 이름을 ‘오늘이’라고 지어 주었다.
- ② 오늘이는 날아 온 커다란 학 한 마리와 친구가 되어 놀았다. 어느 날, 원천강 너머 세상이 궁금했던 오늘이는 학에게 자기를 등에 태우고 원천강 너머 바깥세상으로 날아달라고 부탁한다.
- ③ 학이 오늘이를 태우고 바깥세상을 구경하는데 그만 기름으로 뒤덮인 검은

92) 국립국악원제작, 음악극<오늘이>(이병훈 연출, 조태준 극본) 팸플렛, 2013, 3면. - 팸플렛 내용은 모두 이것에서 인용하였으므로 이하 면수함 표시함.

바다에 빠지고 만다. 푸른빛을 잃고 검게 변해 아파하는 바다를 보면서 잃어버린 자연의 모습을 되돌리기로 한 오늘이와 학은 재빨리 원천강으로 되돌아 가려 하나 원천강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고 만다.

- ④ 이야기할머니 나타나 서천강가에 글 읽는 도령 매일이를 찾아가 원천강 가는 길을 물어보라고 한다.
- ⑤ 글 읽는 도령 매일이는 매일 글을 읽지만 자기가 왜 매일 글을 읽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른다. 원천강에 가면 자기가 왜 글을 계속 읽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거라며 오늘이와 학과 함께 원천강 가는 길을 알고 있을 것 같은 연꽃을 찾아 나선다.
- ⑥ 셋은 꽃봉오리는 많은데 꽃은 윗가지에 하나밖에 피지 않아 슬프다는 연꽃 뽀글이들을 만난다. 오늘이가 맨 윗가지에 있는 꽃을 따서 맨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주면 꽃이 필지 모른다는 제안을 하자 뽀글이들은 고민하다 꽃을 꺾어 오늘이에게 준다. 그러자 온 봉우리마다 꽃이 맺힌다.
- ⑦ 셋은 연꽃이 가르쳐 준 청수바다 이무기를 찾아 길을 나서는데, 그 길은 매우 위험하고 험난하다. 다친 학이 힘들어 가는 길을 포기하려고 하자 오늘이와 매일이가 함께 가자며 힘을 준다.
- ⑧ 셋은 청수바다에 도착해 겁쟁이에다 욕심 많은 이무기를 만난다. 이무기는 여의주를 여러 개 가졌음에도 용이 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고민스럽다. 오늘이, 학, 매일이가 멋진 용이 될 수 있을 거라 격려해주자 용은 셋을 등에 태우고 청수바다를 건너다 준다.
- ⑨ 아주 힘들게 청수바다를 건너왔는데 용은 그만 친구들을 건너다 주다 여의주들을 모두 잃어버리고 만다. 그런데, 몸이 이상해지며 이무기는 용이 되어 하늘을 날아간다.
- ⑩ 원천강에 도착하니 비가 내리고, 그 비를 맞은 학은 몸이 낫는다.
- ⑪ 원천강 대문이 활짝 열리고 오늘이는 선녀가 되어 나타난다.

음악극 <오늘이>도 애니메이션 <오늘이>처럼 자신의 근원을 찾고자 원천강을

찾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학과 행복하게 살았던 원천강으로 되돌아가고자 펼치는 모험담의 서사이다. 하지만, 애니메이션과 달리 원천강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모험을 통해 오늘이는 원천강에 돌아와 선녀가 되면서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다. 그리고, 모험의 과정에서 오늘이가 만난 여러 인물들은 채록본처럼 상호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즉, 이 음악극은 채록본의 자아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여행담의 서사와 상호조력을 통한 문제 해결의 서사 두 축을 기본으로 하여 어린이 눈높이에 맞추어 내용을 변형하였다. 채록본의 상보성의 서사를 철학적으로 어렵게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의 우정으로 풀어낸다. 채록본에서 오늘이·장상도령·매일이는 인간, 연꽃나무는 식물, 이무기는 동물, 선녀는 천상의 존재를 상징하며 온 우주가 부족한 점을 메워주며 화합하는 우주적 순환론의 이야기이다. 하지만, 음악극 <오늘이>에서는 오늘이, 학, 매일이, 이무기는 이러한 상징성을 떠는 존재들이 아닌 모두 친구로 등장한다.⁹³⁾ 이 친구들은 서로 힘을 합해 원천강으로 되돌아간다. 서로를 위해 주며 힘을 합친 이들의 우정으로 오늘이는 선녀가 되고 학은 병이 낫고, 매일이는 책을 읽는 것보다 값진 우정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이무기는 용이 되어 승천한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기에 서사무가가 지닌 철학적 사유는 빠졌지만, 서로 부족한 점을 도와 큰 뜻을 이룬다는 채록본의 취지만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게 잘 살렸다.

또한 이 작품은 채록본의 서사를 바탕으로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메시지까지 전달하고자 한다. 원천강에서 세상 구경을 나온 오늘이와 학은 검은 바다에 오염되고 말았다.⁹⁴⁾ 이 잃어버린 바다를 되돌리기 위해서 오늘이는 사계절이 모두 모여 있는 원천강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다.

93) 서사무가에서 장상도령, 매일이가 등장하여 남,여의 결합을 상징하였으나 음악극에서는 이 둘을 합하여 매일이란 친구만을 등장시켰다.

94) 실제 이 장면에서 공연 때 매케한 연기와 더불어 석유 냄새가 풍겨져 나온다.

어느 날, 오늘이는 학과 함께 세상 구경을 나왔어요.
그런데 그만 기름으로 뒤덮인 검은 바다에 빠지고 말았답니다.
푸른빛을 잃고 검게 변해 아파하는 바다를 보면서
잃어버린 자연의 모습을 되돌리기로 한 오늘이는
사계절이 모여 있는 원천강으로 돌아가기로 했지요. (음악극 팜플렛, 5면)

하지만, 오늘이는 원천강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게 되고, 이 길을 찾고자 오늘이는 학과 함께 긴 여정을 떠나게 된다. 이렇게 자신의 근원인 원천강을 찾아 떠나는 채록본의 서사는 치유의 힘을 지닌 원천강을 찾아 떠나는 서사로 내용을 달리하며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준다.

나. 배경

음악극에서의 원천강은 채록본처럼 사계절이 함께 있는 곳으로 시간과 계절이 조화를 이루며 순환하는 신비한 우주적 공간으로 설정된다. 오늘이가 부르는 오늘이 노래의 가사에서 구체적으로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온갖 꽃이 만발하고
푸르디푸른 녹색나무 바다처럼 펼쳐져
가을 단풍이 만개하니 한 폭의 그림같고
하이얀 눈이 소복소복 겨울밤이 이어져
원천강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끝없이 어어지는 곳
시간과 계절이 오묘한 조화를 이루며 운행되는 곳⁹⁵⁾ (음악극 CD가사집, 6면)

그런데, 음악극에서 원천강은 인간이 파괴하기 이전의 태초의 공간으로 치유의 힘을 가진 자연을 상징한다. 학과 오늘이는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나, 이곳

95) 국립국악원제작, <오늘이&발해공주>CD 가사집, 2008, 6면. - 음악극 노래의 가사는 모두 이 가사집에서 인용하였으므로 이하 면수만 표시함.

을 벗어나 인간의 세계로 나가자 검은 바닷물에 오염되어 버렸다.

오늘이 : 아무것도 없어. 온통 검은색이야. 사계절이 멈춰 버린 것 같아. 너무 슬퍼. 빨리 원천강으로 되돌아가야겠어. 이곳을 원래대로 돌려놔야겠어.⁹⁶⁾

그런데, 오염되어 병들었던 학이 원천강에 되돌아오자 다시 몸이 낫는다. 그리고 오염되었던 세상도 깨끗해 질 것이라 한다.

매일이: 비가 오네

(무대에서 꽃비가 내린다.)

학: 나 좀 봐, 나 다 나았나 봐.

매일이: 원천강에 비가 내리니, 니가 깨끗해지는 구나.

오늘이: 아마 그 오염된 바다도 깨끗해 졌을 거야. 이제 원천강의 대문을 활짝 열어야겠어.

이렇게 음악극에서 원천강은 사계절이 머무는 공간 뿐 아니라 치유와 회복의 힘을 가진 공간으로 그려진다.

다. 인물

<그림 16>은 음악극의 등장인물들 모습이다. 채록본의 등장인물들의 개성과 특성이 오늘날 음악극에서도 살아날 수 있도록 의상과 분장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96) 국립국악원제작, 음악극 <오늘이>(조태준 극본 이병훈 연출), 2013.- 음악극 대사는 모두 이 공연에서 인용하였으므로 이하 출처는 생략함.

<그림 16> 등장인물들 (음악극)



1) 오늘이

채록본에서 오늘이는 여러 인물들의 도움으로 부모가 계시는 원천강에 다녀온 뒤 세상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 주는 선녀가 된다. 음악극 <오늘이>에서 오늘이도 선녀가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된다. 채록본에서 오늘이는 자신의 근원을 궁금해 하며 자신의 근본을 찾아 여행을 떠난다. 하지만, 음악극에서 원천강을 떠나기 전 오늘이는 자신이 누구인지 궁금해 하지 않은 채, 그저 오늘 하루 하루 학과 함께 행복한 아이였다.

<오늘이의 노래>

오늘 오늘 오늘이라, 달도 좋아 오늘이야
 오늘 오늘 오늘이야, 날도 좋아 오늘이야
 오늘 오늘 오늘이야, 어제도없고, 내일도없어
 자고나도 오늘이고, 또자고나도 오늘이야 (음악극 CD가사집, 5면)

음악극에서 오늘이는 자신의 존재보다 원천강 너머에 있는 세상을 궁금해 한다. 그래서, 학에게 원천강 너머 세상 구경 갈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오늘이는 원천강이라는 신비한 공간에서 세상과 떨어진 채 살아가는 조금은 특별한 아이

였다. 이 특별한 아이는 모험을 통해 <그림 17>과 같이 원천강에 돌아와 비로소 선녀로서 거듭난다.

오늘이 : 이제 원천강의 대문을 활짝 열어야겠어.
(오늘이는 무대 뒤로 잠시 퇴장하며 꽃비가 내린다. 그리고, 선녀로 변한 오늘이가 등장한다.)

<그림 17> 선녀로 변하는 오늘이 (음악극)



채록본에서 세상에 던져진 아이 오늘이가 천상의 부모를 찾아가 존재를 확인 받고 선녀가 되었다면, 음악극에서는 처음부터 원천강이라는 이계(異界)에 머무르던 특별한 아이 오늘이가 원천강 너머의 세상을 경험하며 험난한 모험을 통해 선녀가 될 자격을 획득하고 선녀로서 거듭난다. 즉, 원천강을 떠나기 전 오늘이는 사계절이 함께하는 신비한 공간에서 학과 함께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특별한 아이였다면 원천강으로 되돌아 온 오늘이는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고 선녀가 되며 자신의 본모습을 깨닫게 된다. 즉, 자기존재에 대해 알지 못하던 인물이 모험을 통해 선녀가 되기 위한 자격을 획득하고 선녀로서 거듭난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람을 행복하게 해 주는 신이 되는 채록본의 오늘이의 모습과 더불어 자연의 파괴를 막고 그것을 치유해 줄 수는 신의 모습까지 음악극에서는 그리고 있다.

2) 오늘이와 접속하는 인물들

가) 학

학은 채록본처럼 오늘이를 돌보아주는 인물이다. 하지만, 채록본에서는 부모에게 위임받은 존재로 부모와 같은 역할이었다면, 음악극에서는 오늘이와 동고동락을 함께하며 모험을 끝까지 함께하는 친구로 친구와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인물이다.

학: 아무래도 안 될 거 같아. 너희 둘이 가는 게 좋겠어.

오늘이 : 그게 무슨 소리야?

학: 어짜피 난 방해만 될 텐데……

오늘이 노래 - <나의 친구>

내가 강님뜰에 솟아날 때부터 한 마리 학이 넘실넘실 날아와
한 날개로 요를 만들어 깔아주고 한 날개로 이불을 만들어주던
너는 나의 꿈 나의 소중한 친구 (음악극 CD가사집, 9면)

오늘이,매일이 : 같이 가자. 힘을 내!

또한, 힘들어도 끝까지 모험을 완수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주는 모습을 보여 준다. 이를 통해 예상 관객인 어린이들에게 어려운 일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라는 메시지를 전해 준다.

나) 매일이

채록본에서 글만 계속 읽는 인물로 장상도령과 매일이 아가씨가 등장한다. 매일 책만 읽는 자신들의 운명에 대해 고민하던 두 사람은 두 사람의 결합으로

고민이 해결된다. 하지만, 음악극에서는 글 읽는 인물로 도령 혼자 등장하는데 이름이 채록본에서 아가씨 이름이었던 매일이이다. 매일이는 채록본처럼 매일매일 많은 책을 읽지만 왜 책을 읽는 지 그 이유는 모른다.

<매일이의 노래>

매일매일 읽다보면 매일매일 하루같아
읽다 읽다 또 읽다보면 아침 점심 저녁 휘
매일매일 또 읽다보면 매일매일 하루같아
읽고 읽고 읽다보면 아침 점심 저녁가고
매일매일 읽다보면 매일매일 하루같아 (음악극 CD가사집, 7면)

그래서, 원천강에 가면 자신이 왜 계속 글만 읽는 지 해답을 알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오늘이와 함께 원천강을 찾아 나선다. 원천강에 도착한 매일이는 함께 동행해 줘서 고맙다는 오늘이의 말에 이렇게 답한다.

매일리: 무슨 소리야. 내가 오히려 더 고마워. 진정으로 무언가를 안다는 건 내가 혼자가 아니라
사실을 깨닫는 거야. 너희가 그걸 알게 해 줬어. 너희가 바로 내 책이야.

채록본처럼 남·여의 결합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매일이의 이러한 말을 통해 혼자만의 세계에서 벗어나 관계 맺어 연대하는 삶의 소중함을 깨닫는다는 점에서는 채록본의 매일이가 갖는 의미와 동일하다.

다) 연꽃

채록본처럼 여러 봉우리를 가졌지만 윗봉우리 하나에만 꽃을 피워 슬프다는 연꽃 뽀글이가 음악극에도 등장한다. 그런데, 채록본과 달리 극적 재미를 더하기 위해 세 연꽃이 등장하며 다룬다.

<뽕글이 노래>

참 멋질거야 꽃이 피면 내 웃는 모습도 예뻐거야
에루화디여라 어기야디야 에루화디여라 어라디여
사랑할거야 꽃이 피면 벌 나비 날아와 좋을거야
에루화디여라 어기야디야 에루화디여라 어라디여
행복할거야 꽃이 피면 바람이 불어도 기쁠거야
에루화디여라 어기야디야 에루화디여라 어라디여 (음악극 CD가사집, 8면)

채록본에서 연꽃의 고민이 오늘이 부모에 의해 해결되던 것과 달리 고민에 대한 해결은 오늘이의 제안으로 제시된다.

매일이 : 책에는 답이 없어.

오늘이: 그렇다면 맨 윗가지에 있는 꽃을 따서 맨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주면 꽃이 피지 않을까?

연꽃1: 주자

연꽃 2: 말자

(연꽃들끼리 줄지 말지 계속 고민하다)

연꽃들 : 그래 주자. 내가 처음 만난 사람이야

오늘이의 뜬금없는 해결책 제시는 오늘이가 천상의 부모를 만나 인물들의 고민에 대한 해답을 듣는 채록본의 서사가 생략됨으로써 연꽃나무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 음악극 오늘이가 다른 인물들의 고민을 해결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인물임을 드러내는 역할도 한다. 음악극에서도 연꽃나무가 고민 끝에 아끼던 맨 윗가지의 꽃을 따서 오늘이에게 주자 온 가지마다 꽃이 만발한다. 이것은 채록본처럼 자신만의 욕심과 집착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과 관계 맺을 때 비로소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를 동일하게 제시한다.

라) 이무기

음악극에도 여의주를 여러 개 가졌지만, 하늘로 승천하지 못하는 이무기가 등장한다.

이무기: 지나가. 날 모른척 해 줘.

오늘이: 안 돼, 니가 우리를 좀 도와줘.

이무기: (반갑게) 내 도움이 필요하냐?

(이무기가 험악한 모습으로 갑자기 모습을 드러내자, 그 모습을 보고 다들 소리 지른다.)

모두 :으악! 으악 !!

이무기: 이럴 줄 알았다고.

(중략)

매일이: 이무기는 오백년이 지나고 나면 용으로 변신해서 하늘로 날라간다고 하던데 근데
넌 용이 못 됐잖아.

이무기: 그래서 날 무시하는 거야? 나도 내가 창피해. 그렇지만 난 반드시 멋진 용이 될거
야.

<이무기 노래>

빗방울 소리 잠을 깨우면 난 기지개 펴며 하늘을 보네

자줏빛 구름 나를 부르고 푸르른 갈대 손을 흔드네

난 날아갈 테야 저 무지개 넘어 날아갈거야

내 꿈을 찾아 내 꿈을 찾아 (음악극CD가사집, 9면)

채록본처럼 이무기가 지닌 고민은 같다. 하지만, 음악극에서는 용이 되지 못한 채 무서운 모습으로 다른 이들과 교류하지 못하는 이무기의 슬픔도 함께 드러난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에 반갑게 나서지만 자신의 무서운 외모로 놀라는 친구들의 모습에서 실망하며 급기야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이무기도 소통하는 삶을 그동안 간절히 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좌절의 나날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끈박한 모습도 엿볼 수 있다.

이것은 예상관객인 어린이들에게 이무기의 모습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도 담고 있는 것이다.

이무기는 청수바다 건너 원천강에 가야 하는 친구들을 등에 태우고 건네주기로 한다. 이 과정에서 이무기는 친구들과 하나가 된다.

이야기할법 : 낮에는 큰소리로 노래 부르며 서로를 위로해 주었지요.

<청수바다 뱃노래> (합창)

푸른빛 바다 위 은빛물결 파아란 하늘에 조각구름

어라리라리니 어라리여라 (CD가사집, 9면)

그런데, 친구들과 하나가 되어 청수바다를 건너오다 이무기는 여의주를 잃어버리고 만다.

오늘이: 왜그래? 그 많던 여의주 다 어쨌어?

이무기: 잃어버렸나봐.

매일이 : 언제?

오늘이: 너 우리를 태우고 청수바다를 건너오다 그랬구나.

이무기: 애들아, 나 좀 몸이 이상해. 머리가 멍하고 등이 간질간질한 게 ……

몸살 걸렸나 봐.

친구들: 너 혹시, 너 혹시 용이 되려는 거야?

여의주는 잃어버렸지만 친구들과 함께 하는 모습을 통해 이무기는 용이 되어 승천한다. 채록본처럼 문제 해결이 하늘의 뜻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욕심과 집착에서 벗어나 다른 이들과 연대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를 채록본과 동일하게 제시한다.

마) 이야기할멈

채록본에서 장상도령과 매일이아가씨가 합쳐서 매일이란 이름의 도령으로 등장하는 인물 변화와 함께 이야기할멈이라는 극의 진행자가 등장한다. 이 이야기할멈은 극을 진행하는 역할을 한다.

이야기할멈 : 옛날하고도 아주 먼 옛날, 엄마의 엄마가 또 그 엄마의 엄마가 엄마가
(중략)

서천강 지나 황천강 건너 청수바다 너머에 있던 원천강이라는 곳.
그 땅에는 오늘이라고 하는 옥 같이 예쁜 여자 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이러한 이야기할멈은 무대 전환 때마다 나타나 이야기를 진행한다.

이야기할멈 : 원천강 가는 길을 멀고도 험하기에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할미가 부채를 흔들 때마다 여러분이 열씨구라는 구령으로 힘을 보태 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할멈은 관객과 소통하는 역할을 하여, 음악극의 재미를 더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채록본과 음악극 <오늘이>를 비교 분석하면 <표 7>와 같다.

<표 7> 채록본과 '음악극<오늘이>'의 비교 분석

	채록본	음악극<오늘이>
서사	오늘이가 자신의 근원을 알고자 '원천강'을 찾아가는 여행담의 서사 속에서 각 인물들이 상호조력을 통해	원천강에 살고 있던 오늘이와 학이 세상 구경을 나왔다가 다시 원천강을 찾아가는 여행담의 서사 속에서 각

	서로의 고민을 해결해 가는 서사임.	인물들이 상호조력을 통해 서로의 고민을 해결해 가는 서사임.
배경	사계절이 모두 모여 있는 이계(異界)의 공간으로 시간의 본원이 되는 우주적 공간으로 그려짐.	채록본의 원천강의 의미에 오염된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회복의 공간으로 그려짐.
인물	오늘이는 여러 인물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공업으로 인해 여신으로 좌정함.	오늘이는 학과 함께 원천강을 찾아 떠나는 여행에서 각 인물들을 만나 그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고 선녀로서 좌정함.
	학은 오늘이 부모님이 오늘이를 보살피 주기 위해 하늘에서 보낸 부모와 같은 존재임.	오늘이와 동고동락을 함께하며 모험을 끝까지 함께하는 친구로 친구와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존재임.
	장상과 매일이는 글만 읽는 자신의 팔자를 궁금해하는 인물로 두 사람의 결합으로 고민이 해결됨.	채록본의 장상과 매일이가 합쳐져 글 읽는 도령 매일이만 등장하며, 채록본처럼 남,여의 결합으로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지만 오늘이와 친구들과 관계맺음으로 자신의 고민이 해결됨.
	연꽃남기와 천하대사는 욕심으로 여러 가지에 꽃을 피우지 못하고 용으로 승천하지 못하는 인물로 욕심을 버리자 고민이 해결됨.	연꽃과 이무기는 채록본과 같은 고민을 가진 인물로 연꽃은 오늘이의 제안으로 연꽃을 꺾어 주자 고민이 해결되고, 이무기는 친구들을 위해 여의주를 잃어버리며 희생하자 용이 되어 승천함.
		극 진행을 설명하면서,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 이야기할머니 등장함.

3. 신화적 가치의 현대적 재해석

애니메이션 <오늘이>는 2003년 상연된 후 관객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며 각종 영화제에 초청되고 여러 대회에서 상을 계속하여 수상하는 등 지금까지도 반응이 뜨겁다.⁹⁷⁾ 음악극 <오늘이> 또한 어린이 관객과 부모들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2008년 첫 공연 이후 5년간 전석이 매진, 매년 어린이날 주간에 국립극장에서 계속하여 정기적으로 공연되고 있다. 이 두 작품은 우리의 서사무가 <원천강본풀이>가 영상과 공연이라는 현대의 매체와 결합하면서 종합예술적인 문화콘텐츠의 새로운 작품으로 재탄생된 것이다. 그런데, 이 두 작품이 원형으로 삼고 있는 <원천강본풀이>는 인간이 신과 그리고 그들을 연결해 주는 무당의 존재를 믿던 아주 오래전 신화시대의 이야기이다. 이 신화시대의 이야기가 오늘날에도 충분히 현대의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음을 이 두 작품은 보여준다.

이렇게 시간적 간극이 큰 이야기가 현대에도 소통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 신화 <원천강본풀이>가 내재한 작품의 힘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원천강본풀이>를 비롯한 우리의 신화는 초기 인류가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을 상징과 비유로 이야기한 것이다. 그 내면에 담긴 신화적 세계관은 인간의 보편적 사유방식과 맞닿아 있다.⁹⁸⁾ 우리 신화 연구자인 신동훈은 신화의 이

97) 애니메이션 <오늘이>가 초청된 영화제 및 수상 내역은 다음과 같다.

멜버른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한국영화특별전 (2006, 호주), 제13회 스투트가르트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한국영화특별전 (2006, 독일), 제8회 사라소타영화제 교육용프로그램부문 (2006, 미국), 제8회 BAM 아동영화제 (2006, 미국), 인디애나페스트 일반경쟁부문 (2005), 제22회 시카고국제아동영화제, 아동심사위원3등상/일반심사위원2등상 (2005, 미국), 제1회 고양국제아동영화제 초청 (2005), 제9회 서울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초청 (2005), 제35회 지포니국제아동영화제 First Screens 경쟁부문 (2005, 이탈리아), 제1회 인판다국제단편영화제 (2005, 홍콩), 제14회 브리즈번 국제영화제 한국독립영화부문 (2005, 호주), 제3회 대만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한국영화부문 (2005, 대만), 제4회 앵커리지국제영화제 한국단편부문 (2004, 미국), 대만금마장영화제 (2004), 타르페스트영화제 (2004, 미국), 제1회 서울환경영화제 (2004), 제2회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초청 (2004), 제3회 제주트멍영화제 (2004), 동아LG국제만화게임공모전 단편부문대상 (2004), 제8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패밀리 섹션 (2004), 애니마문디, 브라질 국제 애니메이션영화제 (2004, 브라질), 제16회 자그레브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아동영화부문 우수상 (2004, 크로아티아), 2004 시라큐스 국제영화제 상영 (미국), 대한민국애니메이션대상, 대상 (2003), 서울독립영화제 초청 상영 (2003), 부산아시아단편영화제 상영 (2003), 서울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초청 (2003), 제8회 부산국제영화제 와이드앵글 부문 (2003)

러한 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신화란 무엇인가. 사람들이 경외감 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가꾸어온 신성한 이야기가 신화다. 신화의 주인공들은, 그리고 그들이 엮어내는 서사는 사람들이 지향하는 본원적 가치를 상징적으로 담아낸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상과 욕망의 상상적 분신인 신화적 주인공들을 통하여 존재의 본질을 투시하는 한편 삶을 두르고 있는 장벽을 넘어서기 위한 분투를 거듭해왔다. 세월의 가시밭길을 헤쳐 현재에 이른 우리의 민간신화는 그러한 신성한 소산이다. 누군가 하면, 소외되고 못 가진 이들의. 하지만 삶의 주역이기를 포기하지 않은 이들의. 나는 민간신화에 담긴 그 몸짓이 우리 민족정신의 참되고도 본원적인 표상이라고 믿고 있다.”⁹⁹⁾ 이렇게 우리 신화는 한민족의 정신적 근간이 되는 본원적인 표상으로 단지 ‘신들의 이야기’·‘신성한 이야기’라기보다는 그 때 살았던 사람들의 가치관과 신념들이 반영된 보편적 가치관의 집합체인 것이다.¹⁰⁰⁾ 이러한 힘을 지녔기에 우리 신화는 최첨단 기술과 과학적 근거에 움직이는 현재 21세기에도 여전히 유효한 이야기로 자리한다. 신화는 마음의 고향을 잃은 채 흔들리는 현대인들로 하여금 욕망과 갈등의 회오리 속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삶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정신적 안식을 찾을 수 있게 한다. 이것이 바로 재차 강조하는 바, 신화의 힘이라 할 수 있다. 전 세계를 열광하게 만든 『해리포터』 시리즈의 원형도 신화에 있으며 그 신화 속에서 현재적 문제의 해결과 치유의 방안을 찾고 있다.¹⁰¹⁾ 이렇게 우리는 신화에서 밝혀지는 옛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통하여 삶의 본질을 새롭게 인식하여 보다 풍부한 삶을 영위하는 계기를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원천강본풀이>도 우리 민족의 보편적 가치관을 내재하고 있는 우리의 신화로 이 신화는 현대의 우리 삶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강한 힘을 지녔다. 본고

98) 안기수·이명현 공저, 『이야기문학과 문화콘텐츠스토리텔링』, 보고사, 2010, 49면.

99) 신동훈, 앞의 책, 8면.

100) 채영희·황경숙, 「바리공주 무가의 애니메이션화를 위한 스토리텔링 가능성 모색」, 『동북아문화연구』 제11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06, 8면.

101) 『해리포터』는 수세기전 신화를 바탕으로 재창작되었지만 작품의 주제에 있어서 권력과 법, 선과 악, 옐로 저널리즘과 스타, 스포츠와 광고, 인종과 혈통, 계급과 노동문제 등 현대 문화의 제반 문제를 망라하고 있다. - 최기숙, 「새 세대의 문화기호, 『해리포터』 읽는 ‘아이들’」, 『당대비평』 16, 생각의 나무, 2001, 397면.

의 II에서 이 이야기는 짧은 서사 속에 많은 철학적 사유를 내포하고 있음을 이미 살펴보았다. 모든 우주적 존재들은 본질적으로 결핍된 존재들이므로 서로를 인정하고 도우며 연대할 수 있을 때 그 결핍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말해 준다. 그런데, 이러한 신화시대의 가치관이 시대를 뛰어넘어 현대의 우리에게 울림을 일으키며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만든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자 한다.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알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는 드물기에 자기 존재에 대해 끊임없이 되묻게 된다. 채록본의 인물들 또한 모두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존재론적 고민에 휩싸여 있다. 그런데, 이것은 급격히 다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현대인의 욕망과 꼭 닮아있다. 또한, 인간은 모두 결핍을 지닌 불완전한 존재들로 그 결핍을 해소하는 답을 찾고자 한다. 그런데, <원천강본풀이>는 거기에 대한 근원적 답도 제시해 주고 있다.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고 다른 이들과 함께 연대할 때 비로소 자신의 결핍은 채워지고, 행복이 찾아온다는 답을 유기적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는 스토리를 통해 말해 주고 있다. 즉, <원천강본풀이>의 서사가 제시해 주는 나에 대한 이해와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고 타인과 연대하는 공동체적 삶의 중요성은 우리 민족의 보편적 정서와 근원적 사유로 이것은 공동체가 와해되어 점점 개인주의적 삶을 살아가는 고독한 현대인에게 잔잔한 깨달음을 준다. 이렇게 현대인이 지금 자신의 삶 속에서 간절히 필요로 하는 답을 신화시대로부터 소환된 이야기인 <원천강본풀이>는 제시해 주기에 우리는 오늘날에도 이 이야기에서 공감과 위로를 받게 된다. 그리고, 서사가 지닌 이러한 힘뿐만 아니라 <원천강본풀이>의 배경과 인물 또한 오늘날 현대인들의 감성을 적절히 자극하는 매력적인 이야기 요소로 작용한다. 신화가 오늘날에도 유효한 것은 신화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환상성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환상이란 사실적이고 정상적인 것들이 갖는 제약에 대한 의도적인 일탈로 환상의 세계에서는 현실에서 불가능한 일들이 존재할 수 있다. 오늘날 대중들은 일상의 현실에 대한 일탈로 이러한 환상을 원하는데, 신화의 배경은 이러한 욕구에 부합할 수 있다. 단순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관이 아닌 보다 다차원적

세계관을 그릴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힘을 우리의 신화는 현대의 대중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 <원천강본풀이>의 ‘원천강’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신화의 낯선 공간으로 사람들의 상상력을 충분히 자극시킬 수 있는 매력적인 배경이 된다. 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천강은 춘하추동 사계절이 모두 모여 있는 곳으로 시간이 시작되어 순환하는 곳이다. 이것은 현대의 대중들의 시간에 대한 원천적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이계(異界)로 표현되는 이 공간에 무한한 낯설음과 동경을 갖게 만든다. 그리고, 주인공 ‘오늘이’는 현대인이 간절히 원하는 인물상으로 오늘이를 통해 고독한 현대인들은 위로 받는다. 채록본에서 오늘이는 부모를 찾아 떠나는 험난한 여정 속에서도 만나는 인물들마다 그들의 고민을 다 들어준다. 또한, 문지기에 의해 원천강 출입이 좌절되었을 때에도 “팔자부탁 어이하리, 모든 은혜 어이하리”라며 자신의 꿈이 좌절되는 상황에도 부탁받은 인물들에게 해답을 가져다주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오열한다. 타인의 말에 경청하며 타인의 고통과 아픔을 마치 자기 것인 양 나눌 줄 아는 인간적인 ‘친절함’이 그녀를 현대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매력적인 캐릭터로 만든다. 타인에게는 별것 아닌 일이지만 내게는 그 어떤 짐보다 무거운 고민을 함께 나누는 모습, 그리고 그 고민을 마음에 담아 두었다가 잊지 않고 해결책을 구해와 들려주는 오늘이의 모습은 고독한 우리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전해 준다. 이렇게 <원천강본풀이>는 이야기의 근간이 되는 서사, 배경, 인물의 요소 모두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할 수 있는 가치를 지녔다. 이렇게 작품이 내재하고 있는 가치가 크기에 서사무가 <원천강본풀이>는 시간적 간극을 뛰어 넘어 현대의 다양한 작품으로 다시 재창작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신과 무당, 인간이 소통되기 위해 무당이 부르던 노래로 더 이상 신과 무당의 존재를 믿지 않는 현대의 다양한 수용자들과도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즉, 이 작품이 새로운 현대 콘텐츠의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변용은 불가피하다. III의 이야기책들은 <원천강본풀이>의 본래적 모습 그대로를 말이 아닌 글로써 현대의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IV의 영상·공연 작품들은 매체를 전환시켜 <원천강본풀이>를 모

티브로 한 오늘날 새로운 이야기로 소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하기에 IV.1,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애니메이션과 음악극은 원작에서 그 모습이 달라졌다. 그런데, 이것은 <원천강본풀이>의 모티브만을 가져와 스토리를 짜깁기한 것에 그치는 변용이 아니라 원작이 지닌 가치가 오늘날의 수용자에 맞게 전달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재해석의 과정을 거친 변용이다.

애니메이션 <오늘이>는 서사무가 <원천강본풀이>가 현대의 애니메이션 영상 작품으로 매체 전환된 작품이다. 이 애니메이션이 처음으로 발표된 것은 2003년으로 아직 일반대중들에게 <원천강본풀이>가 많이 알려지지 않을 때이다. <원천강본풀이>는 오히려 애니메이션 <오늘이>가 성공한 후에 역으로 그 원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사례라 할 수 있다.¹⁰²⁾ 작가는 애니메이션 <오늘이>를 창작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 작품에서 제가 끄집어내려 했던 것은, 오늘이가 원천강을 떠났다 다시 찾아가는 여정을 통해 단순하지만,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충고입니다. 욕심과 집착에서 벗어날 때 사람들은 자신이 진정 원했던 것을 되찾고 자유로워진다는 그 충고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안이 되길 바랍니다. (문공사 이성강본, <작가의 말> 중 일부, 54면)

작가는 이렇게 <원천강본풀이>가 지닌 가치를 선구자적 시각에서 발견하고, 그 가치가 욕심과 집착에 사로잡혀 하루하루가 불안한 현대인들에게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원작에서 여러 요소를 오늘날에도 유효하게 변용시켜 각색하였다. IV.1에서 원작과 애니메이션의 비교를 통해 변용된 요소들을 이미 자세히 살펴 보았다. 우선 이 애니메이션은 신화적 모티프들은 배제시켰다. 원작에서 오늘이가 신이 되는 결과보다 오늘이가 신이 되기까지 인물들과 관계를 맺는 과정에 중점을 두어 내용을 각색하였다. 즉, <원천강본풀이>에서 욕심과 집착으로 관계 맺지 못하는 각 인물들이 현대인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자신

102) 총 12종의 이야기책 중 2003년 이후 <원천강본풀이>를 동화화 한 이야기책이 9종에 해당한다. 또한, III.3에서 교과서 삽화를 이성강 감독의 애니메이션 작품으로 그려 내는 것은 애니메이션이 이야기책보다 유명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의 팔자와 운명에 궁금해 하는 신화시대의 인물상들을 불안한 하루하루 자신의 '행복'한 삶에 대해 궁금해 하는 지금 이 시대의 인물상들의 모습으로 변용시켰다. 그리고, 인물들의 고민 해결 방법도 신에 의해 듣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인물들의 관계 맺음으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변용시켰다. 또한 '원천강'을 신의 공간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에 의해 파괴되었다가 다시 회복되는 낙원의 공간으로 다르게 그렸다. 오늘이도 여신의 이미지가 아닌 순수한 아이의 모습으로 이기적인 어른의 모습과 대조되게 그렸다. 이 같은 변용은 원작 <원천강본풀이>가 지니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 욕심과 집착에서 벗어나 남과 연대할 수 있을 때 진정한 행복으로의 회귀가 가능하다는 신화적 사유를 현대의 애니메이션 영상 작품으로 오늘날 유효하게 소통시키기 위해 작가가 의도적으로 꾀한 것이다.

2008년에 첫 공연을 한 음악극 <오늘이>는 애니메이션 <오늘이>가 성공한 이후 <원천강본풀이>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높아진 상황에서 공연되었다. 이 작품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우리의 전통 공연 작품이 부족한 상황에서 IV.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립국악원에서 우리의 옛이야기가 오늘날 공연 작품으로 훌륭히 재현될 수 있도록 심혈을 다해 제작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많은 옛이야기 중에서 매해 어린이날 주간 기념 공연작으로 <원천강본풀이>가 선택되어 제작될 수 있었던 것은 제작자가 우리 신화 <원천강본풀이>가 오늘날 어린이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가치가 높은 작품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이것은 음악극 <오늘이>의 팸플렛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원천강으로 가는 길에 오늘이가 만나게 되는 매일매일 책만 읽는 '매일이', 꽃을 하나밖에 피우지 못하는 연꽃나무 '뽕글이' 그리고 여의주가 있어도 용이 되지 못하는 '이무기'...그들과 만나며 차례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 어린이들은 어려움 속에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용기와 우정, 서로 아끼고 돕는 사랑, 남을 위해 자신을 낮추는 헌신과 같은 중요한 가치를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음악극 팸플렛, 3면)

<원천강본풀이>가 지닌 가치를 애니메이션은 현대 대중들과 소통하는 이야기로 만들고자 원작에서 변용을 가했다면, 음악극은 원작의 가치를 현대의 어린이들과 소통하는 이야기로 만들고자 변용을 가했다. IV.2의 원작과 음악극의 비교 분석에서 자세히 살펴보았듯이 음악극 <오늘이>는 오늘이가 신이 되는 채록본의 기본 서사를 바탕으로 하지만 여러 요소에서 변용이 가해졌다. 무엇보다 등장인물들 오늘이, 학, 매일이, 이무기가 우주적 존재를 상징하는 존재들이 아닌 모두 친구로 설정되어 원천강을 찾아 가는 모험을 오늘이와 끝까지 함께 하는 것으로 바꾸어 그려졌다. 이것은 원작의 ‘연대적 삶의 중요성’의 가치를 살리면서 어린이들에게 친구의 소중함을 적절하게 되새기게 만든다. 그리고, 오늘이와 매일이, 뽀글이, 이무기 등의 등장인물이 자신이 누구인지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은 오늘날 어린이들에게 꿈과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줄 수 있도록 상황과 대사가 적절히 각색되었다. 원천강 또한 원작의 신화적 이미지를 바탕으로 현대인들이 파괴시킨 자연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지닌 새로운 신비로운 공간으로 적절히 바뀌어졌다. 즉, 음악극 제작진은 <원천강본풀이>가 지닌 연대적 삶의 철학적 사유를 ‘혼자가 아닌 친구들과 함께 할 때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고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메시지로 바꾸어 어린이 관객들과 소통하고자 원작의 내용에서 변용을 꾀했다.

즉, 두 작품은 모두 작가가 우리 신화 <원천강본풀이>의 가치를 알아보고 오늘날의 콘텐츠 수용자에 맞게 원작을 현대적으로 훌륭히 재해석하였기에 탄생할 수 있었다. 이렇게 <원천강본풀이> 및 아니라 우리의 무수한 많은 신화들이 신화시대의 이야기로 머무르지 않고 오늘날에도 사랑받는 새로운 작품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원작이 지닌 가치를 발견하여 그것이 현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소통될 수 있도록 적절히 재해석하여 각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런데, 신화적 모티브를 바탕으로 한 현대의 작품 제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신화적 소재의 이미지와 소리 등의 감각적 구현에 앞서 신화적 소재가 가진 가치를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하는 작가의식이다. 애니메이션 이론 연구자인 조미라는 애니메이션 <오늘이>를 “기존의 한국 애니메이션이 신

화를 단순한 소재로 접근, 고정적 기록에 머무르는 한계에서 벗어나 제주도 신화 <오늘이>를 날카로운 시각으로 재해석, 진지하지만 무겁지 않으면서도 유쾌하게 풀어냄으로써 신화가 가진 '보편성'과 애니메이션이 가진 '극대화된 상상력'모두를 놓치지 않고 있다."¹⁰³⁾라고 평하고 있다. 그리고, 국립국악원 공식 블로그에서 음악극 <오늘이>의 평은 "주인공의 여행기를 함께 하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응원도 하면서....<중략> 사랑과 우정, 선행과 봉사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국악에 대해 좀 더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등 모두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우리의 서사무가를 훌륭히 각색하였다는 칭찬이다.¹⁰⁴⁾

이렇게 <오늘이> 애니메이션과 음악극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근원적 이유는 작가가 현대에도 울림이 큰 <원천강본풀이>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것이 오늘날의 이야기로 소통될 수 있도록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각색의 힘 때문이다. 이러한 튼튼한 스토리에 애니메이션과 음악극의 세심한 영상과 연출이 입혀졌기에 이 작품은 훌륭한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앞으로 <원천강본풀이>를 바탕으로 한 다른 콘텐츠 작품을 창작할 때에도 원작이 지닌 신화적 가치에 대한 발견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 후 이를 바탕으로 각 매체와 예상되는 수용자에 맞게 적절히 서사가 각색되어 새로운 콘텐츠로 재창작 될 수 있어야 오늘날에도 소통할 수 있는 작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원천강본풀이>를 모티브로 한 작품들이 계속하여 훌륭히 재창작된다면 <원천강본풀이>는 오늘날 문화콘텐츠의 원형 서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이것이 <원천강본풀이>를 애니메이션과 음악극이라는 현대의 콘텐츠로 성공시킨 두 작품이 우리에게 남겨주는 시사점이자 과제라 할 수 있다.

103) 조미라, 앞의 논문, 243면.

104) 국립국악원 공식 블로그 - blog.naver.com/gugak1951 (2013. 12. 24일자 검색)

V. 결론

제주도 서사무가 <원천강본풀이>는 일반 대중들에게 낯선 작품이다. 하지만, 이 작품은 현재까지 이야기책 12편, 애니메이션 1편, 어린이용 음악극 2편, 성인용 연극 및 뮤지컬 3편, 발레무용 1편, 인형극 1편 등으로 다양한 매체에서 재창작되고 있다. 본고는 굿이 구연되지도 않아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원천강본풀이>가 최근에 이렇게 다시 계속하여 재창작되는 현상에 주목하여, II장에서 이 작품의 특성을 분석, 이 작품이 현대에 계속 재창작되는 이유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III장에서는 <원천강본풀이>가 이야기책으로 변용된 양상을 IV장에서는 영상·공연 작품으로 변용된 양상을 분석하여, 앞으로 <원천강본풀이>가 각 매체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II장에서 <원천강본풀이>의 특성을 이야기의 근간이 되는 서사, 배경, 인물 별로 분석하였다. 이 이야기는 짧은 서사 속에 많은 철학적 사유를 내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원천강본풀이>는 결국 모든 존재들은 본질적으로 결핍되어 있으므로 그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것을 겸허히 내려놓고 타인과 연대할 것을 말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신화시대의 사유 방식은 공동체가 와해되어 개인주의적 삶에 젖은 오늘날의 우리에게 잔잔한 깨달음을 전해준다. 짧은 이 신화는 현대의 우리에게 무수히 많은 삶의 화두들을 던져주면서 우리 삶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 이것이 바로 이 작품이 현재에도 여러 다양한 작품으로 재창작되게 만드는 힘이라 할 수 있다.

III장에서는 <원천강본풀이>가 인쇄매체로 변용된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야기책은 변용 정도에 따라 ‘다시쓰기’와 ‘고쳐쓰기’로 나눌 수 있다. <원천강본풀이>의 ‘다시쓰기’ 이야기책은 <원천강본풀이>의 원형적 모습 그대로를 현대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이러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그 양상을 분석한 결과 원형의 신화소(神話素)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변형되어 전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원천강본풀이>의 ‘고쳐쓰기’ 이야

기책은 교학사본과 키움본 2종이다. 교학사본은 채록본의 기본 서사를 유지한 채 아이들에게 옛이야기에 대한 정보와 삶의 교훈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창작하여 첨가시켰다. 하지만, 이 에피소드들이 통일성 없이 덧붙여져서 원 서사의 내용이 산만해지고 있었다. 또한, 원형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에서 새로운 내용을 창작했다고 작가와 기획자가 밝히고 있지만, 새롭게 창작된 내용들이 오히려 서사무가 원작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키움본은 모든 이야기책들 중 원작의 신화소(神話素)가 가장 많이 변형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변형은 원작의 가치를 전혀 담아내지 못하는 변형으로 <원천강본풀이>를 처음 접하는 유아 독자들에게 원작을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달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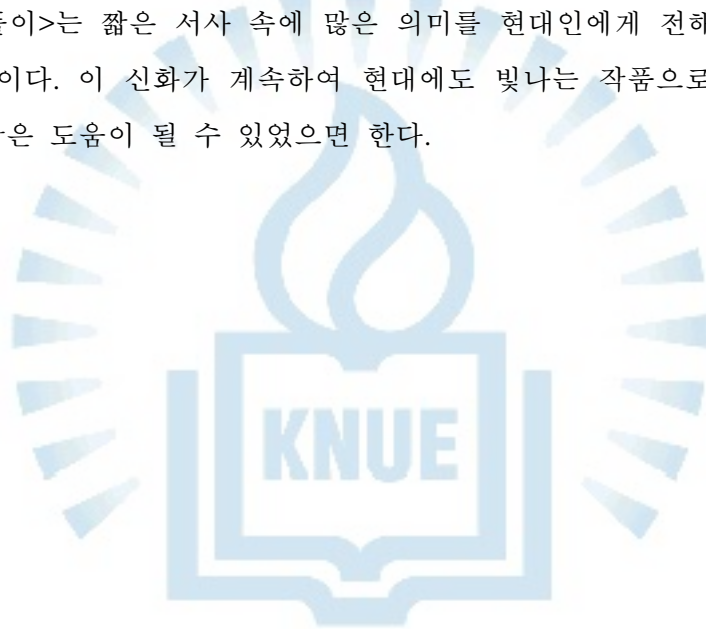
이러한 이야기책들은 1종을 제외하고 모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동화화된 형태로 출판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 원작의 장르적 특성과 가치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채 서사무가의 신화소(神話素)를 변형시켜 동화화하고 있다. 원작과 다른 신화소(神話素)의 변형 중 가장 큰 문제점은 <원천강본풀이>에서 가장 중요한 오늘날의 신격이 변형되어 전해진다는 점이다. <원천강본풀이>에서의 오늘날은 지금 현재 오늘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신이지만, 다시쓰기 및 고쳐쓰기 이야기책 12종 중 7종의 이야기책에서 오늘날을 단지 ‘사계절을 다스리는 신’으로서만 그리고 있다. 그런데, 이 작품이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 실리면서 이러한 오늘날의 모습은 더욱 고정화되어 버렸다. 서사무가를 동화화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우리 신에 무지한 아이들에게 우리 신의 모습을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오늘이’는 본래 가지고 있는 신의 모습과는 다르게 동화화되면서 급기야 가장 신뢰성이 뒷받침되어야 할 교과서에서조차 본래의 모습과 다르게 수록되고 말았다. 이렇게 오늘날이 채록본과 다른 모습으로 자리하게 된 것은 이야기책 작가들이 서사무가 장르와 채록본의 신화소(神話素)들이 갖는 의미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은 채 동화화했기 때문이다. 서사무가는 아직 대중들에게 낯선 장르이기 때문에 작가들은 더욱 서사무가의 장르적 특성을 살려 동화화 할 의무가 있다. 원작을 그대로 옮겨 쓰는 다시쓰기의 작가 뿐 아니

라 원작을 가능한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새롭게 창작한다 밝히고 있는 고쳐 쓰기의 작가 또한 그들의 손에 의해 우리의 서사무가가 전해진다는 것에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창작에 임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원천강본풀이>가 아이들에게 제대로 전달 될 수 있느냐 아니냐는 이야기책 작가들 손에 달려 있다.

IV장에서는 <원천강본풀이>가 영상·공연 매체로 변용된 양상을 애니메이션 <오늘이>와 음악극 <오늘이> 작품으로 분석하였다. 이 작품들은 신화시대의 이야기가 오늘날 애니메이션과 음악극으로 그 모습을 전환하여도 현대의 대중과 소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원천강본풀이>가 오랜 시간적 간극에도 오늘날 새로운 매체의 작품으로 소통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원작이 내재하고 있는 힘이 크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원천강본풀이>의 서사가 제시해 주는 나에 대한 이해와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고 타인과 연대하는 공동체적 삶의 중요성은 우리 민족의 보편적 정서와 근원적 사유로 이것은 공동체가 와해되어 점점 개인주의적 삶을 살아가는 고독한 현대인에게 잔잔한 깨달음을 준다. 그리고, 서사가 지닌 이러한 힘뿐만 아니라 <원천강본풀이>의 배경과 인물 또한 오늘날 현대인들의 감성을 적절히 자극하는 요소이다. 이렇게 <원천강본풀이>는 이야기의 근간이 되는 서사, 배경, 인물의 요소 모두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할 수 있는 가치를 지녔다. 하지만, 이것은 신과 무당, 인간이 소통되기 위해 부르던 신화시대의 노래로 이것이 오늘날 다양한 수용자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현대 콘텐츠의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변용이 불가피하다. III의 이야기책들은 <원천강본풀이>의 본래적 모습 그대로를 현대의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IV의 영상·공연 작품들은 매체를 전환시켜 오늘날 새로운 이야기로 소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하기에 애니메이션 작가는 이 이야기를 현대 대중들과 소통할 수 있는 영상 작품으로 음악극 작가는 현대 어린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연 작품으로 매체를 전환하면서 원작에서 변용을 피했다. 그런데, 이러한 변용은 단순히 <원천강본풀이>의 모티브만을 가져와 스토리를 짜깁기한 것에 그치는 변용이 아니라 원작이 지닌 가치가 오늘날의 수용자에 맞게 전달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재해석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즉, 두 작품

은 모두 작가가 우리 신화 <원천강본풀이>의 가치를 알아보고 오늘날의 콘텐츠 수용자에 맞게 원작을 현대적으로 훌륭히 재해석하였기에 탄생할 수 있었다. 이렇게 <원천강본풀이> 및 아니라 우리의 무수한 많은 신화들이 신화시대의 이야기로 머무르지 않고 오늘날에도 사랑받는 새로운 작품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원작이 지닌 가치를 발견하여 그것이 현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소통될 수 있도록 적절히 재해석하여 각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원천강본풀이>를 모티브로 한 작품들이 계속하여 훌륭히 재창작된다면 <원천강본풀이>는 오늘날 문화콘텐츠의 원형 서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원천강본풀이>는 짧은 서사 속에 많은 의미를 현대인에게 전해 주는 우리의 빛나는 신화이다. 이 신화가 계속하여 현대에도 빛나는 작품으로 자리하는 데 본 연구가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1. 자료

아카마쓰 지조(赤松智城) · 아키바 다카시(秋葉陸), 『조선 무속의 연구』, 동문선, 1991.

애니메이션 <오늘이> (이성강 감독, 2003).

어린이 음악극 <오늘이> (조태준 극본, 이병훈 연출, 2013).

음악 CD <오늘이&발해공주> (국립국악원 제작, 2008).

김선우 · 김종민, 『오늘이』, 웅진씽크빅, 2010.

서정오,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신화』 「옥황선녀 오늘이」, 현암사, 2003.

서정오 · 조수진, 『오늘이』, 봄봄, 2007.

신순재 · 김태현, 『별이 된 일곱 쌍둥이』 「사계절을 선물하는 선녀」, 대교출판, 2009.

엄혜숙, 『한라궁이/원천강 오늘이』, 한겨레아이들, 1999.

유다 · 김현아, 『국어가 재밌어지는 3학년 맞춤 전래 동화』, 거인, 2010.

유영소 · 한태희, 『사계절의 신 오늘이』, 한겨레아이들, 2009.

이성강 · 박영미, 『오늘이』, 문공사, 2004.

정하섭 · 윤정주, 『오늘이』, 웅진주니어, 2010.

조호상 · 김동성, 『오늘이』, 웅진닷컴, 2003.

최현숙 · 정승혜, 『계절을 여는 아이 오늘이』, 교학사, 2005.

허난희 · 정승환, 『오늘이』, 키움, 2008.

교육과학기술부,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읽기 3-1』, 교육과학기술부, 2010.

교육과학기술부, 교사용 지도서 초등학교 『국어 3-1』, 교육과학기술부, 2009.

2. 단행본

- 권순궁외, 『살아있는 고전문학 교과서 3』, (주)휴머니스트출판그룹, 2011.
- 서대석, 『한국의 신화』, 집문당, 1997.
- 서대석엮음, 『우리고전 캐릭터의 모든 것 1』, (주)휴머니스트출판그룹, 2008.
- 서정오, 『옛이야기 들려주기』, 보리, 1995.
- 신동훈, 『살아있는 우리신화』, 한겨레출판, 2007.
- 안기수·이명현, 『이야기문학과 문화콘텐츠스토리텔링』, 보고사, 2010.
- 오세정, 『설화와 상상력』, 제이앤씨, 2008.
- 일연, 최호 역, 『삼국유사』, 홍신문화사, 1996.
- 장주근, 『한국민속논고』, 계몽사, 1986.
- 정창권, 『문화콘텐츠화 강의 - 쉽게 개발하기』,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 조성윤 외 2인, 『제주지역 민간신앙의 구조와 변용』, 백산서당, 2003.
- 조용현, 『조용현의 사주명리학 이야기』, 생각의 나무, 2002.
- 조흥운, 『한국巫의 세계』, 민족사, 1997.
- 진성기 역,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 현용준,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2007.

3. 논문

<일반논문>

- 고은임, 「『원천강본풀이』 연구 : ‘오늘이’ 여정의 의미와 신화적 사유」, 『관악어문연구』 제35집,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10.
- 구본기·송성욱, 「고전문학과 문화콘텐츠의 연계방안」, 『고전문학연구』 25집, 한국고전문학회, 2004.
- 김권호, 「교과서 수록본 「오늘이」의 비판적 검토 - 「원천강본풀이」와 어린이용 판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우리말교육현장연구』 6집1호, 우리말교육현장학회, 2011.
- 김명석, 「영상매체를 활용한 문학논술 지도 전략-애니메이션 <오늘이>수업 사례를

-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28집, 우리문학회, 2009.
- 김명옥, 「「원천강본풀이」를 재화한 <오늘이>에 나타난 서술전략과 문체 연구」, 『동화와번역』 22집, 건국대학교 동화와 번역 연구소, 2011.
- 김유진, 「원천강본풀이」의 신화적 성격과 현대적 변용 양상」, 『아동청소년문학연구』 6집,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0.
- 김풍기·조혜란, 「고전문학 작품의 정체성과 그 현대적 변용 - <옥루몽>의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30집, 고전문학학회, 2006.
- 김혜정, 「제주도특수본풀이<원천강본풀이>연구」, 『한국무속학』 20집, 한국무속학회, 2010.
- 김환희, 「바리공주 이야기 속의 전통과 현대」, 『동화와 번역』 2집, 건국대학교 중원인문연구소, 2001.
- 박신영, 「미디어콘텐츠이용자의 판타지 욕구가 콘테츠 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4권 2호, 한국언론학회, 2010.
- 박기수, 「한국 캐릭터 서사의 활성화 방안 연구 - <마시마로>의 서사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23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10.
- 송태현, 「신화와 문화콘텐츠-제주신화 ‘자청비’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22, 강원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2009.
- 이수자, 「무속신화<원천강본풀이>의 신화적 의미와 위상」, 『남도민속학의 진전』, 태학사, 1998.
- 이종호, 「서사무가<원천강본풀이>와 애니메이션<오늘이>비교연구」, 『온지논총』, 27집, 온지학회, 2011.
- 조미라,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신화적 상상력-애니메이션 <오늘이>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7권 제2호, 한국콘텐츠학회, 2007.
- 조홍윤, 「<원천강본풀이>의 서사에 나타난 ‘시간’의 의미 연구」, 『남도민속연구』 23집, 남도민속학회, 2011.
- 채영희·황경숙, 「바리공주 무가의 애니메이션화를 위한 스토리텔링 가능성 모색」, 『동북아문화연구』 제11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06.

최기숙, 「새 세대의 문화기호, 『해리포터』 읽는 ‘아이들’」, 『당대비평』 16, 생각의 나무, 2001.

허만옥, 「문화콘텐츠에서의 디지털스토리텔링 양상과 방향 연구」, 『우리문학연구』 23집, 우리문학회, 2007.

현용준, 「제주도 무속신화의 제상」,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학위논문>

장권용, 「제주도 특수본풀이 연구 : <원천강본풀이>,<세민황제본풀이>,<허궁애기본풀이> 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김왕식, 「구북여행담 연구:공간이동양상과 서사무가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박경희, 「이성강 감독 애니메이션의 미장센 스타일 체계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박현숙, 「무속신화<바리공주>의 재창조에 관한 연구, 구비문학을 통한 아동교육과 관련하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오영미, 「무속신화의 문화적 재창조 방안 연구-창세신화,바리공주,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2.

홍은주, 「디지털 작업 과정으로 표현되어진 파스텔화 애니메이션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웹사이트>

조현설, 「3. 오늘이, 그 이름의 비밀」, 『내 책상 속의 신화』, 웹진문지.

(<http://webzine.moonji.com/?p=1463>)

국립국악원 공식 블로그 - blog.naver.com/gugak1951

<https://www.navibook.co.kr>.

A B S T R A C T

Study on the aspects of Modern Changes in *Woncheongangbonpuri*

Kim, Min Su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Oh, Yoon Sun, Doctor of Literature

This thesis aims to analyze aspects of change in the recently created works based on narrative shamanistic songs *Woncheongangbonpuri*.

First of all, this study analyzed the prototypical characteristics and revealed the significance and value of this work these days. Analyzing its aspects which have been changed by various media, this writer suggested the direction where it will have to go forward in sequence

Woncheongangbonpuri in many storybooks has been changed to the style of children's stories targeting children, and its original Mythmes, in these books, is changed to the same style. The reason why this problem is indicated is that the authors write these storybooks without analyzing the meaning of a characteristic of narrative shamanistic songs and Mythmes. They will have more responsibility for the fact that they convey original to children before producing their works since they can have a decisive effect on children.

Woncheongangbonpuri is mutated into the modern works, an animation *Oneuli* and a musical play *Oneuli*. Original is reinterpreted modernly and expertly into the works that are proper for the present content consumers. In order for *Woncheongangbonpuri* plus our numberless mythology to become widely loved works, not to retain an old story, writers will have to discover value that original has and to adapt the old works for new one that can be communicated with the contemporaries.

If the works with *Woncheongangbonpuri* motif are reinvented into the magnificent works in a continued series, *Woncheongangbonpuri* will be able to emerge as prototype narrative of cultural content at the present day.

Key words: *Woncheongangbonpuri*, a storybook *Oneuli*, animation *Oneulia* musical play *Oneuli*, change, cultural content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February, 2014.